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

-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은지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

: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등장한 새로운 시민 참여 모델로서 ‘사회혁신’과 이것이 생산해내는 시민성, 그리고 그 정치적 효과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기획된 ‘사회혁신’은 2000년대 이후 시민운동이 나아간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혁신’이 가져온 민주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시민을 형성해내는 통치의 기획이라는 점, 그리고 그 통치가 기존의 사회 운동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상력을 주변화 시키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성찰을 요한다. 이에 본 논문은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혁신’ 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시민성을 ‘혁신적 시민성’이라 명명해 그 발생과 주체 통치의 기획, 그리고 통치 실천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실천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II 장에서는 ‘사회혁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론을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혁신’ 담론은 ‘90년대식 시민운동’을 넘어서고자 했던 운동진영의 고민이 서구에서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적 시민 참여 모델과 맞물리며 등장했다. 2000년대 중반 불거진 시민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급진화와 대중화의 노선이 경합했으며, ‘사회혁신’은 이 중 대중화 전략의 일환으로 고안 되었다. 박원순을 비롯한 일군의 시민운동 진영은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 아닌, 시류에 적응하는 기민함의 부족으로 해석하면서, 소외된 ‘민중’보다는 변화된 감수성을 지닌 자발적 ‘시민’들에 주목하며, 급진적 정치화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를 위기 극복 전략으로 택했다. 이러한 진단으로 인해 이들이 표방한 새로운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간극을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구별 짓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2006년 설립된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현 되었으며, 이후 영국과의 교류 속에서 ‘사회혁신’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기 시작한다.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사회혁신’은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대중화 될 수 있는 물질적·인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새로운 시민 참여 기획으로서 ‘사회혁신’은 운동의 영역, 방법 그리고 그 주체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재편한다. 먼저 ‘사회혁신’은 기존의 운동이 지나치게 ‘정치 중심적’이었다는 진단 하에 운동의 주 영역을 제도 정치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난제로 옮긴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추상적 이념에 입각한 비판이 아닌 미시적인 실용주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안의 생산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사회혁신’이 표방하는 사회 변화란 일상생활의 공익적 욕구충족의 행위와 등치되며, 문제해결의 초점은 구조적 권력관계에 대한 집요한 추궁보다는 불편함의 개선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고안에 맞춰지게 된다. 동시에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핵심적 원리로 표방하면서 기존 운동이 담지해온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립적 구도를 해체한다. 주체에 있어 ‘사회혁신’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문 운동가나·소수엘리트와 평범한 시민들을 구별 지으면서 후자를 ‘새로운’ 운동의 주역으로 호명한다.

III장에서는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참여 기획에 걸맞은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통치 과정을 분석한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의 시민 참여·교육 프로그램, 물질적 공간, 사업 심사와 평가의 기준들은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운동에 적합한 신체와 영혼을 가진 시민들을 형성해내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개인을 자기 삶의 능동적인 주체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발적’ 시민이자, 사심 없는 순수함과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모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시민이자,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하고 이를 재밌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기획해내는 ‘창의적’ 시민으로 빚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주체 생산의 과정은 사회변화를 역량 강화, 윤리, 합의, 새로운 해결책의 고안과 등치시키면서, 적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상상력을 주변화 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IV 장에서는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시민’이 실제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은 통치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전유, 성찰, 비판, 숙고하면서 통치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형시켜 나간다. ‘사회혁신’의 프로그램이 제공한 언어는 행위자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문제의식과 맞물리며 주체적 삶, ‘파크’라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집합적 지향을 형성해낸다. 동시에 이들의 지향은 기존 운동과의 구별 짓기 속에서 강화 된다. ‘혁신적 시민’들은 민주/반민주, 거창함-구호/소박함-생활, 순수/비순수, 놀이-자연/강박-인위, 유연성/경직성 등의 코드를 사용해 기존의 운동과 자신들의 활동을 구별 짓는다. 이러한 구별 짓기의 실천은 스스로의 활동에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운동이 담지하고 있던 정치적 지향을 주변화 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한편 혁신적 시민들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통치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찰, 변형해나간다. 생존에의 압박이나 ‘정치적’이라는 낙인, 모순된 통치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기반은 이들의 활동에 주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자생성, 순수성과 같이 깊이 내면화된 통치의 윤리는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군의 시민들은 통치의 언어를 보다 급진적으로 전유하면서 나름의 저항을 모색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연구 대상이 면담을 진행한 일군의 시민들에 한정되어 새로운 시민통치의 기획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력을 확인하기 힘들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한국에 등장한 시민성의 한 유형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혁신적 시민성’을 생산해내는 통치는 한편으로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기획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 운동이 담지한 ‘민주주의’와 ‘정치’의 가능성을 주변화 하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성찰을 요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혁신’은 행위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될 수 있는 열린 게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혁신’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적 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기존의 운동과의 접점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른 운동에 대한 의도적·비의도적인 배제 속에서 구축된 ‘혁신적 시민’의 담론을 보다 급진화 하여 공통된 시민의 언어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논의의 장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 사회혁신, 통치성, 시민성, 정치적 주체성, 시민운동, 박원순, 서울시정, 희망제작소.

학번 : 2014-20222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이론적 자원	10
1) 시민성과 통치성	10
2) Realist Governmentality Approach	12
4. 연구 설계	14
1) 연구대상	14
2) 연구방법	16
II. ‘사회혁신’의 등장: 운동에서 ‘혁신’으로...18	
1. ‘90년대식 시민운동’의 문제화.....18	
1) 시민운동의 위기 담론 등장	18
2) 위기 해석의 경합 : 대중화 vs 급진화.....19	
2. 대중화 전략으로서 ‘사회혁신’	28
1) ‘사회혁신’의 등장과 제도화	28
2) ‘사회혁신’의 의미론	34
(1) 영역 ; 광장에서 일상으로	34
(2) 방법 : 추상적 이념에 입각한 적대에서 미시적 실용에 입각한 협력으로	36
(3) 주체 : 전문 운동가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43
III. ‘혁신적 시민’의 생산	46
1. 주체 생산의 장치	47
1) 희망제작소 시민참여프로그램	47

2)서울혁신파크	50
2.주체 생산의 논리	58
1)자발성 : 참여하는 시민 만들기	61
(1) ‘자기’의 문제화.....	61
(2)자조(self-help).....	66
2)사회성 : 협력하는 시민 만들기	70
(1)사심 없는 순수함	70
(2)낭만적 연대의 형성	73
(3) ‘균형’ 과 ‘합의’ 라는 이상	74
3)창의성 : 해결사 시민 만들기	79
(1)새로움이라는 강박	79
(2)기획력의 함양	82
(3)재미라는 규율.....	84
4)소결 : 적대 없는 저항.....	86
 IV. ‘혁신적 시민’의 수행	88
1.통치의 수용 및 꿈꾸기.....	88
1)주체적 삶.....	89
2)공동체.....	95
3)사회변화	97
2.구별 짓기	103
1)민주 vs 반민주	103
2)소박함, 생활vs 거창함, 구호.....	108
3)순수 vs 비순수.....	111
4)생산적, 유연함 vs비생산적, 경직됨.....	115
5)재미 vs 당위	117
3.곤경과 성찰	119
1)생존의 압박과 자생의 이상	120
2)계속되는 낙인, 계속되는 부인	123

3)모순된 통치의 요구와 취약한 공동체	125
4)저항의 모색	129
 V 결론: ‘혁신적 시민성’ , 그 가능성과 한계...132	
1)연구 결과 요약	132
2)한계점 및 함의	136
 참고문헌	139
 Abstract	149

표 목차

[표1-1] 면접 대상자	16
[표2-1] 희망제작소 조직 구성 및 사업 내용 (2008-2013).....	29
[표2-2] 서울혁신기획관 조직 구성 및 사업 내용.....	32
[표3-1]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 교육 프로그램.....	47
[표3-2] 서울혁신파크 예산 투입 현황	52
[표3-3] 서울혁신센터 공모 사업 정리	56

그림 목차

[그림 1] 서울혁신파크 공간 구성	53
[그림 2] 희망제작소 <희망별동대> 모집 포스터	59
[그림 3]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 스쿨> 커리큘럼	60

I. 서론

1. 문제제기

6,70년대 시민 민주주의 운동을 거쳐 80년 광주 항쟁을 통과하며 급진화 되는 추세를 보였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룬 8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전까지 ‘반독재 민주화’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묶여 있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각기 분화를 거듭하며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은수미, 2001). 민중운동의 경우 90년대를 통과하며 소련의 몰락과 국가와 자본의 가혹한 탄압에 직면해 점차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던 반면, 시민운동은 87년 이후 열린 합법적 공간을 활용하며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특히 돋보인 것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환경련)과 같이 중앙 제도 정치에 대한 감시·비판을 수행하는 애드보커시 형 단체들의 활약이었다(하승창, 2015: 42-71). 이들은 주로 정치경제 체제에 있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이슈로 하고, 민중이 아닌 시민을 주체로 호명하며,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 시위가 아닌 입법청원·헌법소원·의원면담 등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운동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유팔무, 1995: 377-385). 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민중운동이 점점 더 계급 내적 실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데 반해, 시민운동은 ‘공익’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 척결, 재벌해체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은수미, 2001: 51-53).

그러나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애드보커시 형 시민운동의 헤게모니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중도 개혁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¹⁾과 시민운동의 제도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공고화, 정보통신의 새로운 발달 등 변화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90년대식 시민운동’이 ‘위기’와 한계

1) 중도 개혁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은 조희연(2012)의 구분을 따른다. 조희연은 한국 제도 정치의 구성을 크게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세력, 90년대 민주개혁을 추진해왔던 참여정부 등의 중도 개혁 자유주의 정치세력, 그리고 (구)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같은 급진진보정치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118).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90년대 시민운동 세력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중도)개혁 자유주의 세력이라 칭한다.

에 봉착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사회운동이 나아간 방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대해 다양한 관찰과 분석들이 제출되었다(조희연 외, 2010) 일군의 연구들은 생태, 채식, 탈핵, 동성애, 병역 거부, 소비자 문제 등 운동 이슈의 다원화와 분화, 탈 물질적 대안운동, 생활 세계 지향적 운동, 풀뿌리 운동의 확산 등을 2000년대 사회운동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하였다(조희연, 2010: 96-101; 김정훈, 2010: 240-241). 이와 더불어 변화된 운동 주체 혹은 시민 주체와 관련된 분석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 2004년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1년 두리반·명동 마리 점거 투쟁 등에서 보여지는 기존의 운동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에 주목했다. 사례들이 다양한만큼, 이들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체의 정치적 지향과 성격 역시 다기하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느슨한 공통점을 구축하고 있다. ‘폭력’ 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닌 기존 운동과 스스로를 구분 짓는 도덕적 순수성(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강진숙 외 2009: 29-31; 김예란, 2010: 183), 기성 운동 조직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자발성(강진숙 외 2009; 이동연, 2008: 156; 조정환, 2009; 고길섭, 2008: 142-143) 개인에 대한 감수성의 증대와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민주성(김예란, 2010: 173; 이동연 2008: 157; 강진숙 외 2009: 38, 김원, 2012: 341, 김승환, 2013: 144,151), 기존 운동과 구분되는 재기발랄한 창의성과 문화적 취향 등이(이동연, 2008: 158-167; 김예란, 2010: 174-175,184; 김호기, 2008, 고길섭, 2008: 143-144, 김승환, 2013: 46-48)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2000년대 이후 변화한 한국 사회운동과 운동주체의 성격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회학적 탐구를 요청하는바, 이러한 변화들의 다양한 양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본 논문은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사회혁신’ 담론과 이를 통해 구현된 시민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혁신’은 박원순을 비롯한 90년대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운동 세력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운동이 나아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2) 박원순을 위시한 일군의 시

2) 현 서울시 정부부시장이기도 한 하승창(2015)은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라는 저서에

민운동 진영은 2000년대 들어 제기되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위기’ 담론에 맞선 대응책의 일환으로, 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시민 참여 모델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용하여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때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활동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후 이는 사회적 기업,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등 다양한 실천들을 ‘혁신’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보급되기 시작한다. 요컨대 그것은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운동 진영의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시민참여 모델과 만난 결과물이었다. 2006년 설립된 희망제작소를 거점으로 추진되던 ‘사회혁신’은 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있던 박원순이 서울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보다 대중화 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는 학생 운동의 퇴조 이후 사회참여와 별다른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이들에게 기존의 운동과 구분되는 ‘대안적’ 참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류연미, 2014: 34).

대부분의 연구들은 희망제작소와 서울시정을 통해 형성된 시민 참여 모델이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송석휘, 2015; 이영희, 2013; 강제상 외, 2014; 김정희, 2015; 윤순진·심혜영, 2014) 이 때 ‘사회혁신’은 기존의 운동이나 행정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해주는 참여의 모델로 이해된다.³⁾ 그러나 ‘사회혁신’이 시민사회에 가져온 정치적 효과는 보다 신중히 성찰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솔하는 행위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만큼이나 권력적이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이때의 참여에 어떠한 내용이나 형식도 부재한다고 말할 수는

서 2004년 탄핵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등의 광장의 경험이 기존의 ‘90년대 식 시민운동’에게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박원순의 ‘사회혁신’을 “90년대의 대표적 시민운동 영역 안에서 2000년대 시민운동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2015: 138).

- 3) 물론 이러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서울시 시민참여 모델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미비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사회혁신’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혁신’의 취지에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일별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없다. 박원순·희망제작소·서울혁신파크가 생산하는 ‘사회혁신’에 대한 담론과 시민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들은 바람직한 사회변화에 대한 상과 방법론,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면서, ‘사회혁신’에 필요한 신체와 정신을 갖춘 특정한 시민 주체를 형성해낸다. 만약 권력을 특정한 품행을 억압하는 힘이 아닌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정의한다면, 이 역시 일종의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고든 외, 2014 : 15). 이 때 권력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행위는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행위는 주변화 시킨다는 점에서 언제나 정치적이다(크룩생크, 2014: 19).

이러한 권력의 전략이 비판적 문제제기를 요하는 이유는 ‘사회혁신’이 생산해내고자 하는 시민성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한국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에 대한 의도적, 비의도적인 구별 짓기와 배제 그리고 이들과의 경쟁적 분화 속에서 성장해왔다(은수미, 2001; 윤상우, 2010: 187-190; 배성인, 2007: 122).⁴⁾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의 연대보다는 거리 두기를 통해 성장함에 따라, ‘시민’이라는 언어는 민중계급을 배제한 도시 중산 계층의 전유물로 통용 되었으며, 그 정치적 전망에 있어서도 급진성이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운동 간의 분리는 보수적 정치 지형이 온존하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진보의 세력화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87년의 제도적 성취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00년대 운동의 ‘위기’는 민중운동과의 경쟁적 분화 속에서 성장한 시민운동이 전자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면서 그 지향을 급진화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위기란 운동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불거지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혁신’이 제시하는 참여의 모델과 이 모델이 형성해내고자 하는 시민성은 보다 면밀한 비판적 탐구를 요한다.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기실, 기존의 운

4) 주지하듯 89년 등장한 경실련은 스스로를 민중계급이 아닌 중산층의 주도 하고, 특수 계급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과격한’ 폭력시위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표방하면서 민중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거리두기 전략을 구사 하였다. 94년 출범한 참여연대와 같이 그 간극을 메워보려는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실질적인 연대 구축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김정훈, 2007: 106; 배성인, 2007: 122). 두 운동은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IMF 정리해고, 서울도시철도파업,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2000년 낙선운동, 2004년 탄핵반대 시위 등 여러 국면에서 지속적인 상호반목을 경험하였다(은수미, 2001: 56-63; 홍일표, 2007: 104, 윤상우, 2010: 187-190).

동이 담지해온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형성해내는 새로운 시민은 기존의 운동 주체와의 거리를 넓히면서 연대의 정치를 보다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시류에 대한 적응’이라는 명목 하에 운동의 급진성과 저항성을 퇴색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본 논문은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의 ‘사회혁신’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생산해내는 시민성을 ‘혁신적 시민성’이라 명명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혁신’과 ‘혁신적 시민성’의 등장 맥락과, 시민 생산의 매커니즘, 그리고 이러한 매커니즘에 대응해 실제 시민성이 수행되는 양상이 복합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이에 따르는 세부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혁신’ 담론과 ‘혁신적 시민성’은 어떻게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 2) ‘혁신적 시민성’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 ‘혁신적 시민’의 의미론은 무엇이며 이의 생산을 위해 어떠한 장치와 담론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 3) ‘혁신적 시민성’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 통치의 전략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수용, 전유, 성찰되고 있는가? 이러한 이들의 실천은 어떻게 통치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형 시키고 있는가?

2. 선행연구 검토

‘사회혁신’의 개념, 사례, 방법론의 소개 혹은 정책 조언을 위한 분석을 넘어서(gerometta et al., 2005; 윤지현, 2010; 멀건, 2011; 만지니, 2016; 변미리, 2012; 송석휘, 2015), 이것이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성의 양상과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의 탄생과 공명하고 있는 유사한 시민 주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사회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민사회 참여 모델이, 운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민운동진영의 고민과 만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혁신적 시민성’의 발생과 관련된 세계적 맥락과, 한국 사회 고유의 맥락을 짚어 보고

자 한다.

먼저 ‘혁신적 시민성’은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활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혹은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와 얽힌다. 70-80년대 신자유주의적 보수정권에 자리를 내준 이후, 90년대 들어 재집권에 성공한 서구의 좌파 정권들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복지 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적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 참여, 거버넌스(협치)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공동체 정신과 연대 등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다는 ‘사회혁신’의 부상 역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주로 푸코의 통치성 논의에 기대어, 9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정책이 형성해내는 시민성과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먼저 일군의 흐름들은, 자조(self-help)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통치(advanced liberalism)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들이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병·실업·안전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도록 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Swyngedouw, 2009; Rose, 1996; Cheshire & Lawrance, 2005; Bessant 2003). 스윈지 도우 (Swyngedouw, 2009)의 경우, EU의 ‘사회혁신’ 정책을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재편하는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통치전략의 등장배경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와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통치는 신 사회운동의 부상, 자본주의의 분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확산, 관료제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70-72). 그는 이러한 통치의 기획이, 특정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전통적 시민주의자들과 같은 일군의 시민들에게는 배제적으로 작동하는 야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74). 또한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통치전략은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기-책임화, 계산화, 다원적 파편화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75). 로즈 (Rose, 1996), 베상트 (Bessant,

2003) 체샤이어와 로렌스 (Cheshire & Lawrance, 2005) 역시 각각 영국의 공동체 정책, 호주의 청년 참여정책, 농촌 개발 정책을 분석하면서 비슷한 분석을 개진한다. 이러한 분석들에 따르면 공동체, 참여, 역량의 강화 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공동체나 개인이 떠맡게 하면서, 시장 합리성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적 주체를 양산해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정책을 시장합리성의 관철로 환원하는 것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흐름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변형된 통치전략이 단순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환원되지 않는 도덕적인 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통치 기획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갈라지는 부분에 주목한다(Lessenich, 2011; Muehlebach, 2012; Bevir, 2016).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탈리아 자원봉사자들을 분석한 무어엘바흐(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후퇴한 자리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메우려는 통치 전략은, 단순한 기업가적 자아로 환원되지 않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인간을 생산해내고 있다(8). 이 때 생산되는 ‘도덕’은 계급적 적대를 은폐하는 단순한 기만이나 허위도 아니며, 시장 합리성에 복속되는 무엇도 아니다. 오히려 감정과 연대에 기반한 도덕은 이성에 기반한 경제적 합리성과 서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둘의 묘한 공존이야말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담지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시장합리성의 일관된 관철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도덕과 경제가 서로 상충하면서도 공존하는 보다 역동적인 질서로 파악하고자 한다. 베비르(Bevir, 2016)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연대,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90년대 이후 정책적 움직임을 ‘신자유주의 이후의 통치성’으로 개념화 하며, 기존의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2).

이러한 통치성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회혁신’ 담론과 그 외연을 공유하는 한국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진행한 국내 연구들이 존재한다. (박주형, 2013; 김주환, 2012; 조문영, 2013; 류연미, 2014) 박주형(2013)은 박원순 서울시정의 핵심적 정책 아젠다이기도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자조(self-help)적인 기업가적 주체를 형성해내는 보다 교

묘한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주환(2012) 역시, 기업·노동자·소비자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통치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문제화 하면서, 이러한 담론들이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주체로 변형시키며,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적 합리성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 생산의 과정을 선불리 낭만화 하지 않으며 이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통치 전략이 소개되고 고안되고 적용되는 한국 고유의 맥락이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개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편, 조문영 (2013), 류연미(2014)의 연구의 경우 각각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자들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형성해내는 통치 전략과 이를 수용·변형하는 행위자들의 의미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유사한 시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하지만 구체적 분석 대상이나 초점이 빈곤 통치나 청년 통치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연구 관심을 달리하고 있다.⁵⁾

전자가 ‘혁신적 시민성’이 출현하게 된 전 세계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 혁신’ 담론은 2000년대 들어 관찰되는 기존의 시민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의 출현과 공명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 시민성’의 규명을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 사회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등장한 새로운 운동 주체에 관한 논의들 역시 참조 될 필요가

5) 한편 통치성 논의에 기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혁신’과 그 외연을 공유하는 사례들의 정치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령, 이강준(2015)의 경우 ‘원전 하나 줄이기’와 같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참여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피하면서 ‘착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에 우려 섞인 비판을 제기한다(160). 그는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소비자이자 직접 대안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급자로 호명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재로서는 에너지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핵·화석 에너지 자본”과의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적 연대로 확장되지 않을 때, 단순히 시민을 동원하는데 그치는 정책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 비판한다(162-164). 비슷한 맥락에서 김성윤(2013)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부상한 ‘사회적 경제’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사회적 경제 담론의 경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나 ‘정치’의 문제와 접합되지 못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낭만화 된 이미지를 생산해내는데 그치면서 “국가와 자본의 동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126-128).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자(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강진숙 외 2009; 김예란, 2010; 이동연, 2008; 고길섭, 2008; 서동진, 2008), 2009년부터 진행된 2011년 사이 진행된 홍대 두리반, 명동 마리, 슬릿워크, 잠민 총파업 등의 운동 참가자(김승환, 2013), 90년대 이후 사회운동에 참여한 상근활동가들(김원, 2010)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그 구체적 관찰의 결과 역시 다종다양하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겹치면서 느슨한 공통성을 형성하고 있다. ‘폭력’ 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닌 기존 운동과 스스로를 구분 짓는 도덕적 순수성(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강진숙 외 2009: 29-31; 김예란, 2010: 183), 기성 운동조직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자발성(강진숙 외 2009; 이동연, 2008: 156; 조정환, 2009; 고길섭, 2008: 142-143, 김승환, 2013),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민주성(김예란, 2010: 173; 이동연 2008: 157; 강진숙 외 2009: 38, 김승환, 2013: 144), 도덕적 당위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적 취향 등을(이동연, 2008: 158-167; 김예란, 2010: 174-175, 184; 김호기, 2008, 고길섭, 2008: 143-144. 김승환, 2013: 152-154)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주체에 대한 평가는 각양 각색이어서, 일군의 연구와 비평들이 새로운 시민성이 보여준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고길섭, 2008; 강진숙 외 2009; 김호기, 2008; 조정환, 2009; 김철규 외 2010; 이해진, 2008), 다른 한편에서는 이가 가지는 보수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문제화 하고 있다(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서동진, 2008; 김예란, 2010) 이 중 특히 후자의 시각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지한 본 논문에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하지만 구체적 연구 대상을 달리할뿐더러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인상분석에 기반한 비평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것을 시민들의 실천 속에서 재구성되거나 변형되는 것이 아닌, 선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탈정치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초점을 달리한다.

정리하자면 ‘혁신적 시민성’을 위한 선행연구로는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이 확산되며 보편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와 2000년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외국 사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작동하는 한국 고유의 맥락과 통치 대상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분석

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하지만, 연구 대상을 달리할뿐더러, 비판적 고찰의 경우 단순한 논평이나 인상비평을 넘어선 경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을 참조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혁신적 시민성’이 등장하고 생산되고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이론적 자원

1) 시민성과 통치성

시민성 (citizenship) 개념은 각 분야마다 쓰임새나 개념 정의에 있어 차이를 보이나, 통상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자격”(곽정래, 2011: 104), “의무와 책임”, “시민사회의 덕성 내지 자질”, “시민적 능력”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심정보, 2015: 168).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시민성 연구들은 특정한 자질들을 시민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선형적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측정, 평가,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은 정직, 공동체의식, 관용, 애국심, 준법의식, 자율성, 경쟁성과 같이 특정한 자질들이 시민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규범적 판단 하에, 이를 측정 평가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로 정의하고, 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최지영 외., 2015: 116).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러한 시민성 연구들과 초점을 달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시민성을 고정된 실체로 전제하기보다는, 이것이 구성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바람직한’ 시민의 덕목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권력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자질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민의 덕목으로 선정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어떠한 장치들 속에서 권장되고 육성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이 시민이라면 지녀야 할 덕목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시민성의 다양한 양상과

이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단일한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 시대에 존재하는 시민성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각축하고나 경합하는 역동적인 세력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가령 전통적인 ‘운동권’이 담지한 시민성은 2008년 광장에 출현한 시민성과 경합·각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수정하거나 강화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민성의 다차원성과 이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한다.

이 때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이어받은 크룩생크의 논의는 시민성의 구성과 경합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통치란 푸코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행한 지적 작업을 포괄하는 핵심적인 테마로 넓은 의미로는 품행의 인도 즉, 특정한 목적에 따라 “사람들 일부나 전체의 품행을 형성, 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활동의 형태”를 일컫는다(고든 외, 2014 : 15). 통치성이란 허용과 금지 혹은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입각해 전개되는 사법적 권력의 모델과 구분되는, 무언가를 사고 가능하거나 행동 가능하게 만드는 (Lessenich, 2011: 304)실천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것은 흔히 오해받듯 단순히 국가나 특정 권력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치의 실천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사적 개인들 간의 관계, 사회제도가 공동체 내부에서의 관계, 정치적 주권행사와 연관된 관계 등 사회 전반에 편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통치성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국가는 법이나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고정된 제도적 기구나 실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통치의 실천들이 가로지르는 하나의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거점이자 효과일 뿐이다. 이 때 NGO, 직장, 지역 단체, 학교, 가정 등 다양한 차원, 장소, 행위자들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통치 실천들이 관통하는 하나의 결절점으로 기능한다 (Ilcan · Lacey, 2006: 208; 브뢰클링, 2014: 18)

크룩생크(2014)는 이러한 푸코의 관점에 기대어 민주적 시민 혹은 시민성이 ‘발명’ 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시민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시민은 일련의 통치의 실천들을 통해서 구성되고 발명되는 것이다. 일련의 통계들과 사회과학적 담론들은 ‘역량’과 같이 시민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특정한 자질들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틀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발견과 증진의 대상으로 구성해낸다. 동시에 사회에 편재된 수많은 사소하고

평범한 장치들과 미시적 실천들은 -쓰레기 줍기 모임에서부터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개인을 특정한 자질과 덕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형성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22). 이러한 지식, 절차, 테크놀로지, 행위 지침들을 포함한 일상의 실천들을 통해서 특정한 시민-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때 특정한 시민성을 사고 가능하고 육성 가능한 것으로 형성해내는 권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어떤 형식의 품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행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변화 한다는 점에서, 통치의 실천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이러한 통치성 분석은 1) 통치의 목표와 수단을 제공하는 과학적 앎·도덕적 정당화의 논리와 같은 지식, 담론들 2) 이러한 담론이 현실에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장치, 계산·평가·보상 방식 등의 구체적인 테크놀로지 3) 그리고 주체화의 윤리 즉, 개인의 자유의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통솔하는 규범과 행위의 코드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Miller · Rose, 2008: 30; 김주환, 2012: 214-215)

푸코와 크룩생크의 통찰에 입각해 본 논문은,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성의 생산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서울시정이 만들어내는 시민성을 평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성해내고자 하는 시민의 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장치들이 동원되며, 이것이 낳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이고,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타의 시민성 모델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가를 주요한 연구 질문으로 삼는다.

2) Realist Governmentality Approach

이렇듯, 통치성 개념은 시민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구성적 과정으로 포착하면서, 이의 권력적 효과를 파헤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영미권에서 제시된 통치성 학파의 논의를 빌려와 한국의 사례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많은 논의들은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 충분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즈가 지적하고 있듯,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양상이 유사한 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과 작동방식까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Rose et al.,

2006: 97). ‘사회혁신’의 기획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수입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고안된 여러 가지 통치의 실천들이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자들의 인식까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성 분석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용되고 관철되는 고유한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푸코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대다수의 통치성 연구들은 주로 주체를 빚어내는 선언적 담론과 프로그램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권력의 실천을 수용하거나 거부, 전유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경험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McKee, 2009: 473-474). 이러한 분석들에서는 단일한 통치실천이 관철되는 평화로운 세계만이 그려질 뿐, 행위자들이 이를 수용, 전유, 비판, 거부하면서 실천의 규칙들을 변경하는 복잡다단한 양상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주체화가 부드러운 것도 완벽한 기획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오히려 본래부터 갈등, 경합,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사실”(McKee, 2009: 474; 곽중현, 2010: 9 재인용)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스탠슨의 Realist governmentality approach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은 푸코식 담론분석에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결합하여 “주체성을 둘러싼 투쟁과 연관된 혼잡함과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통치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cKee, 2009: 479; 곽중현, 2010: 11 재인용). 이 때 스탠슨은 담론과 실천을 구분하지 않았던 푸코와 달리, 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면서 권력의 통치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복잡다단한 실천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기존의 통치성 분석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혁신’이라는 시민통치의 전략이 고안되고 수입, 관철될 수 있었던 한국 고유의 맥락에 착목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제기된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 담론에 주목한다. ‘사회혁신’은 서구에서 제기된 실천의 프로그램을 수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수입된 배경이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의미론적 자원들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한국적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통치가 등

장하고 관찰 될 수 있었던 국내적 맥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론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되는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해 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 권력의 통치전략과 이를 의미화 하는 행위자들의 실천 양상을 복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렇듯, 시민 만들기의 실천과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 전유, 성찰하는 시민 되기의 실천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때, ‘혁신적 시민성’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논문은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구체화된 새로운 시민참여 기체인 ‘사회혁신’ 담론과 이를 통해 형성된 주체성인 ‘혁신적 시민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분석되는 구체적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텍스트이다.

첫째, ‘혁신적 시민’의 등장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시민운동의 ‘위기’와 관련해 언론, 시민운동 진영, 학계 등에서 생산, 논의된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사회혁신’이 수입되고 고안된 맥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면밀히 고찰 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자료들로는, 2004년 시민운동가 대회 발표 자료, 2006년 <한국사회포럼>의 특별토론회, 2006년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 평가, 전망>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둘째, ‘혁신적 시민’을 생산하기 위한 담론·프로그램들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박원순의 저서와 희망제작소,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사회혁신’은 무엇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그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으로 해서 보다 대중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은 ‘혁신적 시민성’의 발생과 확산을 설명하는데 있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희망제작소가 설립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 시중에 출간된 박원순의 저서와 인터뷰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희망제작소에서 생산된 담론의 경우 2006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발행한 연차보고서, 활동 후기, 연구보고서, 리포트, 번역서 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자료의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를 통해 구할 수 있었으며, 수집이 어려운 자료의 경우 희망제작소 측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검토하였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경우, 서울시의 모든 결재문서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과 서울시의회 (www.smc.seoul.kr)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서울혁신파크 관련 자료들의 경우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innovationpark.kr)와 블로그 (http://blog.naver.com/s_innopark)를 통해 공지, 활동보고, 뉴스레터, 활동후기, 활동가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 간행된 자료의 경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였다.

셋째, 이러한 통치를 수용해 ‘혁신적 시민성’이 실제로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의 다양한 통치 기획에 응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서사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혁신파크나 희망제작소에서 발간한 입주단체·참여 시민들의 인터뷰 자료, 비영리 IT 센터에서 발간한 서울혁신센터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에 담긴 혁신파크 관계자 인터뷰 및 회의 녹취록⁶⁾,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 프로그램 참가 시민, 서울혁신파크 관계자, 파크 입주단체, 서울혁신센터에서 기획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생 등을 포함한 총 21명의 시민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인터뷰 녹취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면접 대상자 표집의 경우,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 스쿨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자료집을 통해 1차 선정이 이루어진 후,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6) 본 연구자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혁신 파크 내 입주단체인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서울혁신센터 운영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에 참가하였다. 본 인터뷰 자료집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구할 수 있었으며,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전 허락을 구한 후 논문 작성에 참고하였다.

[표1-1] 면접 대상자

	기호	성별	나이	학력	
1	A	남	30대 중	대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디자인스쿨)
2	B	남	40대 후	대학원 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디자인스쿨)
3	C	남	30대 초	대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디자인스쿨)
4	D	여	20대 후	대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이노베이션캠프)
5	E	남	40대 후	대학원 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디자인스쿨)
6	F	남	30대 후	대졸	희망 제작소 프로그램 참가 (소셜디자인스쿨)
7	G	남	30대 중	대졸	전 희망 제작소 연구원
8	H	남	40대 중	대학원 졸	전 희망 제작소 연구원
9	J	남	30대 중	대졸	전 희망 제작소 연구원 현 혁신파크 입주단체
10	K	여	30대 초	대졸	전 희망 제작소 연구원 현 혁신 센터 근무
11	L	남	40대 초	대학원 졸	전 희망 제작소 연구원 전 혁신센터 근무
12	M	남	40대 초	대졸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
13	N	남	30대 초	대재	서울혁신파크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 (리빙랩공유주거 프로젝트)
14	O	여	20대 초	대재	서울혁신파크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 (리빙랩공유주거프로젝트)
15	P	남	30대 중	대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16	Q	남	40대 후	대학원 재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17	R	여	30대 후	대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18	S	남	30대 초	대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19	T	남	50대 초	대학원 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0	U	남	30대 후	대학원 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1	V	여	30대 중	대학원 졸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 방법은 크게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이다.

문헌 분석은 시민운동 ‘위기’ 담론,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 생산 전략 및 장치,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서사화 하는 방식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며, 페어클러에 의해 정교화된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방법을 사용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무엇보다 “언어와 언어의 사용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 (Fairclough, 1995: 135; 신진욱, 2011: 15 재인용)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담론의 의미를 지배구조의 맥락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신진욱 외, 2009: 275). 특히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과 권력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담론 자체의 권력적 효과, 담론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투쟁, 그리고 담론 밖의 권력과 담론 사이의 관계 등에 주목한다(신진욱, 2011: 15).

한편 문헌 분석의 방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행위자들의 생각, 의도, 감정, 수집된 자료의 의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대상자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목적을 지닌 대화”를 이끌어어나가는 연구 방법으로서 (홍용희, 1998: 116), 본 연구에서는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 관련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거해, 2016년 4월부터 7월, 그리고 2017년 1월, 회 당 1-2시간 가량 인터뷰이의 직장 ·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졌다.⁷⁾ 질문의 구성은 크게 1)프로그램 참여 혹은 입주 계기 2)활동 혹은 참여 내용 3) ‘사회혁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감정 4)면담자의 전반적인 인생관 · 사회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자의 개별적 특성이나 응답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었다.

7)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연구로 (승인번호 : IRB No. 1604/003-012), 모든 면담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근거로 면담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II. ‘사회혁신’의 등장 : 운동에서 ‘혁신’으로

1. 90년대식 시민운동의 문제화

1) 시민운동의 위기 담론 등장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9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경쟁적 분화를 통해 성장해왔다(은수미, 2001; 최원, 2014: 186). 민중운동의 경우 90년대 이후 국가의 가혹한 탄압, 본격화된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고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반해, 시민운동은 독자적 세력화를 시작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중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으로 대표되는 ‘애드보커시 형’ 시민단체의 활약이었다. 시민운동이 담지하고 있는 개량주의적 한계와 보수적 성격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김세균, 1995; 조희연, 1995: 333; 은수미, 2001: 55) 반민주세력이 온존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의 아젠다는 그 자체로 ‘진보적’ 기획이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성과는 민주적 개혁의 제도화로 이어졌다(조희연, 2005: 100).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90년대식 시민운동’을 둘러싼 위기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97년경부터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의 문제제기가 운동 진영 내부에서 진행되는 자기 성찰적 비판에 가까웠던 것에 반해, 2000년대에는 보수 언론에서 시작해 학계, 진보 언론, 운동 당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영에서 위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김선미, 2007: 150) 2004년 <시민의 신문>은 연재를 통해서 위기 담론을 공론화 하였고, 시민운동 단체 내부에서도 현 상황의 진단과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들이 이어졌다.⁸⁾ 이러한 논의는 2004년 6월 경실련 활동가 하승창의 오마이뉴스 기고, 2004년 9월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있었던 박원순의 발표 등을 통해 보다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진다(하승창, 2004; 박원순, 2004a). 이 자리에서 박원순은 ‘위기와 기회,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이란 이름의 발표문을 통해

8) 하승창에 따르면, 시민행동은 2004년부터 <시민행동 길 찾기>라는 주제로 위기 담론을 논의하고, 여성단체연합 역시 총선 이후 총선 평가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토론하면서 2005년 대안연구소를 발족한다(2006: 5).

시민단체들이 모인 공개적 토론회에서는 최초로 시민 사회 위기 담론의 원인과 진단을 모색한다. 2005년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희연 (2005)은 작금의 상황을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의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대한 제대로 된 응전을 구축하지 못한 “전환기적 위기”로 규정하며 시민운동세력의 변화와 성찰을 촉구한다. 2006년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토론회에서는 조희연의 논의를 이어받아 시민사회 위기론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석이 제출되었다(한국 사회포럼, 2006). 같은 해에는 경실련 활동가인 하승창에 의해 ‘90년대 중앙 집중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제출되기도 하였다(하승창, 2006). 2007년 한겨레의 기획연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담론을 구체화했고(김선미, 2007: 156) 같은 해 6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 평가, 전망>이라는 이름의 토론회에서도 현재까지의 시민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어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10)

2) 시민운동 위기 해석의 경합 : 대중화 vs 급진화

이러한 위기 담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등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9) 한편, 박상필(2009)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시민운동 위기에 관한 언론보도들을 분석하면서, 시민운동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의 상당부분이 과장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다수의 보도 내용이 ‘본질적’인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객관적’으로 위기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의 말대로 시민운동위기 담론이 정치적 목적 하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기’ 담론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양한 해석과 실천들을 생산함으로써, 그 자체로 현실을 구성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를 가려내는 것이라기보다, ‘위기’ 담론 자체를 향후 시민운동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실제로 인식하고,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10) 한편, 허성우(2006)는 <한국사회포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에 사는 여성 운동가의 관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위기담론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작금의 시민운동 위기론은 부분적으로 중앙 중심적인 진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 운동가에게 있어 현재 시민운동의 위기로 지목되는 보수 세력의 전횡이나,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줄 학습의 부재, 주체 재생산 위기, 자생적 풀뿌리 운동조직의 부재는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닌 항상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앞으로 다룰 위기담론 논의 역시, 주로 중앙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애드보커시 형 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힌다.

중요하다. ‘사회혁신’은 그 자체로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시민운동 세력이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담론에 대응하여 제시한 하나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과정적인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장 내에서 주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위기의 진단과 해석의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기’를 하나의 고정된 사실로 전제하면서 그 원인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진영이 위기를 정의,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와 보완적 혹은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담론들 간의 지형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혁신’의 등장은 주어진 위기의 원인들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훗날 ‘사회혁신’으로 나아간 박원순과 일군의 시민운동 진영의 위기 해석 및 진단의 방식을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한다. 논자들마다 세부적인 의견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넓은 틀에서 이들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감수성에 맞추어 보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이러한 위기 진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종류의 해석도 존재했는데, 이 중에서도 두드러진 한 양상을 본 절에서는 급진화라 명명한다. 급진화 노선에 서 있는 이들은 민중운동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성장한 시민운동의 이념적 한계를 비판하며, 정치적 급진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기’를 둘러싼 담론들 간의 경합과 각축의 양상을 크게 이슈, 기조 그리고 주체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슈 : 시류에 맞는 기민함 부재 vs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대부분의 논자들은 시민운동이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김선미, 2007: 157-158; 박원순, 2004a: 2-4; 조희연, 2005: 69; 배성인, 2007: 120; 하승창, 2006). 그러나, 변화하는 정세가 무

엇이고,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조직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박원순을 비롯한 일군의 논자들은 제도정치의 환경 변화를 시민운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등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정책 경쟁의 공간이 확산됨에 따라, 87년 이후 권위주의적 정당을 대신해 준정당적 기능을 수행해왔던 애드보커시형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시민운동이 목표로 했던 제도정치의 정상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발생한 위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민운동이 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아젠다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원순, 2004a: 13; 김선미, 2007: 158; 하승창, 2006: 54). 박원순은 “우리사회에는 정당, 언론, 시민단체 간에 어떻게 국민을 사로잡는 아젠다를 만들어내는가”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단지 비판과 성토의 적이기만 했던 국회와 정당, 언론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경쟁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새롭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4). 이 때 그는 “제품”, “블루오션”, “경쟁” 등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시민운동을 시장 모델에 입각해 설명 하고 있다(<<프레시안>>, 2006.10.12.). 시민운동의 논리가 시장의 언어로 번역될 때, 시민운동가가 담지해야 할 윤리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유사해진다. 시민운동가는 시대의 필요를 기민하게 포착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내는 기업가와 같이, 유연하게 시류에 적응하면서 대중들이 질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아젠다를 내어놓는 참신함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인용구는 이러한 박원순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나는 요즘 '냉장고론'을 말한다.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을 떠올려보면 작년과 성능, 디자인이 같은 제품을 올해 또 내놓으면 물건이 팔릴 리가 없다. 잘 팔린다고 계속 같은 것만 팔다보면 나중엔 안 팔리고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잘 팔린 아젠다만 부여잡고 반복해온 시민운동은 새로운 아젠다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프레시안>>, 2006. 10. 12)

그의 위기 해석 방식에 있어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 새로움에 뚜렷한 방향이 부재하다는 것에 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은 공

통된 구심점이나 총체화된 논리를 갖지 않으며 생활, 인권, 여성, 탈핵, 다문화, 평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취한다(박원순, 2004: 11-13). 특정한 중심성을 갖지 않는 이슈의 다원성은 90년대 시민운동의 특징이기도 했으나, ‘위기’ 논의와 맞물려 보다 심화된 양상을 띠게 된다. 박원순에게 있어 운동의 아젠다는 끊임없이 개척·발굴 되어야 하는 “거대한 블루오션” 이자 무한한 “틈새” 로, 구성원들끼리 “굳이 합의를 할 필요” 없는 무엇으로 이해된다. 그저 “온 국민이 하나씩 ‘각자가 가장 좋아하고’ ‘절박한 과제를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프레스리안>>, 2006. 10. 12). 박원순과 비슷한 노선에 서있는 논자 중 일부는 이러한 그의 무한한 다원주의가 ‘백화점식 시민운동’ 이라는 시민운동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보다 심화시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지만(하승창, 2006: 7), 이들 역시 ‘구체화’, ‘전문화’, ‘분화’, ‘다양화’ 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동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하승창, 2006: 67-68).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운동의 위기를 ‘새로움’ 의 부재로 문제화 하는 위와 같은 해석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현재 위기는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 의 부재가 아니라, 90년대 시민운동이 담지한 “현실적·인식적·계급적 한계” (조희연, 2005: 79)에서 기인한다. 운동의 주체였던 민주개혁 세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절차적 합리성의 수립에 집중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지금 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령, 조희연(2005)은 90년대 시민운동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응전의 태세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추진한 민주개혁이 “더욱 양극화된 계급적·경제적 관계의 외피를 합리화 하는데 그치” 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81-99). 홍석만(2006: 20-24)이나 배성인(2007: 123) 역시 보다 강경한 입장에서 90년대 식 시민운동의 보수성을 지적한다. “자유주의 개혁운동” 이 금융 개방, 주주 자본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데 적극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들의 실질적 삶의 기반이 붕괴 한 것이 오늘날 운동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1)

11) 이렇듯 작금의 정세에 대한 해석이나, 그 향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민

(2) 기초 : 중립성의 강화 vs 급진적 정치화

많은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위기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는 시민운동의 중립성, 도덕성의 훼손이다. 2000년대 중반 실시된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관찰된 시민단체의 순위 하락은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되었다.¹²⁾

박원순을 비롯한 일군의 논자들은 시민운동의 중립성이 의문에 부쳐지게 된 원인으로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보수단체의 성장,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격, 시민운동가들의 정계 진출과 내부의 도덕성 훼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박원순, 2004a: 6-9; 하승창, 2006: 46; 김선미, 2007: 159).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된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급속한 성장은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념적 대립”을 가중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고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들은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을 결성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보수가 군부독재의 잔재를 유지하려는 퇴행적 세력으로 규정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였던 것에 반해, 새롭게 등장한 이들은 민주 개혁세력의 국가운영 능력과 권력집단으로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나름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간다(조희연, 2005: 85-86).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사회진영에 정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대중화와 급진화 진영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 공감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무현 정부가 점차 국가 기구내 행정 관료나 삼성경제연구소 등 자본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에 포섭되어 감으로써 초기의 개혁 의지를 잃어버리고 좌초되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조희연·홍일표 2004; 최장집, 2005: 168).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코리아연구원, 2006년 세교 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소, 생태지평,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좋은 정책포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 민간 주도의 싱크탱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되는데,(제정남, 2006; 홍일표, 2011) 희망제작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설립된 싱크탱크 중 하나였다.

- 1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조사한 사회영역별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03,04년도 1위에서 2005년 5위, 2006년 7위로 떨어졌으며, 동아시아 기관별 신뢰도에서는 참여연대의 신뢰도가 2005년 8위에서 2006년 15위로 떨어졌다. 2006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긍정(42%)보다 부정(53%)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들은 언론에 의해 활용되면서 시민단체의 ‘위기’론을 증폭시켰다(박상필, 2009: 57-58).

시민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시민단체 인사가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면서, 2000년 낙선운동 이후 시민운동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한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정권의 흥위병’, ‘정치화’, ‘권력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 한다(하승창, 2006: 46). 이에 더해, 성추행 파문,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 도덕적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시민운동의 정당성의 원천이었던 ‘초정파적 보편성’과 도덕성은 크게 훼손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박원순은 중립성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보편성은 그 자체로 고수해야 할 시민운동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작금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시민사회의 ‘초정파적’ 개혁에 대한 오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의 주장을 악의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초 당파성을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박원순, 2004a : 2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적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흐름도 존재하였다. 2000년대 중반 들어 “가치와 가치에 기반한 정치세력 간의 충돌이 가능한” 제도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을 무기로 심판자 역할에 머무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노사모와 같이 정치적 세력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승창, 2004).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90년대 시민단체가 중립성을 견지해 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 하는 흐름도 존재하였다. 가령 홍석만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익으로 포장된” 중간계급의 이해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04년 결성된 총선연대에서 오로지 “탄핵 찬성” 만이 낙선 기준으로 채택 되었을 뿐 “신자유주의 재편이나 파병찬성”은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기실 “금융개방을 요구했던 해외 초국적 자본”이나, 노무현 정권과 이해가 정확히 일치하는 “신자유주의 운동”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대다수 민중의 권리가 유린되고 박탈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타협”만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의 태도는 사실상 “노동자 권리의 양보와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홍석만, 2006:

21-22). 조희연 역시 시민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왔으나, “사실상 집권당과 동일한 이념 지형 위에서 서 있” 으면서 다른 세력들을 의도치 않게 배제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중립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당들과 거리를 두고 ‘불편부당’한 위치”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념적 지형을 넘어 정치적으로 “진보성”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조희연, 2005: 100).

(3) 주체 : 자발적 시민들 vs 억압 받는 민중들

많은 논자들은 2000년대 중반 제기된 시민운동 위기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재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인력과 재정의 문제는 90년대부터 항시 지적되어오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주요 인력들이 정부 제도권으로 대거 흡수되는데 반해, 새로운 인력은 충원되지 않음으로써 인력 재생산의 문제가 한층 심각하게 대두되었다.¹³⁾ 더군다나,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퇴조로 인해, 학생운동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으로 진로를 이어가던 인력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 것 역시 인력난 가중의 한 몫을 담당했다(박원순, 2004a: 5; 김선미, 2007: 162; 김정훈, 2007: 111). 이러한 재생산의 문제는 한편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했다.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공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이 그동안 운동에 소외되어 있던 이들에 주목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을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주목해야 하는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순과 일군의 논자들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 시민들에 주목했다(하승창, 2006: 35-38; 김선미, 2007: 168; 지금중, 2006). 가령 지금중은 기성 시민운동단체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집결하며, “엄숙함”이 아닌 “밝고 즐거운 축제와 놀이의 형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시민들이 2000년대 이후 광장에 출현했음에 주목

13) 하승창(2006: 25)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경실련 · 참여연대 · 녹색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의 회비와 회원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면서, 이들의 등장이 사회운동에 새로운 ‘자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55). 훗날 박원순 서울시정 하에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하게 되는 하승창 역시 기존의 경실련 · 참여연대 등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운동방식을 ‘중앙집권적’이라고 분석하면서, 2000년대 변화된 광장의 감수성에 맞추어 시민운동진영의 운동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제 전문 운동가가 아닌 자발적 참여의 양상을 보이는 다원적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 조직이 아닌 분산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닌 연결하는 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06: 66-67). 박원순 역시 하승창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시민을 동원하고 여론을 모아내고 영향을 미치는 일은 그만큼 시민들의 정서와 논리와 감성에 다가가야 가능한” (2004a: 16-17)일임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시민들의 감수성에 맞는 운동 방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렇듯 일군의 논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의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시민들에 주목했다면, 어떤 논자들은 90년대 시민운동에서 소외된 민중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가령, 조희연은 오늘날 시민운동의 위기 원인으로 “민중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적 개혁의 제도화가 계급적 불평등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개혁과 대중들의 실제적인 삶의 괴리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들이 이룩한 “개혁이 더욱 더 허무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005: 98). 홍석만 역시, 시민운동 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공고화 하는데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정의, 참여민주, 공공선 등의 “시민적 이상은 실현되어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급격한 “민중의 이반”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2006: 21). 배성인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시민운동이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운동이 진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층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 또는 하층 중심의 운동으로 전환해야” (2007: 129)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시민운동의 ‘위기’를 둘러싸고 크게 대중화라 불릴 수 있는 노선과 급진화로 명명될 수 있는 노선이 경합하는 가운데, 박원순이 지니고 있었던 위기 진단 방식은 주목을 요한다. 그는 이슈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시류에 적응하는 기민함을 강조하면서, 기조에 있어서 급진화보다는 ‘조정과적 중립성’의 강화를, 주체에 있어서는 소외된 민중보다 새로운 참

여의 양상을 보이는 자발적 시민들에 주목하였다. 대중화로 명명 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 해석을 통해서, 그가 이끄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운동’ 과의 구별 짓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사회혁신’ 이라는 기획으로 구체화 되었는가? 새로운 시민참여 기획으로서 ‘사회혁신’ 은 이러한 문제 진단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해석의 방식이 ‘사회혁신’ 이라는 기획으로 의제화, 제도화 되는 과정과 그 구체적인 의미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중화 전략으로서 ‘사회혁신’

1) ‘사회혁신’의 등장과 제도화

(1) ‘사회혁신’의 의제화 : 희망제작소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던 2006년, 박원순을 위시한 시민운동세력은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설립한다. 최초의 구상은 당시 아름다운가게의 상임이사로 있던 박원순이 2004년 독일에 3개월, 2005년 스탠포드에 7개월 간 체류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 4차례의 구상 회의 끝에 2006년 3월 창립되었다.¹⁴⁾ 희망제작소는 진보진영에 통치를 위한 정책 생산 능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설립된 싱크탱크로서의 성격과,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 운동체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었다. 이로 인해 희망제작소의 사업들은 시민운동과 정부 정책의 중간적 성격을 보였으며, 훗날 서울시 행정과 무리 없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희망제작소는 ‘독립·참여·실용·대안·지역·현장·종합’을 키워드로 “시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에 조용하는 대안을 만들어내며, “미시적인 해법의 축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거시 대안과 담론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조직의 기본 기조로 삼았다(희망제작소, 2011b:2). 이러한 철학 아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직들이 구성된다.¹⁵⁾ 초반 조직 구성이 싱크탱크로서의 성격과 시민운동체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면, 2008년 이후로는 연구 사업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참여 프로그램 등 ‘실행’ 사업에 방점이 찍히게

14) 한선경·김정원,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5),(5.1)」, 『희망제작소』, 2012.02.20.
<<http://www.makehope.org/한국-사회혁신-둘러보기-5-51/>>

15)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번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개편은 조직 내부의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두 번째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조직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희망제작소, 2009: 24; 2011b: 3).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014년부터는 이원재 소장이 취임 함에 따라 연구조정실, 정책 그룹, 시민 사업그룹, 경영 지원실로 조직이 개편된다(희망제작소, 2015).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구 중심의 사업들이 대폭 축소된 결과이기도 했다(희망제작소, 2011b:3). 이 결과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현실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혁신센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컨설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뿌리 센터>,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관련 연구와 인큐베이팅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센터>,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희망아카데미>, 직장인, 은퇴자와 NGO 단체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 사회공헌 센터>,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연구 모임인 <목민관 클럽> 등의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 되었다.

[표2-1] 희망제작소 조직 구성 및 사업 내용 (2008-2013)

부서명	활동 내용	주요 사업
사회혁신센터 (구 사회 창안 센터)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직접 현실에 구현해 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창안 1.0 / 2.0 • 소셜이노베이션 캠프 • 사회 창안 대회 • ANIS (Asia NGO Innovation Summit)
뿌리센터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지역 컨설팅, 풀뿌리 자치 조직 강화 지원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 ‘마을이 학교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 귀농귀촌 아카데미’
희망아카데미 (교육)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 · 교육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학교 • 공무원 학교 • 지역리더 아카데미 • 주민참여예산학교
사회적 경제 센터 (구 소기업 발전소)	사회적 경제 주민 교육 사회적 경제 월례 보고서 발간 청년 사회적 기업 발굴 · 양성 ·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리포트발행 • 희망 별동대 • ‘Let’ s Coop’
시니어사회공헌 센터	시니어들과 NGO 단체 연계 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직장인들 은퇴 후 인생 설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설계 아카데미 • 퇴근 후 LET’ S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목민관 클럽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월 정기포럼 • 공동 해외 연수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사회적 기업,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등을 망라하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들은 2008년 이후 영국 <영 파운데이션>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혁신’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기 시작한다. 이 때 ‘사회혁신’이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¹⁶⁾ 이

16) 여기서 우리는 ‘사회혁신’이라는 담론이 등장한 역사를 간략히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은 기술적, 경제적 혁신과 대비되는 사회적 관행이나 관계, 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 종종 사용되어 왔지만, (Taylor, 1970; Gershuny, 1983; Drucker, 1987) 그 자체가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정부 실패나 시장실패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보편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의 일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화는 2000년 OECD 산하 ‘지역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LEED)에서, 6개국의 11개 조직이 모여 사회혁신에 관한 포럼 (LEED forum on social innovations)을 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 2000년 4월 열린 OECD 포럼에서는 ‘사회혁신’의 정의와 사례 발표가 진행되는데, 이 때 발표된 정의는 OECD 보고에 따르면, 비정부기구에 의해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로 알려져 있다(Noya, 2011: 20). 이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국가나 시장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나 사회적 욕구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Noya, 2011: 21)”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공동체 운동 등을 구체적 사례로 한다. 이후 이 포럼은 1년에 1~4회씩 사회혁신의 정책과 방법론을 개념화, 확산, 촉진하는 다양한 발표와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와 동시에 2000년대 들어 social innovation을 의미화, 개념화 하고 그 사례들을 연구하며, 그 방법론들을 지방 정부나 기업들과의 협력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접목시키는 담론-실천의 복합체들이 부상하게 된다. 2004년 설립된 캐나다의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2005년 설립된 영국의 Young Foundation, 미국의 Stanford social innovation center, 캐나다의 Crises (The Centre de recherche sur les innovations sociales), 2007년 설립된 캐나다의 Social innovation generation, 2008년 ‘사회혁신’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와 교류를 목적으로 Young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되어, 2013년 독자적 기구가 된 SIX (Social innovation Exchange) 등이 있다. 이렇듯 ‘사회혁신’을 주창하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정책적 아젠다로도 적극 활용된다. 일례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09년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부서’를 백악관에 설치하고,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 십을 형성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기금을 마련했다. EU 역시, 사회혁신 ‘을 유럽연합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2010년 Europe 2020 전략에서 향후 유럽 성장의 실천 방법으로 ‘사회혁신

후 ‘사회 혁신’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들을 아우르면서, 제작소의 정체성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기표로 자리하게 된다.

(2) ‘사회혁신’의 제도화 : 서울혁신기획관

희망제작소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직면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은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로 있던 박원순이 2011년 서울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박원순, 2013: 296). 이후 박원순이 서울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회혁신’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원동원력을 극복하면서, 이의 보급 전파를 위한 새로운, 물질적 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혁신’ 실천의 거점은 시민사회에서 시 당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박원순은 취임 이후 ‘혁신’과 ‘협치’를 시정의 핵심적 기조로 내세우면서, ‘사회 혁신’을 전담하는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사회혁신’은 일자리, 안전,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시정 철학으로 전면화 된다. 2012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된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의제를 발굴하고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혁신 담당관’, 지역 공동체를 조성,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 갈등 관리 관련한 연구와 역량 강화 활동을 담당하는 ‘갈등조정 담당관’ 등 1기획관, 3담당관 체제로 출범하였으며, 이어 인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인권담당관’이 분리되고, 2015년 거버넌스 정책을 기획, 지원하는 ‘민관협력 담당관’, 청년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 담당관’이 신설되면서 2016년 현재 1기획관, 6 담당관, 21 팀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구체적인 부서와 예산 현황,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강조한다(김정원 외 2016: 2).

[표2-2] 서울혁신기획관 조직 구성 및 사업 내용

부서명	담당업무	주요사업
사회 혁신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 의제 발굴·기획·실행 지원 • 국내외 사회 혁신기관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 모임운영 • 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도시 서울 • 서울혁신파크 조성 • 천만 상상 오아시스 • 좋은 정책제안 콘테스트 • 정책 박람회 개최 • 서울시 부서 간 지식공유 시스템 운영 • 서비스 디자인 사업 추진
마을 공동체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총괄 •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 공동체 사례 연구, 매뉴얼 보급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마을 공동체 교육 및 주민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운영 •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 및 시민 인식 확산
갈등 조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 총괄 • 갈등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 주요 시책 관련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 • 갈등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내 갈등 관리 • 갈등 진단 및 예방 •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갈등 관리 교육 진행.
인권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인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인권 행정 강령 개발 • 서울시 인권단체 지원 인권 관련 교육 진행
청년 정책 담당관	•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 정책 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운영 • 청년 노동 환경 개선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시행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민관 협력 담당관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수립, 위원회 관리 업무 총괄 • 민간단체 시정 참여 사업 공모, 지원 사항 • 기부금품 고집 허가에 관한 사항	• 협치 체계 진단 및 구축 • NPO 지원 센터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 민관 공동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출처 :서울혁신기획관, 2015. 「주요 업무 보고」 재구성

구체적인 부서별 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들은 박원순이 시민운동가로서, 희망제작소에서 추진하던 정책 사업들과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공유 서울’ 사업은 희망제작소 <사회적 경제 센터>에서 논의되던 ‘공유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천만 상상 오아시스 2.0’이나 ‘정책박람회’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회혁신센터>에서 담당하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이명박, 오세훈 시정 하에서 진행되어오던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시민운동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의 마을

공동체·기업 사업이 시정 사업으로 본격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허브’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희망별동대’나 ‘천개의 직업’ 사업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담당관의 경우 희망제작소 시절부터 강조 되어오던 섹터 간 협력을 구현하는 행정적 거점으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혁신기획관은 희망제작소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을 보다 단단한 물질적 기반 속에서 재생산, 대중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사회혁신의 의미론

주지하듯, ‘사회혁신’은 서울시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인 동시에 ‘90년대식 시민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이기도 했다. “세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운동만 그대로면 안”(박원순·지승호, 2009: 233) 된다는 박원순의 주장처럼, 그것은 세상의 시류에 새롭게 적응한 시민 참여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서 ‘사회혁신’의 의미론은 무엇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사회혁신’의 주창자인 박원순과 희망제작소, 그리고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생산, 확산되는 일련의 담론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기존 운동과의 암묵적, 명시적 비교 속에서 ‘사회혁신’에 관한 느슨하지만 공통된 논리를 구축해내는 동시에, 희망제작소와 파크를 통해 시행되는 사업들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 ‘사회 혁신’의 의미론은 크게 영역, 방법, 주체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1) 영역 : 광장에서 일상으로

기존의 시민운동의 주요한 무대가 광장이었다면, ‘사회혁신’은 일상에 주목한다(조민서, 2016: 48). ‘사회혁신’은 “머리에 떠 두르고 소리 높여 외치는 시위에만 매몰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를 꿈꾼다.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 “내 주위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 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는 발칙한 상상”의 시작이 된다(박원순, 2010a: 47).

운동의 무게 중심을 광장에서 일상으로 이동한 것은 기존의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정치 중심, 서울 중심, 애드보커시 중심” 이었다는 위기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프레시안>>, 2006.10.12.). 2006년 열린 한 언론사 강연에서 박원순은 시민운동 ‘위기’의 원인을 “지나치게 정치성 높은 운동적 경향”에서 찾으면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좀 더 “지역, 삶의 현장, 작은 커뮤니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레시안>>, 2006.10.12.). 이러한 위기 진단은 당시 정부와 시민운동 등 개혁 자유주의 세력을 둘러싼 정치적 비판의 지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항우(2011: 244-245)가 지적하고 있듯, 2000년대 보수 언론은 ‘이념에 눈먼 세력’, ‘친북세력’, ‘종북세력’, ‘특정 이념을 선전 선동하는 음모꾼’, ‘정치적 이념 투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자유주의 세력을 공격하였다. 이는 이들을 ‘정치적’ 이념 투쟁에 눈이 멀어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프레임 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 진보 진영은 그 나름대로 이들이 정치 차원의 개혁, ‘상부구조’ 차원의 개혁에 집중하면서,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악화 시켰다고 공격하였다(조희연, 2005: 81-82; 2012: 134-136). 박원순이 ‘정치성’을 언급하면서 ‘일상 생활’에 주목한 것 역시, 개혁 자유주의 세력이 실질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하다는 양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였다고 해석 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운동들이 그 영역에 있어 노동문제, 정치 개혁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회혁신’의 경우 특별한 구심점이나 고정된 중심을 갖지 않는다. ‘사회혁신’의 대상은 일상의 무수한 난제들로 확대된다. 물론, 이러한 이슈의 다원성은 90년대부터 시민운동이 견지해온 특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운동이 다루는 이슈는 보다 다변화 되어, ‘사회혁신’에 이르면 고용불안, 불평등, 세대갈등, 기후변화, 생태 위기¹⁷⁾, 교육, 빈곤, 노인 문제¹⁸⁾ 등 전 방위적 영역을 망라하게 된다. 박원순이 주장하듯, ‘사회혁신’의 주제는 “합의될 필요” 없는 무한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좋은 먹거리에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곧 ‘사회혁신’의 대상이 된다.

17)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이란」,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01-vision/parkafter>>.

18)정상훈, 「뉴스레터발간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1.26.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09539709>.

변방에서 각자의 개성과 양심을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관점과 언어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새로운 연결과 과정의 혁신을 통해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 냅니다**. 좋은 먹거리, 친환경 의류, 새로운 주거, 메이커와 문화예술그룹, 사회적기업, 독립 연구소, 생활 기술 엔지니어, 공익 전문가, 건축가, 출판, 영화, 건설, IT 등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협동조합, 지역재생, 통일 이슈 등 **크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흐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¹⁹⁾

(2) 방법 : 추상적 이념에 입각한 적대에서 미시적 실용에 입각한 협력으로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방법론은 대안생산과 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의미하는 ‘혁신’이라는 말과 암시하듯, 한편으로 ‘사회혁신’은 기존의 운동을 추상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생산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혁신’은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거버넌스 담론과 맞물리면서 적대가 아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추상적 이념에 입각한 비판에서 미시적 실용에 입각한 대안 생산으로

무엇보다 기존의 운동과 대비되는 ‘사회혁신’의 방법론은 추상적인 이념이나 거대담론에 입각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대안을 생산해내는 것에 있다. 이 때 ‘사회혁신’의 서사에서 사용되는 총체적 변혁 대 점진적 개선, 이념 대 실용 그리고 비판 대 대안 생산이라는 세 가지 대립구도는 서로 맞물리며 ‘사회혁신’이 표방하는 방법론의 정당성을 강화 시킨다.

무엇보다 ‘사회혁신’은 총체적 변혁에 대비되어 점진적 개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사들에 따르면, “한 장의 완성된 개혁의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자는” 말이 공허해진 시대에,

19)정상훈, 「'서울혁신파크, 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5.05.19. <http://s_innopark.blog.me/220364334544>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이정표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생활의 혁신”을 통해²⁰⁾ “한걸음 한걸음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박원순, 2007: 60). 요컨대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미시적 개선책들의 축적은 ‘역사’ 이후 진보진영이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표상된다. 이 때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에 입각한 변혁의 전망은 “거창한 이념과 요란한 구호” 등과 같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과 등치되면서 작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들과 대비를 이룬다. 이제 운동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없이도 쟁취될 수 있는 미시적인 실천들에 주목한다.

사실 총체적 변혁이 아닌, 점진적 개선을 통한 사회의 변화는 박원순이 이미 90년대 소련의 붕괴를 지켜보면서부터 견지하게 된 태도이며,²¹⁾ 참여연대의 핵심적 기조이기도 했다(박원순, 2000: 308) ‘사회혁신’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생산에 대한 강조가 제도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로 확장 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변화에 대한 강조는 이념과 실용이라는 대립 항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중요한 것은 “신선놀음이나 하면서 거대 담론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미시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²²⁾

(...)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이념과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싶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작은 변화부터 꿈꾸고자 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지 않는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자”는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꾸자”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굳어지고**

20)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이란」,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01-vision/parkafter>>.

21) 박원순은 2009년 지승호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의 붕괴 당시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어떤 박제화 된 이념을 갖는 순간 도그마에 빠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비판했던 체제적 모순이나 잘못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왜냐하면 제가 다닌 나라마다 자본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시스템이나 실천 현상이 다 다르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체제 하나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담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박원순·지승호, 2009: 165)

22) 이웅준, 「사회적기업, 비장하면 다친다」, 『희망제작소』, 2010.06.14.

<<http://www.makehope.org/sds-6기-7강-김진화-오르그닷-high-risk-high-return에서-low-risk-great-impact/>>

진행되어 온 모순된 세상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변화를 꿈꾸는 작은 소망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커다란 물결이 될 때, 세상은 지금까지 달려오던 궤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박원순, 2007: 60).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는 비판 대 대안생산이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의미하는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변화” (박원순, 2007: 60)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은 기존운동과 ‘사회혁신’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이 때 기존의 운동은 “비판하는 일에 치중되어” 대중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으로 표상되면서²³⁾ “대안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혁신’과 대비를 이룬다. 한편으로 비판만 하는 운동과 스스로를 대비시키면서 대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의 담론적 전략은 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전략을 모색하는 치열한 반성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판 자체를 낡은 것 혹은 생산적이지 못한 것과 등치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렇듯 총체적 변혁이 아닌 점진적 개선을, 이념보다는 생활 속 실용의 도모를, 그리고 비판보다는 대안 생산에 방점을 두는 ‘사회혁신’의 미시적 실용주의는 정치적 참여 혹은 사회 변화의 의미를 재편한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가 생산하는 ‘사회혁신’의 서사에서 사회 변화는 생활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멀진, 2011: 78-79) 찾아내고, 이를 발언하고 개선하는 것, 즉 공리주의적 욕구 충족의 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 깨진 보도블록을 고치는 일들과 같이 기존의 운동에서 참여로 간주 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자체로 ‘사회 참여’의 행위가 된다.²⁴⁾ 집 앞의 고장 난 울타리를 수선하는 것과 인종차별 철폐, 노동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권리요구가 모두 공익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변화’의 실천으로 묶인다(60-63).

이렇듯 변화된 정치 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터(이후 사회혁신센터)>이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이 일

23) 한선경·김정원,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5.2),(5.2.1)」, 『희망제작소』, 2012.02.27. <<http://www.makehope.org/한국-사회혁신-둘러보기-52-521/>>

24) 이웅준, 「사회혁신 탐구생활」, 『희망제작소』, 2010.04.13. <<http://www.makehope.org/사회혁신-탐구생활/>>

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이를 직접 현실화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길이가 조정되는 지하철 손잡이, 유통기한 표시 기법의 변화, 생리 기간 수영장 요금 할인제 등은 <사회창안센터>가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희망제작소, 2007:34-38).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해 생활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행위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정 참여”이자,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²⁵⁾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정치, 진정한 정치”(박원순·오연호, 2013: 6)로 의미화 된다. “국정 참여가 별거 있다. 꼭 정부에 들어가야만 국정참여는 아니다. 나이가 되어야 하고, 학위가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평가단도 또 다른 형태의 국정참여다”라는 사회창안센터 참가자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²⁶⁾ 서울혁신파크 역시 비슷한 의미론을 공유하고 있다. 파크 내 입주단체에게 요구 되는 사회참여의 행위 역시 주거, 복지, 건강, 먹거리 등의 영역에서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시민들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²⁷⁾이에 따라 사회변화는 “빈곤 노인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작동되는 난로를 만들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연을 하고, 신진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여는”²⁸⁾ 것과 같은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의 행위와 등치 된다. 혁신 센터에서 진행하는 <리빙랩> 사업은 이러한 혁신파크의 기조를 잘 드러낸다. <리빙랩> 사업은 시민들의 주도 하에 시민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 혁신 실험실”로 소개된다. 이 때 시민들은 “사용자”로 표상되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 <리빙랩> 사업의 목표가 된다. 이에 주차장 문제 개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사회혁신’의 실험으로 선택 된다(서울혁신파크, 2016:108).

정치적 참여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의 고안과 등치

25) 박원순, 「좋은 아이디어는 국경 없이 흐릅니다」, 『희망제작소』, 2007.04.20.

<<http://www.makehope.org/좋은-아이디어는-국경-없이-흐릅니다>>

26) 희망제작소, 「새롭게 태어나는 시민평가단 2.0을 약속하며」, 『희망제작소』, 2008.11.11.

<<http://www.makehope.org/새롭게-태어나는-시민평가단-20을-약속하며/>>

27) 정상훈, 「뉴스레터발간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1.26.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09539709>.

28)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이란」,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01-vision/parkafter>>.

될 때, 운동은 ‘혁명’ 이나 ‘개혁’ 이 아닌 ‘디자인’ 의 행위가 된다. 일상의 욕구를 면밀히 헤아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시민은 이제 사회 운동가가 아닌 “소셜 디자이너” 로 호명 된다(박원순 2010a: 45). “디자이너”로서 시민은 동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을 캐치해내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능동적 소비자’ 이기도 하다. 이 때 민주주의는 사용자-공급자의 언어로 번역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들의 불편함을 면밀히 헤아리고 그 필요를 적극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소셜 디자이너’ 시민이 체화해야 할 중요한 윤리로 권장된다(서울혁신파크, 2016: 108).

물론 ‘사회혁신’ 의 담론 역시 국가나 자본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국가나 자본은 구조적 공모 속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독점하는 권력이 아닌, 섬세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중립적이고 무능한 서비스 공급자로 표상 된다.²⁹⁾ 이에 따라 ‘사회혁신’ 이 말하는 저항은 소유구조의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권력구조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규탄하는 행위 보다는, 동료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찾아내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대안적 서비스를 고안해내는 행위를 중심으로 의미화 된다. ³⁰⁾ 사회 참

29) 정상훈, 「뉴스레터발간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1.26.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09539709>.

30)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곧 희망제작소가 실시한 <디 이노베이터 시리즈>와 서울시와 공동합작으로 진행한 <대학생 서비스 디자인 캠프> 이다. <디 이노베이터 시리즈>는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에서 마련한 시민참여 워크숍으로, ‘서비스 디자인’ 등 ‘사회혁신’ 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학습된다. 이 중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에서는 공원이자 철도와 같이 특정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겪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한 후 이들의 감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 지점들을 헤아려 이것을 “기분 좋은 순간” 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테크놀로지들을 습득한다. 연이은 시간에는 이를 응용해보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대학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사용해 “대학로를 혁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민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학로 곳곳을 탐방하고 동료 시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 과 “편리함” 을 정리한 후 “ 불편한 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 (송하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 」, 『희망제작소』, 2012.08.16.<<http://www.makehope.org/사회-문제를-해결하는-서비스디자인/>>; 「대학로를 혁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희망제작소』, 2012.08.30.<www.makehope.org/작성중공공서비스도-서비스디자인으로/>)

<대학생 공공 서비스 디자인 캠프> “공공 영역에 큰 관심이 없었던 청년세대” 들이 서울시의 “시민 참여 행정” 에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 때 “서울을 변화시킬 청년들” 로 호명된

여가 일상의 욕구를 면밀히 헤아려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될 때, 시민운동과 행정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 때 운동은 인구의 생명, 건강, 안전, 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생명 통치의 행위와 다르지 않게 된다(푸코, 2012). “소셜 디자이너”는 그 자체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고민하는, “정부공무원인 동시에 기업 CEO”인 것이다(박원순, 2010:45).

② 적대에서 협력으로

생활 속 실용주의와 더불어 ‘사회 혁신’이 강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은 협력이다. 이 때 이들이 표방하는 미시적 실용주의³¹⁾는 편파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을 떠나 모든 이들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증적 토대로 표상 된다. 2009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원순은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거대 담론의 과잉시대”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실증주의자’로 표방한다. 그는 이념의 편파성과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의 객관성을 대비 시키면서 “아무리 그렇게 서로 다른 이념이라 하더라도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일치해서 함께 할” 부분이 많음을 역설한다. 그에게 있어 미시적 실용에 입각한 대안생산은 진영논리를 떠나 전 사회적 세력이 “함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이룬다(박원순·지승호, 2009: 411).

이 때 편파적인 이념과 대비해 ‘사회혁신’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박원순의 진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상했을 때, 박원

이들은 각각 그룹을 나누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정하고 이것을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을 활용해 해결해 볼 것을 요구받는다. 이 때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청년들이 학습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란 구조적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령, 청년주거 문제는 ‘1인 가구 청년이 가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혹은 ‘큰 액수의 보증금 지원 대비’ 등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부재의 문제로 환원되고, 이에 따라 ‘가구 직거래를 위한 플랫폼 개발’ 혹은 ‘보증금을 후원받고 이자를 월세 대신 납부하는 보증금 지원 플랫폼 개발’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 된다. (송하진, 「서울을 고민하는 청년들, 무엇을 만들고 있나」, 『희망제작소』, 2012.11.23. <www.makehope.org/서울을-고민하는-청년들-무엇을-만들고-있나/>;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방법 대공개」, 『희망제작소』, 2013.01.22. <www.makehope.org/살기-좋은-서울을-만드는-비법-대공개/>)

31) 이 때 ‘미시적 실용주의’라는 명칭은 박원순 서울 시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연구한 조민서의 논문에서 빌려온 표현임을 밝힌다(조민서, 2015: 32).

순이 택한 해결방식은 ‘중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보편적’ 지지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었다(박원순, 2004a: 22). 그러한 의미에서 미시적인 실용성에 대한 강조는, 첨예한 정치적 논쟁을 피해 광범위한 지기기반을 구축하면서, 훼손된 시민운동의 ‘보편성’을 재구축 하려는 담론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엇보다 90년 이후 본격화된 거버넌스의 서사와 얽히면서 기존에 적대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왔던 국가·자본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재편한다. “정부, 기업과의 긴장과 갈등”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며, 지금 세상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서사는 (박원순, 2010: 65)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적대적 관계설정을 낡은 것으로 만들면서, 협력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흐름으로 정립한다.

정부와 기업과의 긴장과 갈등, 또는 다른 섹터간의 경계와 장벽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는 애드보커시 역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섹터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방법에 의해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2008: 1)

이렇듯 ‘사회혁신’이 국가·자본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할 규범으로 정립함에 따라, 국가·자본과의 적대적 관계 설정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기존의 운동과 한발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애드보커시 형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90년대식 시민운동’이 비록 ‘개량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자본과 갈등적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스스로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면, ‘사회혁신’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립 구도 자체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협력은 정부나 자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시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사회혁신’의 서사에서 협력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담론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상생’의 부재, ‘공동체’의 와해로 프레임 하면서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와 협력을 그 자체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의미화 한다(박원순, 2010: 231-233). 비슷한 기조

가 서울혁신파크에서도 반복된다. 혁신파크에서 생산되는 ‘혁신가의 자리’ ‘혁신가의 단어’와 같은 입주단체 인터뷰들은 모두 ‘협력’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재구성되어 있다.³²⁾³³⁾ 동료 시민들과의 인간적 교감에서부터 정부나 자본과 이루어내는 섹터 간 협업까지 협력의 윤리는 사회혁신을 관통하는 핵심적 덕목이 된다.

(3) 주체 : 전문 운동가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공공 이슈 중에서 정부와 기업, NPO가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다수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확산시켜나감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활동이다. (희망제작소, 2013: 8)

‘사회혁신’은 그 주체에 있어 전문 운동가로 대표되는 조직화된 대중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표상된다.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며, 사회혁신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활동이다(희망제작소, 2013: 8). 이렇듯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시민들을 호명하는 서사에는 두 가지 공통된 레퍼토리가 발견된다. 하나는 국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시민사회’의 부상을 필연적인 흐름으로 구성하는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전문 운동가들과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대비하면서 후자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때 ‘사회혁신’ 담론은 스웬지도우 (Swyngedouw, 2009)가 분석하듯, 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시민사회 거버넌스 담론과 얹힌다. 이러한 담론들은 고용·불평등·세대갈등·생태위기 등 “시대적 난제”³⁴⁾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 정책을 통한 해결이나 시장의 힘에 맡긴 해결 모두 부적합

32) 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단어」,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_innopark&categoryNo=24>

33) 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자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_innopark&categoryNo=26>

34) 정상훈, 「뉴스레터발간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1.26.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09539709>.

한 것으로 판명”(만지니, 2016: 37) 났다며,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기정 사실화한 후, 제 3섹터와 시민사회를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한다. 박원순의 저서들과 희망제작소의 담론들은 이러한 서사들을 차용하면서, 제 3섹터와 시민사회의 부상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인식, “선진 사회의 기본 포맷”(박원순·지승호, 2009: 357)으로 정당화 한다.

동시에 시민 호명의 서사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들과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을 대비시키며 후자를 운동의 주역으로 호명한다. ‘사회혁신’의 주체들은 “소수의 엘리트”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과 같은 소수의 전문가”³⁵⁾가 아닌 다수의 “창조적 보통사람”(박원순 외, 2010: 369)들이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문제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더 잘 제안할 수 있는”³⁶⁾ 능동적 존재들로 표상된다. 오마이뉴스나 위키 혹은 SNS에서 보여지는 평범한 다수의 집단지성에 대한 강조,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보다 직접 변화를 만드는 것을 더 좋아” 하며,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능동적 소비자론 등은 평범한 시민들을 참여의 주체로 호명하는 ‘사회혁신’의 서사와 공명한다.³⁷⁾ 조직화 되지 않은 “평범한 다수”는 “소수의 엘리트”(희망제작소, 2013: 8)와 대비를 이루면서 이들에 의해 독점되어오던 시민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운동의 주역으로 호명된다. 이러한 서사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90년대 식 시민운동의 자원동원과 정당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풀뿌리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대중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제도화 되었는지, 그리고 박원순을 위시한 일군의 시민운동가 진영의 위기 해석 방식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참여의 의미론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운동 담론을 재현하는 방식의 변화는 운동 주체들의 정체성 역시 변화시킨다. 새로운 운동은 새로운 주

35) 한선경·김정원,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5.2),(5.2.1)」, 『희망제작소』, 2012.02.27.
 <<http://www.makehope.org/한국-사회혁신-둘러보기-52-521/>>

36) 한선경·김정원,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5),(5.1)」, 『희망제작소』, 2012.02.20.
 <<http://www.makehope.org/한국-사회혁신-둘러보기-5-51/>>

37) 라현운, 「서울혁신파크 런칭이벤트-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④ 썸크카페 하승창 대표」,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5.06.17.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392444584#>

체를 필요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혁신’에 걸맞은 주체를 생산해내는 장치들을 일별하고 이 속에서 빛어지는 시민상을 조망해볼 것이다.

III. ‘혁신적 시민’의 생산

앞 장에서 우리는 ‘사회 혁신’이라는 시민 참여의 모델이 정교화 되고, 이것이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현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운동을 재현하는 담론의 변화는 운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정체성 역시 변화 시킨다. ‘사회혁신’이 작동하기 위해서 그 운동의 주역으로 호명된 ‘평범한 시민’들은 이에 적합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에 걸맞은 시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은 이들을 표상하고 호명하는 담론들 속에서, 그리고 이들의 품행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장치들과 테크놀로지 속에서, ‘시민’답게 사유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도록 “발명”되는 것이다(크룩생크, 2014: 66). 박원순에 의해 생산된 담론들, 희망제작소나 서울혁신파크가 제공하는 시민 교육/ 참여 프로그램, 워크숍 등은 모두 ‘사회혁신’에 필요한 ‘혁신적 시민’을 빚어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들은 ‘소셜 디자이너’, ‘사회 혁신가’와 같이 새로운 시민의 표상을 형성해내고, 이에 걸맞은 덕목과 품행의 양식을 제공한다. 만약 푸코를 따라 다른 이들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통치라 정의한다면, 이 역시 통치의 행위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권력은 주체를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한다. 권력은 “주체의 행동이 기입되어 있는 가능성의 자장에 행사”되어, “행위주체를 독려하고 생각을 불어넣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행동반경을 넓히거나 제한”한다(브뤼클링, 2014:30). 이 때의 권력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특정한 행위와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행위의 가능성을 주변화 시킨다는 점에서 언제나 정치적이다(크룩생크, 2014: 19).

본 장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장치들을 일별하고, 이를 통해 작동하는 주체화 논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주체 생산의 장치

1)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³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민 참여의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참여론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현된다. ‘사회혁신’과 연관된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³⁹⁾⁴⁰⁾

[표 3-1]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교육/ 워크숍	소셜 디자이너 스쿨	일반 시민 대상 ‘사회혁신’ 교육
	퇴근 후 let ‘s	직장인 대상 은퇴 후 설계 프로그램
	행복설계 아카데미	은퇴자 대상 NPO 직장 연계 교육
인큐베이팅 / 컨설팅	희망별동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참여 프로그램	사회창안1.0/사회창안 2.0	시민들이 직접 ‘사회혁신’ 아이디어 고안 및 실행
	사회창안대회	시민 대상 ‘사회 혁신’ 경연 진행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36시간 내 공익 어플리케이션 제작

38) 별 다른 인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희망제작소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희망제작소, 2007; 2008; 2009; 2010; 2011a; 2012; 2013; 2014; 2015; 2016)

39) 창립부터 지금까지 진행 되고 있는 교육·참여 프로그램은 수십 개에 이른다. 분석의 경우 후기를 구할 수 있는 전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 되었으나, [표 3-1]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 지속 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재 되었다.

40)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수는 집계·공표된 바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다만, 2012년 희망제작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행복설계아카데미>의 경우 총 1,051명, <소셜디자이너스쿨>의 경우 697명, <퇴근 후 LET’ S>의 경우 171명이 수강에 참여하였다. (희망제작소, 2013: 23)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청소년·은퇴자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사회혁신’ 경연대회
	행복한아파트공동체사업	주민 참여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노란테이블	시민 대상 원탁 토론 프로그램
	휴먼라이브러리	시민 교류 프로그램

이렇듯, 교육·워크숍·대회·캠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박원순의 저서와 더불어 ‘혁신적 시민’을 빚어내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 먼저, 박원순의 저서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통치의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사회혁신’을 하나의 납득할만한 사회 참여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품행을 이에 걸맞게 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의미론을 제공한다.

〈소셜 디자이너 스쿨〉, 〈퇴근 후 LET’S〉, 〈행복 설계 아카데미〉와 같은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 〈희망별동대〉, 〈사회창안 1.0/2.0〉, 〈사회창안대회〉,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등과 같은 인큐베이팅·대회·실행 프로그램들은 박원순이 그린 시민 참여 기획의 물질적 구현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희망제작소는 청년에서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소셜 디자이너 스쿨〉의 경우 “사회혁신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희망제작소, 2010:50), 기획의도는 20대를 겨냥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강에 참여했다. 구체적 커리큘럼은 사회적 기업가, 문화예술 종사자, 지역 공동체 활동가 등 다양한 명사들의 강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직접 수립해보는 실행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근 후 LET’S〉의 경우 직장인들로 하여금 비영리 섹터에서 은퇴 후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행복 설계 아카데미〉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영역에서 제 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워크숍 프로그램들은 주체들에게 꿈꿔볼만한 바람직한 삶과 사회변화의 상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들을 함양 시킨다. 강사들은 ‘혁신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일러주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훈련들과 테크닉들을 제시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이나, 강연 중간 중간 마련된 현장 견학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례들은, 수강생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범들로 제시된다. 시민들은 강연이나 현장 견학을 통해 습득한 사례들을 통해, 특정한 사회 변화의 실천을 이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인큐베이팅이나 대회 혹은 토론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 <희망 별동대>는 대학생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소액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사업 수립부터 시행까지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회창안 1.0>의 경우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수집해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유통기한 표시 개선, 지하철 손잡이 길이 다양화, 생리 기간 수영장 요금 할인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사회창안 2.0>의 경우 아이디어를 수집, 평가,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제안자에 머물고 활동가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제안에 더해 직접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는 방식으로 <사회창안 1.0>을 업그레이드 한 모델이다. 희망제작소의 대표적 시민참여 대회라 할 수 있는 <사회창안대회>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해 본 후 그 결과를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앱 개발자·디자이너 등이 한 팀을 꾸려 36시간 안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행사이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의 경우 청년과 노년층의 세대 통합을 목적으로 고안된 행사로, 시니어가 사회 변화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청년들과 한 팀을 꾸려 이를 직접 구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아파트문화를 바꾸고 단지 내 공동·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파트 공동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주민 교육, 현장 워크숍, 현장 답사, 주민모임 조직 및 활동 지원이 이루어진다. <노란테이블>의 경우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

안” 41)을 만드는 열린 토론장으로, 희망제작소에서 제작한 토론 톨킷을 활용해 시민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나, 국회의원 선거 등을 주제로 원탁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휴먼 라이브러리>의 경우, 덴마크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수입해 온 것으로, 오래된 관습적 편견이나 오해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초청해 마치 한권의 책을 읽듯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켜 갈등이나 폭력을 예방” 42)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보는 경험을 통해 능동적인 ‘사회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프로그램 곳곳에 심어져 있는, 심사위원들의 피드백, 멘토·전문가들의 분석 및 조언들은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변화의 방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통솔한다. 더군다나 대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상의 과정은 시민들에게 ‘칭호’와 ‘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북돋는 효과를 낸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동료 시민들과의 네트워킹·교류의 기회역시 ‘혁신적 시민’ 생산의 핵심적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행복설계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개최한 <행복 설계 포럼>과 같이, 시민들은 희망제작소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동문들과 형성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 속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기회는 공통의 꿈을 형성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2) 서울혁신파크43)

희망제작소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박원순의 시장 당선 이전의 기획이라면, 당선 이후의 핵심적 장치는 사회혁신기획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혁신기

41) 희망제작소, 「<노란테이블 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토론톨킷 PDF파일 내려받기」, 2016.03.29.

<www.makehope.org/노란테이블2-누가-좋은-국회의원인가-토론톨킷-pdf파일/>

42)이민영,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삶을 이해하기」, 『희망제작소』, 2014.03.11.

<<http://www.makehope.org/휴먼라이브러리를-통해-다양한-삶을-이해하기>>

43)별 다른 인용표시가 되어있지 않는 서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서울혁신기획관, 2012; 2013; 2014; 2015; 2016).

획관은 ‘사회혁신’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혁신적 시민’을 양성해내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 혹은 파크)이다.

혁신파크는 2012년 8월 <서울혁신파크 구성 TFT>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은평구 질병관리본부가 이전한 국립보건원 부지에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구상이 본격화 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 실업, 기후변화, 고령화, 주거, 건강, 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섹터 간 협업과 민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 (서울연구원, 2013: 3)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 혁신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크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에 ‘공유’, ‘협동조합’, ‘윤리적 소비’, ‘지역상생’, ‘국제협력’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기업들을 유치, 지원하고 이들 간의 협업을 촉진 시키는 시설 조성 계획이 제안된다. 이후 2013년 3~4월 10회에 걸친 전문가·자치구 의견수렴, 4~6월 5회에 걸친 은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1회의 정책토론회, 7~9월 6회에 걸친 민자 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 13년 9월~14년 4월에 걸친 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공간 계획이 구체화 된다. 이어서 청년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마을 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같은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이 이전을 시작하고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다.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파크 조성 계획안이 마련되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장·민간 전문가·서울시 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이 설치된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2015년 4월 사단법인 ‘사회 혁신 공간 데어’가 혁신파크의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데어’는 2015년 6월 말 서울시 행정과 혁신파크에 입주할 활동가들을 이어줄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혹은 센터)를 수립하고 파크에 입주해 활동할 활동가 1000여명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혁신파크의 조성과 운영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2] 서울혁신파크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서울혁신파크 운영	1,684	3,541	6,931
서울혁신파크 조성	170	12,710	11,355

혁신파크는 그 자체로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장치로 기능한다. 파크라는 물질적 공간 그리고 입주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사업들은 이들을 특정한 품행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통솔해낸다. 개인은 파크 안에서 뛰놀고 마시고 일하고 사업에 응모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특정한 영혼과 신체를 갖춘 시민이 되어간다.

(1) 공간

무엇보다 혁신파크라는 거대한 공간적 부지는 그 자체로 ‘혁신적 시민’들을 모아내고, 생산해내는 물질적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조성계획 수립 방안에 따르면, 파크는 “혁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모델을 단계별 실험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조성하고,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협업을 촉진하는 “열린 사무 공간”을 마련하며, “혁신의 상징성이 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즉 파크는 한편으로 사회혁신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혁신가들을 위한 물질적 정서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혁신적 공유지”인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창의 공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서울혁신센터, 2016: 4).

파크는 명확한 청사진과 완성된 계획도를 가지고 공간을 조성해나가는 방식이 아닌 그 때 그때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공간을 조성해나가는 “경과적 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구 국립 보건원 부지의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혁신센터, 2016: 104). 3만평 정도의 파크 부지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중간지원조직들과 센터에서 선발한 사회혁신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미래청, 청년 혁신가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청, 3D 컴퓨터·레이저 가공기 등 최신 디지털 제작 장비와 목공 장비를 갖추어 놓은 제작동·목공동, 음식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맛동, 각종 예술 전

시가 이루어지는 예술동 · 극장동등의 건물과 야외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입주한 단체들에게는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열린마당, 놀이시설, 체험관, 프로그램, 워크숍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갖고, 혁신을 체험”(서울혁신센터, 2016: 8)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한다.

[그림 1] 서울혁신파크 공간 구성



이 때 파크가 스스로 설정한 ‘플랫폼’이라는 기능은 그 자체로 혁신적 시민을 형성해내기 위한 통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이란, 기차역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일컫는 말로(박원순, 2010: 219),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상호작용을 펼쳐 나가는 관계의 장을 의미한다. 즉, 파크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능함으로써, 시민들의 품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모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끔 유도한다. 이

때 권력은 스스로의 역할을 환경 조성으로 국한하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뛰놀고 관계 맺고 활동하게끔 만든다. 그것은 뒤로 물러남으로써 작동하는 통치의 방식인 것이다.

(2) 입주 심사와 사업

혁신파크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채워나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입주단체에 대한 심사와 자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참여를 특정한 방향으로 통솔한다.⁴⁴⁾ 센터의 사업 계획, 비전, 입주단체 선정 기준, 공모 사업의 심사와 평가 등은 시민들의 품행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화 한다. 그것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대신, 하라고 유도하면서 이들의 품행에 특정한 형식을 부여한다.

먼저 센터가 선정한 입주단체 모집 조건은 그 자체로 ‘혁신적 시민’이 될 수 있는 이와 없는 이를 나누는 경계 설정 장치로 기능한다. “서울혁신파크 비전에 공감하며, 해결되지 않는 서울시의 문제를 혁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서울혁신센터, 2016: 15)라는 조건은 서울시나 센터의 비전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 혹은 시의 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넘을 수 없는 문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입주 심사의 경우 센터 개소 이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입주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모집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연계성’, ‘내용 충실성’을 평가 항목으로, ‘사업 내용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의 방향이 충분히 혁신적인지’, ‘사업 목표를 실현할 역량이 있는지’, ‘해결되었을 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큰가’, ‘혁신파크와의 연계성이 높은지’, ‘기존의 입주활동단체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은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가’ 등이 평가된다.

44) 서울혁신파크에는 서울혁신센터 이외에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다른 중간지원조직인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센터 등이 입주해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조직 역시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파크 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혁신’의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입주를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1)단체의 미션 비전, 2)혁신파크에 입주해야 하는 이유 3)사업 계획(주요 사업계획 3가지, 정량적 정성적 목표, 전략), 4)사회문제와 문제 해결 아이디어, 5) ‘소셜 임팩트 중심’으로 한 활동 기대 효과, 6)입주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 아이디어, 7)서울혁신파크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 및 도움이 필요한 자원 등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⁴⁵⁾

이러한 선정 기준은 시민과 단체들로 하여금 서울시와 센터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의 품행을 의미화하고 조정하게끔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혁신파크와 센터가 설정한 비전인 ‘공유’, ‘협력’, ‘재생’,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서사화하며, 스스로의 ‘소셜 임팩트’를 발견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로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들 간의 경계가 설정된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특정한 시민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들은 파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미묘한 경계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8월 기준 현재 혁신센터 산하에는 대략 158개 단체 750여명의 인원이 입주해 있으며, 청년청과 여타 중간지원조직 산하 단체들을 포함하면 약 190개의 조직, 1000여명의 활동가들이 파크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서울혁신기획관, 2016: 7). 입주단체에게는 다양한 단체 · 공공기관과의 협업 기회, 공간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입주 심사 이외에도, 파크 내에서 입주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 역시 개인을 ‘혁신적 시민’으로 생산해내는 하나의 통치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파크 내 운영 위탁을 맡고 있는 센터는 서울시의 승인 하에 자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을 기획·추진하여 단체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 때 사업은 크게 파크 내 입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당 시작>,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랩>, 파크 내외부 단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야외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나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45) 서울혁신파크, 「2016<전대미문 프로젝트>입주단체 모집공고」,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6/03/08/2016-입주단체-모집공고/>>

[표3-3] 서울혁신센터 공모 사업 정리

작당 시작 (파크 내 입주단체 대상)	사회혁신 씨앗밭굴	네트워킹	입주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
		실행	혁신파크 공유자원을 활용하거나 입주 단체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 지원.
		연구	사회혁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사회혁신 공간 활성화		파크 내 공간 환경개선 및 기반 시설 확보 시민과 혁신가들을 위한 실험의 장 조성.
리빙랩 (서울 시민 대상)	지정 과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문제를 지정해 해결방안 모색	
	자유 과제	서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 공모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목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지역과 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메이커 문화 형성	
야외 공간 활성화 사업 (파크 내 외부 모두 참여 가능)	뽕짝 놀이터	입주단체 참여로 시민 참여형 놀이 축제 기획	
	혁신가의 무대	야외 공간 전체로 무대 활용해 프로그램 기획	
	야외 시설물 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사업	야외 시설물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그램 발굴	

출처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http://innovationpark.kr>)

서울혁신파크 (2016). 『서울 이노베이션 로드』

파크 내 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당시작>이라는 공모 프로그램은 “혁신파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 시민의 필요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는 크게 활동 단체들 간 혹은 단체-일반 시민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네트워킹 프로젝트’, 직접 ‘사회혁신’의 과제를 정해 수행해보는 ‘실행프로젝트’,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수립하는 ‘연구 프로젝트’, 혁신 파크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등으로 나뉜다. 2016년 작당 시작에 투입된 예산은 3억 7천만원 정도로 네트워킹의 경우 프로젝트당 150~200만원, 연구프로젝트에는 300~1000만원, 실행 프로젝트에는 1000~2000만원,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의 경우 500만원~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원 되고 있다.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먼저, 프로젝트 팀 소개, 프로젝트의 필요성, 달성할 정량 정성적 목표, 예상되는 결과물,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계획, 그리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5분 이내 10페이지 내외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2차 심사가 이뤄진다. 1차 심사에는 ‘제안 목적에 맞게 제안서 서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서울혁신파크 비전달성에 대한 기여도’,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평가되고 2차의 경우 전문성(수행단체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 ‘현실가능성’, ‘사회혁신 관점에서 제안 배경의 타당성’, ‘혁신파크 비전 달성 관점에서 제안 배경 타당성’, ‘사회적 기대효과’, ‘제안서의 구체성’ 등이 평가된다.⁴⁶⁾ 그 결과 2016년 <작당 시작>에는 소셜 벤처 지원을 위한 액셀레이팅 모델 연구, 은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 영화 만들기, 입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옥상파티, 아침 독서클럽 만들기 등 총 31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진행 하였다. ⁴⁷⁾

46) 서울혁신파크, 「혁신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2016 작당시작 프로젝트」,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6/03/08/2016-입주단체-모집공고/>>

47) <작당시작> 외에도 “파크 핵심가치 공유를 통해 파크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입주단체들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입주 단체들 간 협업을 촉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센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에 내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만일’ (년 4회) 내·외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센터장 간담회 (연 5회) 등이 진행 된다(서울혁신센터, 2016: 11).

<작당시작>이 혁신파크 내 입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면 <리빙랩>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혁신’ 사업이다. <리빙랩>은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주체를 찾아 생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혁신’ 실험을 “ 별이는 프로젝트로 ” “정부-민간-시민”의 협업과 사용자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직접 필요를 해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혁신센터, 2016: 109). <리빙랩>은 크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센터에서 해결방법론을 설계한 후, 공모를 통해 실험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지정과제>와 시민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자유 과제>로 나뉘어 있다. 2016년 지정과제의 경우 ‘단절된 사회연결망의 재 조직화’와 ‘청년 1인 가구 주거 빈곤’이 해결 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전자의 경우 책을 중심으로 한 시민 공동체 조직을, 후자의 경우 공유주택이 솔루션으로 제시되어 6~7개월간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사회혁신’을 기획해보는 자유과제의 경우, 지역화폐사용, 배터리 교체, 공유 주차, 발달 장애 청소년들과 비 장애 학생들의 책읽기 모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다(서울혁신센터, 2016: 109).

그러나 센터가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통치의 구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입주단체, 시민과 혁신센터간의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이러한 행위의 규칙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해놓고 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의해 제시되는 공모 사업은, 그 자체로 입주단체, 시민들의 품행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에 지원하는 단체들은 당선을 위해 혁신파크가 제시하는 비전에 맞추어 스스로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나 센터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사회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끊임없이 ‘변화’나 ‘혁신’이라는 단어와 연결 지어 서사화 한다.

48) 실제로 혁신센터에서는 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공모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입주단체들의 사업 추진에서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 주체 생산의 논리

앞 절에서 우리는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장치들을 일별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치들은 시민들을 어떠한 존재로 빚어내는가?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론적 자원들과 테크놀로지들이 동원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통치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어떠한 행동의 가능성을 주변화 시키는가?

다음 제시 된 <희망별동대> 포스터와, <소셜 디자인스쿨> 강의의 커리큘럼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민의 상을 잘 보여준다.

[그림 2] 희망제작소 희망별동대 모집 포스터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요람 희망별동대5기

강동을 이노베이션하라

INNOVATION

이런 청년 주목!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경제에 관심있는 청년!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강동에서 실험해보고 싶은 청년!
 혁신의 DNA로 꿈틀꿈틀 작당을 펼쳐나갈 탐험정신의 소유자!
 지역혁신을 위한 반짝이는 상상과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제작소가 판을 깔아 드립니다:)

누가? 혁신 아이디어를 실행 할 수 있는 수도권 청년 3인이상인 팀 (4팀 선발)

언제? 접수 : 2014. 7. 7(월) ~ 8. 1(금)
 1차 심사 (서류) : 2014. 8. 5(화)
 2차 심사 (인터뷰) : 2014. 8. 7(목)
 프로젝트 기간 : 2014. 8. 13(수) ~ 12. 12(금)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서울시 강동구 내

무엇을? 강동구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
 : 도시농업/로컬푸드, 주거환경, 교육/문화, 기타 주제

어떻게? 프로젝트 실행 비 팀별 최대 2,000,000원 지원

프로젝트 과정?
 주춧돌 놓기 (8월) : o.t, 기본교육, 멘토연계
 기동세우기 (9월) : 사업계획서 점검, 지역자원 연계
 지붕연기 (10~11월) : 팀별 프로젝트 실행, 중간점검
 최종발표회 (12월) : 사업계획서 최종 수립, 전문가 코멘트

[그림 3]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 스쿨> 커리큘럼

프로그램

일정	분야	내용		강사	세부내용
<div><입문> 개강워크숍</div>					
1	3월 19일 (금)	입문 강연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시대가 결실하 필요로 하는 꿈꾸는 능력과 상상력의 중요성, 그리고 그 꿈을 기획하는 능력을 배운다.
		오티	소셜디자이너스쿨 오티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전체적인 소셜디자이너스쿨 오티 배경 설명
2	3월 20일 (토)	개강 워크숍 입문	1. 사회혁신의 세계는 진화 중 2. 관심 사례 토론 / 개별 관심 주제 조 편성	김미혜연 (희망제작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지구촌 사회혁신의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자!
<div><실전> 사회혁신의 주제와 방법</div>					
3	3월 22일 (월)	마인드 세팅 (특강)	소셜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상상력	박성연 (크리에이티브 대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수업,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혁신을 꿈꾸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
4	3월 29일 (월)	마인드 세팅 (특강)	소셜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기획력	고경태 (<세네 21> 전 편집장)	1인 사회혁신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와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기획 실력을 강화시켜 주는 강좌
5	4월 5일 (월)	방법론 - 디자인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상상력을 키워라	조주연 (시민문화 네트워크 티팟 대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알아보는 수업,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당선도 소셜 디자이너이다!
6	4월 12일 (월)	방법론 - 소셜 미디어	소셜미디어, 소통과 공유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자	양석원 (Coworking Space Designer)	최신 트렌드와 소셜미디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익숙해져야 할 방법과 마인드에 대한 교육,
7	4월 19일 (월)	방법론 - 사회적 기업	High Risk, High Return에서 Low Risk, Great Impact로! 사회혁신기업가가 꿈꾸고 실천하는 법	김진화 (오른그딿 대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실천해본 젊은 대안 기업인을 만나 꿈과 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는 살아있는 강좌
8	4월 26일 (월)	방법론 - 모금과 지역	물뿌리 모금으로, 지역 공동체의 꿈을 일구다	임기준 (일암 어린이도서관 대표)	폐광촌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움직임, 작은 경성을 모아 꿈과 희망을 키운 일암어린이 도서관 사례를 통해 물뿌리 모금의 방법과 지역운동의 핵심을 들어본다.
<div><발표> 종강워크숍</div>					
9	4월 30일 ~ 5월 1일 (금 ~ 토)	종강 워크숍	수료 및 네트워크 & 수료생 상호 강령 시간	수료생 개별 발표	개인의 작은 문제의식이 자신의 주변과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성장해나간 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만나는 시간, 사회혁신가로 성장한 개별 수료생들 각자의 소감을 듣는다.

위의 포스터와 강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사회혁신’을 수행하는 ‘혁신적 시민’은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한 “탐험 정신”과 “꿈”을 가지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며, 동시에 “각자의 가치와 꿈을 구체적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상상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획력”을 담지 한 존재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를 크게 자발성(참여), 사회성(협력), 그리고 창의성(해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발성 : 참여하는 시민 만들기

(1) ‘자기’의 문제화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타인과 사회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한 뒤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첫 번째 비밀열쇠이다. (박원순, 2007: 23)

희망제작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를 문제화 한다는 것에 있다. ‘혁신적 시민’이 되려는 개인에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가 하는가가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이다. ‘소셜 디자이너’의 고민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표” (박원순, 2010: 17), “나를 둘러싼”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⁴⁹⁾ 이 때 권력은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이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를 고민하는 자기에게 말을 건다. 희망제작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 실천의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호명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통치하려는 권력의 실천과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개인의 실천을 결합한다. 크룩생크가 지적하듯, 권력은 개인의 “삶과 그 욕구를 관리하고 조절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선을 주문한다” (크룩생크, 2014: 120).

이러한 자기 호명의 기획이 목표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49) 양수진, 「불안」을 정면돌파하는 서른 살 여성 노동자, 『희망제작소』, 2011.12.26.
 < <http://www.makehope.org/불안을-정면돌파하는-서른-살-여성-노동자/> >

능동적으로 기획해나가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권력은 삶의 특정 순간이 아닌 생애 전체를 겨냥한다. 성장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삶의 끝나지 않는 과업이 된다. 90년대 이후 사회의 다양한 장소들을 관류하기 시작한 자기 계발의 논리(서동진, 2009)는 시민교육에도 침투한다. “전 세대에 걸친 생애 교육과 컨설팅”(희망제작소, 2010: 56)을 목표로 하는 희망제작소에는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직장인, 은퇴한 50-60대에 이르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별’에서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설계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동일한 명령이 주어진다. <희망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설계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며, 20-30대 청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획된 <소셜 디자이너 스쿨> 역시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자아를 이상적인 주체상으로 그려낸다.⁵⁰⁾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퇴근 후 LET’S> 프로그램의 경우,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인생 후반전을 체계적으로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10년 뒤를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이다(연차보고서, 2010: 55). <행복설계아카데미>(이하 행설아)의 경우 은퇴한 시니어들이 비영리 섹터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설아>는 “인생의 전반부는 강요받는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구호 아래, 시니어들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청년’이 될 것을 주문한다. 이 시대의 노인은 노쇠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勞人)이라는 문구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⁵¹⁾ 그리고 이러한 인생설계 교육

50) 일례로, 소셜 디자이너 스쿨 2기 첫시간에는 “그 때 그 때를 즐기면서” 국어선생에서 PD 교수에서 방송국 사장으로 직업을 네 번 바꾼 강사의 삶이 소개된다.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다른 이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기 보다는, 확일적 잣대로 환원되지 않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긍정적 마인드로 영위해내는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한다. “주전자”(주체성, 전문성, 자신감) “꿈,꿀,피,깡,끼,끈” 등 몇 가지 단어로 삶의 노하우와 지침이 요약되어 전달된다. 강의는 끊임없는 성장의 언어로 점철되어 있다. 강사의 목표는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수강생들에게 끊임없이 “청년정신”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

“내가 콩나물에서 콩나무가 되어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 실패해도 좋다. 경험으로 단련되는 거죠. 그래서 더 멋져지는 거예요.” “죽는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죽는 날 최고가 되는 거야..”

희망제작소, 「준비만 된다면, 변화를 즐길 수 있다.」, 『희망제작소』, 2008.11.06.

<www.makehope.org/준비만-된다면-변화를-즐길-수-있다/>

속에서 마을 이장, 문화 기획자, 사회적 기업 종사자 등 “돈과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되”는 직업이나 활동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개인적 삶의 기획과 통치가 공공선의 도모 및 증진과 결합된다.

자기 삶의 능동적 기획자이자, 사회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개인은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를 배려하며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혁신적 시민’을 형성해내는 과정은 자기-알기, 자기-배려, 자기-말하기 등의 다양한 자기 테크놀로지를 통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 때 ‘참된’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은 ‘훌륭한’ 시민을 생산해내는 과정과 불가분으로 얽힌다.

자기-알기는 이러한 시민형성의 핵심적 테크놀로지이다. ‘혁신적 시민’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 개인은 다양한 자기-알기의 테크닉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의 욕구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훈련 받는다. 가령, <행설아>의 첫 시간 제목은 “마음 열기와 마음먹기”로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문구로 시작된다. 수강생들은 MBTI와 같은 심리학적 테크놀로지들을 통해 스스로의 성향을 평가하고 진단해보면서 “나를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⁵¹⁾ 후원회원의 청소년들에게 토론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획된 <희망별>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역시 훌륭한 시민 되기와 참된 자기되기의 결합을 잘 보여준다. “말 잘하는 방법보다 잘 듣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별 프로그램의 첫 강연 제목은 “나의 소리-자기 탐색 및 성찰”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경청의 자세”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업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바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보면서,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훈련이 진행된다.⁵²⁾ <소셜 디자이너 스쿨>, <희망별동대> 역시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51) 이재현, 「이 시대의 노인은 ‘노력하는 사람’(勞人)이다」, 『희망제작소』, 2009.06.27.

<www.makehope.org/이-시대의-노인은-노력하는-사람勞人-이다/>

52) 희망제작소,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희망제작소』, 2008.03.11.

<<http://www.makehope.org>/당신이-세상의-변화를-원한다면>

53) 오지은, 「‘토론’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희망제작소』, 2012.03.20.

의 경계를 허무는 통치의 실천을 잘 보여준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대학생들을 선발해 금융과 경영의 지원을 보조하는 ‘희망별동대’의 핵심적 선발기준은 “창업가의 진정성”이다.⁵⁴⁾ ‘혁신적 시민’에게 있어 사회 변화는 ‘자기’에 관한 질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가 무엇인가, 혹은 추구되어야 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무엇보다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마음을 흔드는 지점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 함으로써 얻어진다.⁵⁵⁾ 사회적인 가치의 추구는 다른 이들과 공통의 세계관을 조직해나가는 작업이기 이전에,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사회적 문제를 찾는 작업, 즉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끊임없이 묻고 발견하는 작업이 된다. 훌륭한 시민은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박원순, 2010: 25).

동시에 자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자기 배려의 테크놀로지와 긴밀하게 얽힌다. 사회 참여를 권장하는 언어들에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의미화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행복해야 한다. <소셜 디자이너 스쿨> 6기 강사로 초빙된 안철수의 말처럼 “자기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결국 행복해” 지기 때문이다.⁵⁶⁾ 행복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자신을 짓누르는 도덕적 의무감이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 되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브리클링(2014)이 오늘날 유행하는 심리학적 담론들을 분석하면서 말하고 있듯, 오늘날 역량화의 관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과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말하는 것”에 있다. “자신의 약점을 끝없이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양심의 가책은 자기 강점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기 때문이다(236). <행복 설계아카데미 월례 포럼>에서는 한 영화 평론가가 초청되어 수강생들에게 “인생을 해방적으로 예술적으로 호모 루텐스

<<http://www.makehope.org>/토론-잘하는-사람이-되려면/>

54) 이재홍, 「꿈을 직업으로 이루기 위한 ‘희망별동대’의 전략」, 『희망제작소』, 2012.04.10.

<<http://www.makehope.org>/꿈을-직업으로-이루기-위한-희망별동대-전략>

55) 김민주, 「문제, 의식하고 있습니까?」, 『희망제작소』, 2012.06.13.

<www.makehope.org/자동-저장-문서-74>

56) 이응준, 「안철수가 젊음에게 권한 말」, 『희망제작소』, 2010.04.05.

<www.makehope.org/안철수/>

적으로 살아” 갈 것, “좀 불량스럽게 살아갈 것”, “놀이와 삶”을 일치시킬 것을 주문한다. 수강생들은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고” “사회의 출세 가족 부양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한국사회가 썩어는 굴레를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작업은 그 자체로 “더 행복하고 더 공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소개된다.⁵⁷⁾

자기 배려의 테크놀로지는 자기 말하기의 테크놀로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스스로의 삶을 서사화하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훈련이야말로 참된 자아를 구성해내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표현하게끔 하는 훈련들로 가득 차있다.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것을 몇 가지 카드로 표현해 볼 것⁵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표현해볼 것”⁵⁹⁾, 스스로의 살아온 시간을 하나의 신문으로 제작해서 표현 해볼 것 등을 주문한다.⁶⁰⁾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개인의 삶을 서사화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 교류하면서 일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사람 책’으로 이름붙이고, 이들을 연사로 초청해 마치 한편의 책을 서술하듯, 스스로의 이야기를 동료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⁶¹⁾ 과거에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소설가와 같이 전문적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개인이 각자 삶의 유능한 해석자로 거듭나기를 요구 받는다. 이제 개인은 누구나

57)희망제작소, 「호모루덴스적 삶을 살자」, 『희망제작소』, 2009.01.28.

<www.makehope.org/호모루덴스적-삶을-살자>

58)오지은, 「희망별, 12개월 간 무슨 일이 있었나」, 『희망제작소』, 2013.01.09.

<www.makehope.org/희망제작소에-청소년들이-모인-까닭은/>

59)희망제작소, 「호모루덴스적 삶을 살자」, 『희망제작소』, 2009.01.28.

<www.makehope.org/호모루덴스적-삶을-살자>

60)희망제작소, 「‘나눔’으로 시작하는 인생 후반전 - 제5기 행복설계아카데미 입학식」, 『희망제작소』, 2008.07.22.

<www.makehope.org/나눔으로-시작하는-인생-후반전-제5기-행복설계아카데미>

61)장윤호, 「살아있는 책으로 만난 서울 이야기」, 『희망제작소』, 2012.11.13.

<www.makehope.org/살아있는-책으로-만난-서울-이야기/>

가 스스로의 삶을 한편의 책처럼 서술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자기 테크놀로지들 속에서 ‘진정한 자기’는 발견되고 강화되고 배려되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정립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무엇보다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며, 자기 자신은 정치적 시민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다.

(2) 자조(self-help)

2008년 <타임>지에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You’ 바로 당신입니다. 한 사람 한사람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세상을 바꾼 주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당신 한 사람이야 말로 변화의 진정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 (...)그중의 하나가 ‘창조적인 보통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박원순 외, 2010:369)

주체적 개인은 성숙한 시민이기도 하다. 개인을 능동적인 자기 삶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주체로 호명하는 작업과 불가분으로 얽힌다. 개인은 자기 삶의 능동적 기획자를 넘어서, 국가도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능동적 시민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평범한’ 개인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개개인을 참여의 주체로 빚어내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이다. 이들이 스스로 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 객관적인 권력의 봉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자기 지각과 정치의식”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역량화 작업의 관건이기 때문이다(브뢰클링, 2014:228). 소셜 디자이너 스쿨 5강에 초청된 한 강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의 행동이 어딘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며 “사회혁신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와 주변의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⁶²⁾ “우리가 찾아 헤매는 문제의 해법, 필요한 자원들은 꼭 힘 있는

62) 이용준, 「소셜 미디어는 잊어야 하는 이유」, 『희망제작소』, 2010.05.25.
<www.makehope.org/sds-6기-6강-양석원/>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⁶³⁾ 아니다.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실행된 작은 생각과 행동은 ‘일상의 혁명’의 시작이다.⁶⁴⁾ 권력은 개인들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주조 하면서 이들을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로 호명한다. 희망제작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개인의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준 벤치마킹의 사례로 작지만 소중한 사회 변화들을 이룩해내는 ‘소영웅’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마음먹으면 해버리”는 자세, “한 줄의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추진력은 그 자체로 ‘사회 혁신’을 꿈꾸는 시민들이 따라야 할 핵심적 덕목으로 권장된다.⁶⁵⁾ 희망제작소 연구원에 의해 작성된 강연의 후기에 등장하는 우화는 사회혁신의 프로그램이 주조해내고자 하는 이상적 시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때 시민들은 우화에 등장하는 별새와 같이, 객관적인 힘은 미약할지라도, 작은 실천이 만들어 내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실천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불타고 있는 숲의 불을 끄기 위해 조그만 부리에 물을 담아 부지런히 나르는 별새를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것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라고 비웃으며 바빠 도망을 쳤지만, 별새는 ”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라면서 불을 끄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별새의 마음으로 사회를 ‘공생의 원리’로 새롭게 구성해가야 할 때라고 합니다.⁶⁶⁾

이 때 참여하는 시민은 무엇보다 국가나 자본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조(self-help)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존재이다. ‘사회혁신’의 서사들은 국가나 자본의 지원을 받는 태도는 “제도권의 달콤함에 취하는 것”(박원순, 2010: 181), “돈이나 권력에 의존적”(233)인 것으로 표상하며 자조를 하나의 이상으로 정립한다. 기존의 운동에서 사회 변화가 권력에 직접적으로 맞서고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사회변화는 권력에 의존하지 않

63) 이재홍, 「꿀벌들의 수다 모임」, 『희망제작소』, 2012.10.04.

<www.makehope.org/위키대화/>

64) 희망제작소, 「그대, 이제 꿈을 말할 때다」, 『희망제작소』, 2008.12.04.

<www.makehope.org/그대-이제-꿈을-말할-때다/>

65) 희망제작소, 「깨어있는 마음으로 교육의 장을 넓히다」, 『희망제작소』, 2008.11.19.

<www.makehope.org/깨어있는-마음으로-교육의-장을-넓히다/>

66) 윤고은, 「시니어 세상 이치와 다른 말」, 『희망제작소』, 2010.10.07.

<www.makehope.org/여전히-아름다운-별-그-이름은-시니어/>

으며 이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남다른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이 기절할 때까지 열심히” 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 경영자(박원순, 2010: 181,233),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회운동으로라도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시민 병원을 설립한 시민⁶⁷⁾, “진정한 사회복지는 ‘얻어 먹이고 거두어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에, “도서관을 지원해주겠다는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택”한 지역 공동체 운동가⁶⁸⁾ 등의 사례가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시민의 상으로 소개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진행이 되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며 역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구나”⁶⁹⁾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 수강생의 후기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국가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통치의 전략은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두되는 위험 부담 역시 스스로 감수하는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을 조달하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주체들과 컨설팅,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이들의 자생을 지원하고 복돋는 전문가 권력이 공존하고 있다.⁷⁰⁾ 역량 강화의 전문가들은 ‘혁신적 시민’의 ‘미션’과 ‘비전’을 설계하고, 마케팅의 기술 등을 학습시켜 자원 동원 ‘역량’을 개발하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소셜 임팩트’를 측정 평가하고 증진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강화의 권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율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권력의 기획은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테크놀로지들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속에서 ‘품질 관리’, ‘고객 만족 경영’, ‘비즈니스 마인드’, ‘재무

67) 희망제작소, 「나의 경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희망제작소』, 2008.11.19.

<www.makehope.org/나의-경험이-세상을-바꿀-수-있다>

68) 이웅준, 「카지노의 땅 위에 도서관을 세운 아이들」, 『희망제작소』, 2010.06.21.

<www.makehope.org/sds-6기-8강-원기준-풀뿌리모금으로-마을만들기/>

69) 윤신영, 「혁신적(?)인 여름 보충수업 현장 대공개」, 『희망제작소』, 2010.08.19.

<www.makehope.org/sds-중간워크숍-후기>

관리' 등의 테크닉들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품행으로 소개 되고 보급된다(박원순, 2007: 71-72)⁷¹⁾. 앞서 언급한 시민병원의 설립자는 같은 강연에서 스스로의 병원이 “자생력”을 도모하기 위해 “삼성병원”과 같은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다.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게 개선해서 남긴 이윤으로 나머지 30%의 저소득층을 돕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⁷²⁾ <퇴근 후 랫츠> 1기 5강에 출연한 아름다운가게 국장의 말 역시 의미심장하다. “경쟁에 지쳐서 입사한 사람은 이곳에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곳은 느낌의 미학을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⁷³⁾ 이러한 테크닉들의 학습 속에서 이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정언명령으로 수용하면서, 시장 질서에 위협적이기보다는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둘째, 또한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은 권력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무한히 상호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주체를 만들어낸다. ‘혁신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이나 제약의 뿌리를 파헤치기보다 각자의 ‘자산’과 ‘강점’을 발견해 스스로의 생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이 때 권력은 누구로부터 뺏어오지 않아도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식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통치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힘 있는 존재로 느끼게끔 하면서, 권력을 비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 문제 해결과 생존의 책임을 떠맡는 자발적인 시민으로 빚어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통치의 전략은 한편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민주주의적 기획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개인들 스스로 각자의 삶을 책임지게끔 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기획과 공명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주형, 2013; Chesire · Lawrance, 2005).

71) 김성윤(2013)은 사회적 경제 담론을 분석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다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기업이나 조합을 벤치마킹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 네트워킹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동화 되어가는데 그는 이를 “어떤 단위체가 같은 환경조건에 직면한 단위체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제도적 동형화’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122).

72)희망제작소, 「나의 경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희망제작소』, 2008.11.19.

<www.makehope.org/나의-경험이-세상을-바꿀-수-있다>

73)김돈희, 「“여긴 느낌의 미학을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 2010.07.08.

<www.makehope.org/자동-저장-문서-39/>

2) 사회성 : 협력하는 시민 만들기

이처럼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는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기획은 한편으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기획과 공명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기업가적 주체의 형성과 ‘혁신적 시민’의 생산을 구분 시켜주는 핵심적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타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주지하듯, ‘사회혁신’에서 협력은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동료 시민들과의 인간적 교감에서부터 정부나 자본과 이루어내는 섹터 간 협업까지 협력의 윤리는 ‘사회혁신’을 관통하는 핵심적 덕목이다. ‘사회혁신’은 무엇보다 협력할 줄 아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 소통,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의 향상(희망제작소, 2013: 38)”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시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된다. 서울혁신파크 역시 ‘공유’와 ‘협력’을 파크의 센터 사업과 정체성의 핵심적인 기조로 내세우며, 입주단체를 심사하거나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서울혁신센터, 2016: 8). 물론, 국가권력에 맞서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회 내의 연대와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90년대 시민운동이 담지한 가치관이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식 시민운동’의 대표 주자였던 애드보커시 운동이 국가나 자본과 대립각을 세우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혁신’의 초점은 전적으로 협력에 맞추어진다.

그렇다면 협력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역량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학습되는가? 이러한 통치가 낳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는 어떻게 재편되는가?

(1) 사심 없는 순수함

무엇보다 협력하는 시민은 사심 없는 순수함을 지닌 존재이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도덕과 탐욕의 이분법을 제시하면서 돈과 사회적 지위만을 탐하는 이기적인 개인이 아닌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시민이 될 것을 주

문한다. 잘나가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내리기로” 결심(2010: 18-19)하고 시민운동가가 된 박원순 개인의 경험은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 한다. 세상은 탐욕과 도덕, 비영리와 영리, 경쟁과 나눔, 탐욕과 헌신, 소유와 무소유, 변칙과 원칙, 물질과 정신으로 양분된다. 대립쌍의 한편에 물욕과 권력욕에 찌든 경제적 인간이 놓이고 다른 한편에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은” (41) 순수함과 보편성을 담지한 도덕적 시민이 위치한다.

“이제 그이가 버린 것은 그 핏빛 경쟁의 세상이요, 얻은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바로 봉사와 헌신의 블루오션이다.”⁷⁴⁾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헌신한 이들, 기꺼이 즐거운 노동과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이들, 물질보다 정신을, 탐욕보다 나눔을, 독식보다 순환의 가치를 선택한 그들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가게의 성장은 훨씬 더디고 힘겨웠을 것이다. (박원순, 2007:81)

도덕과 소신을 한패로 묶고 그 반대편에 탐욕과 권력을 놓는 이분법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첫째, 세계가 경제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 탐욕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으로 양분될 때, 도덕적 순수함은 탐욕의 원리로 이루어진 현 질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표상된다.⁷⁵⁾ 이는 사회변화를 사심 없는 순수함과 등치시키면서 힘과 힘의 대결을 변화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주변화 한다. ‘사회 혁신’의 담론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은 변화 하는 정세에 따라 힘을 겨루는 파워 게임이 아닌, 봉사와 헌신, 원칙과 소신의 문제로 이해된다. 때로 도덕은 강자를 규탄하고 약자의 힘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힘의 대결을 뒷받침 한다(Brown, 2001: 26). 그러나 많은 경우 도덕은 힘의 대결을 대체한다. 도덕의 언어는 권력 간

74) 박원순. 「 ‘직업선택 10계명’ 을 신봉하는 사람들 », 『희망제작소』.2008.11.22.

<<http://www.makehope.org/직업선택-10계명을-신봉하는-사람들/>>

75) 박원순은 정치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정치인이 되려고 쓸 만한 경력이나 인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봉사의 현장에서 쌓아나가는 신뢰와 공감대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블로그, 트위터 등 웹 2.0 시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무장하고 불우한 아이들과 홀로 늙어가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사심 없이 봉사하는 젊은이라면 틀림없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모을테니까요 (2010a: 25).”

의 세를 겨루는 힘의 정치를 건강한 것이 아닌 부패한 것으로 표상한다. 이때 변화의 초점은 권력의 지형이 아닌 개인의 윤리에 맞추어진다. 통치는 부도덕을 종용하는 구조적 조건을 파헤치기보다는 강자에 호소하거나 약자를 비난하도록 한다. ‘착한 기업가’라는 이상은, 강자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가진 자 개인의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이들이 윤리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힘의 지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리로 약자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착한’ 시민이 되지 못하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종용하는 구조적 권력관계라는 사실을 주변화 한다.

또한 도덕의 정치는 원칙의 고수를 선으로 표방하면서, 책임 윤리가 아닌 신념 윤리에 따라 정치를 사고하게 만든다(베버, 2007: 121-127). 가령, ‘사회혁신’의 프로그램은 변칙을 쓰지 않는 진심⁷⁶⁾, “원칙과 명분에 늘 충실”하는 삶(박원순, 2011: 54)등을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이의 덕목으로 권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소신의 언어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스스로를 더럽히는” 수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알린스키, 2008: 68-69), 정치란 선한 의지와 진심이 투명하게 관철되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의도가 최악의 비극과 고통을 낳기도 하는”(Brown, 2001: 27) 유동적인 정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주변화 한다. 이러한 서사는 도덕적 결벽증에서 벗어나, 현실의 비극성을 긍정하고 기꺼이 ‘부패’한 전투에 뛰어들 수 있는 개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도덕의 담론에 있어 이러한 현실은 숨기거나 지양되어야 것으로 표상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을 권력의 반대편에 놓는 이분법은 도덕 자체가 일종의 권력일 수 있다는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혁신’의 서사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창업을 돕는 ‘희망가게 대출 프로그램’이나,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빅이슈’와 같은 사업들은 동료 시민들을 돕는 ‘윤리적인’ 행위로 프레임 된다(박원순, 2010: 75,162; 2011:161).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다른 한편으로 취약 계층을 자본주의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관리하는 규율의 과정이기도 하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틈새시장” 개척이나 “고객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의 활동이 ‘윤리적 도움’으로 표현될 때, 이러한 ‘도덕적’ 행위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시장

76) 배민혜, 「세왕주조, 막걸리 시장에서 되살아난 비결」, 『희망제작소』, 2010.04.28.
 <www.makehope.org/블루오션-열차-①-80년-숙성된-장인정신-희망소기업-세/>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단 이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권력적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은 주변화 된다.

(2) 낭만적 연대의 형성

도덕적 개인의 이상은 낭만적인 연대에 대한 이상으로 이어진다. 순수한 시민의 이상은 진정한 관계에 대한 이상으로 이어진다. ‘사회혁신’의 서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낭만화 된 연대의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박원순의 저서, 희망제작소의 간행물과 후기,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에서 생산한 간행물들은 구성원들간의 ‘신뢰’, ‘사랑’, ‘위로’, ‘격려’, “진심에 기반한 소통”, “진정한 만남”(박원순, 2010: 207)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사랑을 얻는” 관계(박원순, 2011: 159) 등 휴머니즘적인 연대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의 구축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능력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박원순은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소통의 윤리를 “고질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2010: 219). ‘혁신적 시민’은 “소통의 기본은 잘 듣기”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⁷⁷⁾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동시에, “타인의 진심을 알아주고,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⁷⁸⁾.

앞서 언급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공감과 경청의 능력을 훈련하는 대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회적 오해나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한 방안으로 소개된다.⁷⁹⁾ 개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공감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연대를 구축하게 된다.

77) 이희성, 「이장님과 함께 디자인을!」, 『희망제작소』, 2009.12.04.

<www.makehope.org/두-번째-어른-인생을-준비하는-사람들/>

78) 허새나,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어른들」, 『희망제작소』, 2012.03.27.

<www.makehope.org/두-번째-어른-인생을-준비하는-사람들/>

79) 희망제작소,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희망제작소』, 2013.11.13.

<www.makehope.org/당신의-편견은-무엇입니까/>

이렇듯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윤리적 연대의 구축은 그 자체로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로 표상된다. 기부나 나눔, 공정무역과 로컬푸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들은 앞서 언급했듯, 구조적 권력관계의 모순을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연대로 봉합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기부나 자선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번 아까운 돈을 다른 누구를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마음”(박원순, 2010: 38)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나눔”으로 표현될 때(희망제작소, 2014: 16) 나눠주는 이와 받는 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정치경제학적 조건은 집요하게 질문되지 않는다. 무어엘 바흐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 자선과 기부는 “보편적 평등에 기반한 관계”를 자발적이고 대면적인 윤리에 입각한 연대”로 대체한다(Muehlebach, 2012: 13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교환관계를 강조하는 공정무역이나 로컬푸드와 같은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해법 역시 제 3 세계 생산자 혹은 농촌의 빈곤을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겨난 탐욕의 문제로 프레임 하면서, 윤리적인 개인 간의 연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박원순, 2011: 161). 그러나 “정의의 실천”으로 의미화 되는 이러한 해법들은 평등하고 인간적인 교환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믿어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실 구조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 하비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 이러한 해결책들은 한 사람은 비싼 값에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제 1 세계 소비자, 다른 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3세계의 생산자로 만나게 하는 불평등의 원인을 집요하게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하비, 2011: 83). 이러한 실천들은 전 지구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구조적 모순의 문제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윤리적 연대로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3) ‘균형’과 ‘합의’라는 이상

협력을 추구하는 시민은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가 만족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존재이자, 보편적인 합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이다. 시민들에게 일종의 따라야 할 벤치마킹의 사례로 제시되는 ‘사회혁신’의 예들은, ‘상생’과 ‘공생’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사례들

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던 이해와 이해(利害), 필요와 자산, 인간과 인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줌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소개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이들과 말상대가 필요한 적극적인 노인들을 연결해주는 것, 어느 정도 생산비를 보장 받으려는 농부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저렴한 방이 필요한 청년을 만나게 하는 것 등 ‘사회혁신’은 “모두에게 헌신하고 기여하는”(박원순, 2010: 105)해법을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 설정하면서, 그 누구의 이해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 조정함으로써 이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들은 “정부, 회사, 큰 NGO 단체”들과 같은 커다란 “나무”들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면서 이들을 연결해주고, “상호 수분”을 돕는 “꿀벌”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멀건, 2011: 40). ‘나무’와 ‘꿀벌’의 비유는 정부와 회사와 대자본을 권력을 행사하는 강자가 아닌 유연한 ‘꿀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시민이 정부나 회사에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 간의 연결자로 표상 될 때, 국가, 자본과 시민사회 간의 화해 불가능한 적대는 주변화 되고 이들 간의 보편적 합의가 추구되어야 할 규범이 된다.

‘이해관계자 지도’는 이러한 ‘꿀벌’ 시민을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테크놀로지이다. <디 이노베이터 시리즈>, <서비스 디자인 캠프>와 같은 시민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해관계자 지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지도’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얽혀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관계를 지도로 표현한 후, “모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점을” 찾아보는 방법론이다.⁸⁰⁾ 이 때 기업, 시민, 정부 등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는 행위자들은 모두 등가화 된 ‘이해관계자’로 환원되고, 이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변화의 방향으로 제시 된다.

‘이해 관계자 지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놓인 이들을 수평적인 행위자로 치환 하면서 특수한 ‘균형 감각’을 학습 시킨다. 가진 자와 가지지

80)송하진, 「대학로를 혁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희망제작소』, 2012.08.30.
<www.makehope.org/작성중공공서비스도-서비스디자인으로/>

못한 자를 동등한 행위자로 표상하는 균형 감각은 많은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자원배분의 질서를 바꾸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가령, <대학생 서비스 디자인 캠프>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내건 한 팀은 이해관계자 지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이 청년에게 방세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매달 이자를 상환 받는 플랫폼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청년의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고 비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장점을, 기업의 경우 “인재를 확보하고 후원금액을 상환하며 청년을 후원한다는 뿌듯함”을, 집주인은 “기존과 다른 계약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점을 얻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서술된다.⁸¹⁾ 이 때 이해관계자 지도는 주거 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존재(기업이나 집 주인) 역시 맞서야 할 적이 아닌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하면서, 기실 기존의 자원배분 질서를 변화 시키지 못하는 해결책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안하게끔 만든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면서 이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민은 동시에 다원적 개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에 대한 믿음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희망제작소가 제시하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합의를 모두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규범으로 설정하면서 갈등이나 폭력 자체를 지양 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 내편과 네 편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것들보다 합의하기 어려운 차이를 밝혀내는 데 골몰하는 것, 필요 이상의 공격성(희망제작소, 2014: 10)” 등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태도로 환원된다. ‘사회혁신’의 다양한 장치들은 불화의 소지를 제공하는 요소들을 끊임 없이 서로 존중해야 할 ‘차이’로 환원시키면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가 갈등이나 적대로 비화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노란테이블>은 희망제작소가 시민 교육을 위해서 고안해 낸 시민 토론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⁸²⁾ 이 때 보편적 합의는 토론자 모두가 따라야

81)송하진,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방법 대공개」, 『희망제작소』, 2013.01.22.

<www.makehope.org/살기-좋은-서울을-만드는-비법-대공개/>

82)황현숙,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희망제작소』, 2016.04.11.

<www.makehope.org/후기-끝이-아니라-시작입니다/>

할 규범으로 설정된다. 토론에 참여한 개인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공평한’ 발언의 기회를 가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 받는다.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 역시 “참가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중재해야 한다.⁸³⁾ 이렇듯 희망제작소는 <노란테이블>을 통해 다원적인 개인들이 공통의 합의를 지향해 가는 것을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시민들은 적대의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존중되어야 할 차이로 환원하면서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훈련 받는다. 청년들과 노년 세대가 함께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이를 잘 보여준다. 팀워크 증진법을 가르치기 위해 초빙된 강사는 참가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갈등은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며, 팀 전체의 ‘생산력’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⁸⁴⁾ 갈등 역시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의 후기와 콘텐츠들에서는 갈등-차이의 이해-합의의 서사구조, 즉 의견 갈등을 겪던 참가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레파토리가 반복된다. 다음과 같은 후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이 달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대립이 세대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세대 차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커졌다. 그런데 세대 차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서로가 다른 세대 속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갈등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사그라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⁸⁵⁾”

이렇듯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은 다원적 개인들이 공통의 합의

83)희망제작소, 「<노란테이블 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토론티팅 PDF파일 내려받기」, 『희망제작소』, 2016.03.29.

<www.makehope.org/노란테이블2-누가-좋은-국회의원인가-토론티팅-pdf파일/>

84)김수현, 「생기발랄 시니어와 청년들을 만나다」, 『희망제작소』, 2013.08.07.

<<http://www.makehope.org/생기발랄-시니어와-청년을-만나다/>>

85)희망제작소, 「2013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2014.04.01., 49p.

<<http://www.makehope.org/2013-시니어드림페스티벌-결과보고서/>>

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이상적인 것으로 표상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적대를 지양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민주주의를 합의와 등치시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회에 본래부터 있으며 우리의 존재론적 조건을 규정하는 차원”인 적대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 분출하는 적의들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무폐가 슈미트를 빌려 말하듯, 모든 정체성은 타자의 역할을 할 구성적 외부, 즉 나 아닌 것과의 대비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적과 친구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다(무폐, 2007: 13). 서로 존중될 수 있는 차이로 표상되던 정체성들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언제든지 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모든 정체성이 다른 것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차이들에 대한 인정은 스스로의 존재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갈등이나 적대들은 영원히 종결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는 삶의 본질적 조건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물론 단결, 합의나 통합 등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의만을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것으로 표상하면서, 적대와 갈등을 궁극적으로는 지양, 제거 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삶의 필연적인 차원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억압된 적의가 더욱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귀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진리나 공공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합의에 대한 맹목적 강조는⁸⁶⁾, 반대나 갈등을 정당한 정치적 권리가 아닌 ‘비합리성의 발현’이나 ‘도덕적인 미성숙의 표출’ 혹은 ‘쓸데없이 비용을 높이는 사안’으로 환원시키는 고도로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다(홍철기, 2010: 252).

둘째,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의 불평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균형과 합의에 대한 강조는 힘의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반민주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고찰을 요한다. 앞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지도’에서와 같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놓인 행위자들이 중립적이고 등가화 된 행위자로 표상될 때, 이것은 결국 기존의 자원배분 질서를 바꾸지 못하는 보수

86) 갈등이나 차이의 봉합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차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관용의 태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잠재적 갈등의 요소를 차이로 관리하면서 결국 이를 합의와 조화로 수렴 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적인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균형’은 실상, 불균형의 지속에 다름 아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사적 이해관계들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아닌, 권력을 가진 적에 맞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적과 우리의 구분을 흐리면서 모두의 이익을 주장하는 담론은 그 자체로 반 ‘민주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조화와 균형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다른 ‘민주주의’와 ‘정치’의 가능성을 주변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창의성 : 해결사 시민 만들기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시민운동은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신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모이고 의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축제! 그것이 시민운동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소통방식입니다. (박원순, 2010: 100)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혁신의 핵심적 방법론은 적에 대한 집요한 규탄이나 비판보다는 대안의 생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회혁신’을 수행하는 ‘혁신적 시민’에게는 기존의 해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참신한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는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된다. ‘창의성’이야말로 90년대 시민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민성의 덕목으로 자리한다. “발칙한 상상력”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주재료”가 되는 것이다(박원순, 2010: 46). 그렇다면 창의성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어떠한 존재로 빚어내는가? 이를 위해 어떠한 장치들과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는가? 창의성이 사회변화를 위해 시민들이 학습하고, 개발해야 할 핵심적인 역량이 될 때, 정치적인 것의 의미는 어떻게 재편되는가?

(1) 새로움이라는 강박, 아이디어라는 무기

해결사 시민은 무엇보다 사회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이다. ‘사회혁신’ 담론들은 정부, 시장, 기존 운동의 해

법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 하면서, 끊임없이 기성의 것과 구분되는 새로운 해결책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담론들은 지금을 전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대로 정립하면서, 이를 뒷받침 한다(서울혁신파크, 2016: 18-29). “기존 정치사회적 운동들은 변화된 모든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한계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혁신 접근이 부상했다”⁸⁷⁾는 서사는 현재를 기존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표상하면서 그 자체로 기존의 운동 방식을 낡은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레임은 기존 운동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를, 주체들이 고안해내는 ‘참신한’ 전략의 부재에서 찾는다. 이러한 서사는 기존의 운동이 제시한 해법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 주체들의 전략적 역량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들을 둘러싼 구조적 세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주변화 한다.

전에 없는 ‘새로움’의 추구는 그 자체로 운동의 정언명령이 된다. ‘사회혁신’의 다양한 프로젝트 평가 기준들은 끊임없이 문제 해결 방식의 새로움을 권장하고 평가하고 측정한다. 문제 해결방식이 ‘혁신적인가’⁸⁸⁾,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적’인가,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개선했는가는⁸⁹⁾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항목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평가항목은 공모나 심사에 응하는 심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활동을 ‘혁신’이라는 말과 연관 지으면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과 차별화된 지점들을 생각해내고 부각시키도록 유도한다. ‘혁신적 시민’은 “근시안적 안목으로 남들과 똑같은 해결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내게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법에 골몰해야 한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지양 되어야 한다. 버스를 타던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이 일상의 미시적 실천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권장된다.⁹⁰⁾

87) 이승원, 「사회혁신포커스14- ‘불안의 극복’, ‘시스템 전환’, ‘회복력 강화’로서 사회혁신」, 『사회혁신리서치랩』, 3p. <<http://soinnolab.net/archives/735>>

88) 서울혁신파크, 「2016<전대미문 프로젝트>입주단체 모집공고」,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6/03/08/2016-입주단체-모집공고/>>

89) 희망제작소, 「2013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2014.04.01., 20p. <<http://www.makehope.org/2013-시니어드림페스티벌-결과보고서/>>

90) 권지원, 「‘틀’을 깬 45인의 직장인들」, 『희망제작소』.

혁신이라는 말은 언제나 비교급으로만 성립한다. 무엇을 새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낡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사회혁신의 주체들은 모순된 요구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성과 비교급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창의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남들과 발맞추어 가는 공존과,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새로워짐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는 새로움의 요구를 양립시켜야 한다.

새로움이 운동의 정언명령이라면 아이디어는 운동의 핵심적 무기가 된다. 새로운 해결방법을 골몰하는 해결사 시민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사회변화는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박원순·지승호, 2009: 362) 이데올로기의 습득이 아닌 아이디어의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운동에 요구되는 지배적인 삶의 형태가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이 아닌 아이디어가 될 때, 주체들은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는가?

첫째,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화 하면서 해결책을 양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한다. 포스터 기법이나, 희망제작소에서 만든 토론 툴킷 등은 아이디어의 무한 증식을 돕는 대표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토론 기법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에 적어 한데 모으고, 이어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한데 적어 모은 후,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문제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화, 단순화 하고 이에 1:1로 대응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고방식을 훈련시킨다.⁹¹⁾ 가령 ‘해상사고’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심하다’, ‘부실하다’ 등의 문제 진단과 ‘책임’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다.⁹²⁾ 이렇듯 포스트잇과 토론 툴킷의 테크놀로지는 한편으로 사회문제를 단순화 된 문제-해결 구조로 봉합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이디어의 대량 생산을 유도한다. 소셜 디자인스쿨에서는 창의력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나쁜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고하라”, “질

<<http://www.makehope.org/틀-을-깎-45인의-직장인들/>>

91)송하진, 「세상을 바꿀 수다쟁이들의 모임」, 『희망제작소』, 2013.07.29.

<<http://www.makehope.org/세상을-바꿀-수다쟁이들의-모임/>>

92)심보라, 「검정, 노랑, 주황 3색 카드로 말해요」, 『희망제작소』, 2014.07.15.

<<http://www.makehope.org/검정-노랑-주황색-카드로-말해요/>>

보다는 양이다”,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도록 기록하라” 등의 지침들을 제시한다.⁹³⁾

둘째, 아이디어의 생산은 지식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이 흩어져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일관된 원리로 꿰어내는 총체화 된 지식이나 논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층위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단편들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혁신의 관건은 “경계 넘기”, “기존의 요소들의 조합이나 혼합”에 놓이게 된다.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것들을 접합해보는 사고방식은 ‘창의적 사고’로 권장, 훈련된다. 가령, <소셜 디자이너 스쿨>에서는 디자이너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관련 없는 사물을 30~50개 가량 적고, 이들을 임의로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보는 훈련을 진행한다.⁹⁴⁾ 시민들은 지구와 계란 후라이, 노숙자와 잡지, 전화와 간호사 등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연결해볼 것을 요구받는다.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과 조합을 강조하는 창의적 사고는 앞서 제시된 협력의 윤리와 묘하게 겹친다. 적대적 관계로 여겨졌던 정부나 자본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만물이 융합하는 시대에”, “경계를 넘어 양쪽의 장점을 섞고 버무”리는 “앞선 생각”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의미화 된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시민사회와 기업, 혹은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사고방식은, 사회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일 뿐 아니라, 창의적이지도 않은 사고방식, 즉 “스스로 한쪽에 갇힌” 경직되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된다(박원순, 2010: 65).

(2) 기획력의 함양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획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 될 때 현실화 될 수 있다. ‘혁신적 시민’들은 대부분 공모, 용역 등을 통한 ‘프로젝트’의 형태로 사회 변화의 과업을 추진하기를 요구받는다. 운동의 프로젝트화는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시민운동의 제도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조

93)이웅준, 「인턴연구원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샐러드」, 『희망제작소』.2010.04.16.

<<http://www.makehope.org/머리를-말랑말랑하게-하는-샐러드>>

94)이희성·이진아, 「외쳐라, 인터라벙」, 『희망제작소』, 2009.11.18.

<<http://www.makehope.org/소셜디자이너/>>

희연, 2010: 75-76). 조희연이 지적하듯,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의 요구들이 체제에서 배제되기 보다는 정부나 기업의 의제로 적극 수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체제 내의 제도적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이 개방되기 시작한다. 제도화에 대한 운동의 응전 방식은 다양했는데, 이 중 ‘사회혁신’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한 운동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이 일종의 ‘프로젝트’가 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는 기관의 취지에 맞추어 기획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목표와 문제의식, 컨셉을 잡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누어야 할 과업들을 조정하고 추진하며, 결과물을 명확한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획력이 ‘혁신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 부상한다. 그렇다면 기획력을 훈련하는 과정은 이들을 어떠한 존재로 빚어내는가?

첫째, 기획력의 함양은 권력에 대적해 이를 규탄하기보다 권력의 요구를 명민하게 수용, 조절할 줄 아는 사고방식을 학습 시킨다. 기획자로서 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기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다. 박원순이 강조하듯, 희망제작소는 다른 시민운동단체와 달리 “성명서를 낸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입장을 표방한다(박원순·지승호, 2009: 323). 대신, ‘혁신적 시민’이 써야 하는 것은 기획안이다(박원순 2010: 143). 기획서 쓰기는 성명서 쓰기와는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과 역량을 요구한다. 글쓰기 방식의 차이는 이들을 다른 시민으로 만들어낸다. 성명서 쓰기가 청자에 대적해 권리와 의무의 언어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기획서는 청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성명서가 권력을 규탄한다면 기획서는 권력을 해아린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자신의 정체성과 향후 계획을 서사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서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전달력 있게 발표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기획안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박원순, 2010: 146). 기획자로서 시민은 주어진 시간과 분량 내에서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서울혁신파크의 입주단체 심사나 공모사업의 경우 2차 심사는 피피티 발표로 치러진다. 파워포인트는 주어진 시간 안에, 권력의 요구에 맞추어 청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는 말하기와 글쓰

기를 훈련시킨다. 긴 호흡의 줄글로 쓰여 지는 성명서와 달리 파워포인트는 -음,-슴과 같은 짧은 문장과 단편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고가 조직된다. 이에 더해 폰트 크기, 사진, 일러스트와 같은 가독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기술들, 단시간에 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방식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동시에 기획력은 무엇보다 제한된 기한 내에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해내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동원 전략을 수립하며, 결과물을 구체적인 콘텐츠의 형태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프로젝트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분절된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순간 순간의 과업이다. 기획자는 분절된 기간 내에서 과업을 몇 가지 단계로 쪼개어 나누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이에 걸맞은 실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이러한 기획력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훈련장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가 선정된 시니어들은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에 참여한다. 참가생들은 멘토들의 조언 속에서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점검하면서 “소셜 미션을 확인하고 구체화 한 후”, “아이디어를 액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팁을 제공” 받으며, “미션”과 “추진 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다.⁹⁵⁾ 이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청년 파트너가 선정이 된 이후에는, “합의된 팀 비전과 미션, 10주 일정과 목표, 예산”을 정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각 팀의 개성이 녹아든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⁹⁶⁾ 이러한 워크숍과 발표를 통해서 프로젝트 실행 전반 -전체 계획 대비 실행 속도, 예산, 목적에 맞는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러한 훈련들 속에서 시민은 주어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산, 조직할 수 있는 합리적 수행능력의 담지자로 거듭난다.

(3) 재미라는 규율

창의적인 운동은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창의적인 시민은 무엇보다 재

95)김가윤, 「이런 사회공헌 축제 어떤가요?」, 『희망제작소』, 2013.07.02.

<<http://www.makehope.org/시니어시니어/>>

96)김수현, 「생기발랄 시니어와 청년들을 만나다」, 『희망제작소』, 2013.08.07.

<<http://www.makehope.org/생기발랄-시니어와-청년을-만나다>>

미있게 사회변화에 임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불만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불만합창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만들을 노래로 만들어 합창을 진행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의견을 “폭력과 투쟁 없이도” “노래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사례로 소개된다.⁹⁷⁾

그러나 자발적 재미를 운동의 핵심적 원동력으로 강조하는 통치의 실천은 특정한 미적 취향이나 감정적 태도는 권장하는 동시에 다른 태도는 배제하는 규율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데모나 투쟁과 같은 전통적인 참여의 방식을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프레임하면서, “평화적이고 재미난 방식”에 규범적 우위를 부여한다. 불평불만의 “부정적인 기운”은 합창과 재미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박원순, 2010: 221-223). 불만 합창단을 소개하면서 박원순은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과격한 시위나 데모, 폭력적인 언사와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평화적이고도 재미난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 요구의 효과는 미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서양의 집회나 시위가 축제와 같이 온 가족과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언론의 관심과 관련 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⁹⁸⁾

박원순에게 있어 “평화적이고 재미난” 시위 방식이야말로 “보편적”, “미적 감각”에 기대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인 합리성”을 갖춘 설득의 방식으로 표상 된다(박원순, 2004b: 209). 이러한 미적, 감정적 규율의 실천들은 과격한 시위나 데모 등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배제 시키면서 긍정, 재미, 유쾌함 등을 사회변화에 필요하고 권장되는 감정으로 동원해낸다.

97)희망제작소, 「우리는 불만을 통해 소통했다」, 2008.10.13.

<<http://www.makehope.org/>우리는-불만을-통해-소통했다/>

98)희망제작소, 「자료집 불만합창 페스티벌」, 『희망제작소』, 2008.10.23.

<<http://www.makehope.org/>불만합창-페스티벌-자료집>

4) 소결 : 적대 없는 저항

본 장에서는 ‘혁신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일별하고 그 주체화의 논리를 분석해보았다. 희망제작소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서울혁신파크는 다종다양하면서도 일관된 주체를 만들어낸다. 이 때 형성되는 개인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해내면서 자조(self-help)를 통해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을 떠맡는 ‘자발적 시민’이자, 사심 없는 순수함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보편적 합의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민’이자, 재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기획 하는 ‘해결사 시민’이다. ‘사회 혁신’ 역시,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기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생산의 장치는 기존의 운동이 담지해온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재편한다. 정치는 ‘역량’의 언어, ‘윤리’와 ‘합의’의 언어, ‘새로움’의 언어로 번역된다. 이러한 언어들은 한편으로 ‘90년대 식 시민운동’과 공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들보다 한발 더 갈등이나 적대의 원리를 주변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혁신적 시민’을 생산해내는 담론과 장치들은 사회 변화를 그 누구도 불편하게 하거나 타격하지 않는 과정으로 만든다. 역량의 언어는 권력을 뺏고 뺏기는 게임이 아닌, 무한히 상호 증식되는 것으로 표상한다. 윤리의 언어는 권력 싸움 그 자체를 지양하거나 숨겨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합의의 언어는 화해될 수 없는 차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한편, 새로움의 언어는 기존 운동을 낡은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직접적 갈등을 우회하는 해법을 ‘참신함’의 이름으로 고안해내게끔 한다. 사회변화가 적에 대적하기보다 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되고, 순수한 의지에 의해 모두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기존 운동과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과 등치될 때, 이들이 담지한 사회적 상상에서 적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권력의 요구가 언제나 매끄럽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의 과정은 갈등, 경합, 모순, 불안정성으로 특징 지워져있다. 행위자들은 통치의 전략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 전유, 교섭, 성찰 하면서 통치 권력이 요구하는 시민이 되어가거나 되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치 전략은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고 성찰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시민들에 의해 혁신적 시민성이 수행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IV. ‘혁신적 시민’의 수행

앞 장에서 우리는 박원순·희망제작소·서울혁신파크에서 생산된 담론들과 장치들을 통해 ‘혁신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통치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치 실천에 대한 분석은, 그 대상인 시민들이 스스로의 실천을 서사화, 의미화 하는 방식과 결합되었을 때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통치 권력은 의미 자원을 공급하고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지만, 그 요구가 매끄럽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의 과정은 언제나 “갈등, 경합, 모순, 불안정성으로 특징 지워져있다(McKee, 2009: 474; 박중현, 2010: 9 재인용).” 행위자들은 통치의 전략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 전유, 교섭, 성찰 하면서 통치 권력이 요구하는 시민이 되어가거나 되기를 거부한다.

‘혁신적 시민’에게 있어 통치의 언어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시민/활동가들의 기본적인 지향을 형성해낸다. 동시에 이러한 지향들은 다른 실천들과의 구별 짓기 속에서 강화되며, 특정한 당면 문제들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되고 교섭된다. 본 장에서는 시민 만들기의 실천이 시민 되기의 실천과 맞물리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⁹⁹⁾

1. 통치의 수용 및 꿈꾸기

‘혁신적 시민’들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본 절에서는 이를 꿈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해보고자 한다. 통치의 언어는 이를 수용하는 개인들의 문제의식, 삶의 경험들과 교차하면서 행위자의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지향을 구성해낸다(김홍중, 2015: 41). 이 집합적 지향을 우리는 꿈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꿈의 양상을 크게 1)주체적 삶에의 꿈과 2)공동체에의 꿈 그리고 3)사회변화의 꿈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99) 본 장에서 직접 인용된 인터뷰 문구의 모든 강조 표시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1) 주체적 삶

(1) 자아실현

‘혁신적 시민’을 추동하는 강력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에 대한 열망이다. 진정한 자기에의 추구, “타율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이상에 충실”한 삶에 대한 꿈은 이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된 원동력이다(김홍중, 2016: 204). ‘진정한 자기가 되라’는 명령과 ‘주체적 시민이 되라’는 명령을 결합한 통치의 전략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참여를 언제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행복, 기쁨, 욕망과 결부지어 서사화 한다. ‘혁신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란 그 자체로 온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혁신센터에서 공개하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인터뷰들은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서술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에게 활동은 그 자체로 “먹고 사는 일의 불안”에서 벗어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즐거움”의 추구, ‘스스로’의 “재미”에서 기인한 “천직”, “온전한 내가 되는 느낌”,¹⁰⁰⁾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으로 서있기”¹⁰¹⁾ 위한 과정 등으로 표현된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운동이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동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나는’이라는 주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¹⁰²⁾

이렇듯 ‘자기’를 주어로 하는 서사화 방식은 인터뷰이들의 응답 속에서도 관찰된다.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사회혁신’의 의미를 스스로의 ‘행복’, ‘재미’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혁신’이란 큰 돈을 벌거나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아도 “저 나름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진 삶의 지침 (A, 남, 30대 중), “하고 싶은거” 하는 것(U, 남, 30대 후),

100)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단어 8,9,1013」,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category/park-platform/page/4/>>

101)백난희, 「서울혁신파크 런칭이벤트! 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⑤ 숲밧줄놀이 콘텐츠 개발/실행 그룹 '시소' 김명은, 이홍우 대표」, 『서울혁신파크블로그』, 2015.07.13.

<http://s_innopark.blog.me/220418788589>

102)라현윤, 「런칭이벤트! 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①] 전자책 출판협동조합 톨링다이스 '제현주' 대표」, 『서울혁신센터』, 2015.05.26.

<http://s_innopark.blog.me/220370251798>

온전히 내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일 (P, 남, 20대 후) 등으로 표현된다. F(남, 30대 후)의 서사는 특히 이를 잘 보여준다.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 스쿨 수강생인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작은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사업은 제도적으로 공인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아니나 “사회적 미션”과 가치를 기업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F는 스스로를 사회적 기업가로 의미화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혁신적 시민’으로서의 삶은 스스로의 행복을 중심으로 서술 된다. 그 어떤 것도 자신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 둔 후 행복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다가 “나만이 아닌 남에게 어떤 소중한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잊혀 지지 않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계기는 어떤 외부에서 오는 사명감이나 명예 이런건 아니구요(...)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씨앗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하더라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 행복의 극대화예요. 제 삶은.** 남이 제 삶은 아니고 그죠? 이 회사도 저에 우선하지는 않아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 이 회사를 만들고 일을 하는거지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걸 해야한다면 이 회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직장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한 일년 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도 하고 누구나 하는 왜 사는 가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남들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찾았죠. **그래서 내린 확고한 결론은 나는 앞으로 미래에도 꼭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이 아닌 남에게 어떤 소중한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나의 행복이 오래가는 잊혀지지 않는 행복이더라.** 내가 잠깐 돈을 많이 벌고 뭘 얻고 그러면 잠깐 기쁘지만 그건 나중에 돌아보면 기억도 안 나는 순간의 쾌락이나 기쁨들이었고. (...)어릴적 인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을 때나, 안 그래도 되는데 넘어진 누구를 일으켜줬을 때나 정말 아무 대가가 없을 때도 누군가 위해 뭔가를 해줬을 때 그런 보람과 기쁨이 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게 의미있는 일이고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렸죠.** (F)

이렇듯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는 ‘혁신적 시민’들에게서 보여지는 주된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단순한 나르시스트적 주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남에게 소중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일과 연관 짓고 있는 F에게서 보여지듯, 자기와

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Feher, 2009: 37).

<소셜 디자이너 스쿨> 수강생인 C(남, 30대 초)의 서사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학생 때 우연히 <소셜 디자이너 스쿨>을 수강한 후, 지금은 홍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수강을 신청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서사는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는 동시에, 다시 사회로 확산되어 나가는 수렴-확산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사회변화는 “나라를 바꾸겠어”가 아닌, ‘나’부터 행복해 지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개인은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종착지는 아니다. 그 고민은 개별적 삶의 행복을 경유해 다시 사회를 향한다. 스스로 즐거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다단계처럼” 다른 이들로 확산되어나가는 것, 그것이 이들이 꿈꾸는 사회 변화의 상인 것이다.

제 주변을 바꾸려면 저부터 바뀌야 하는게 선행이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봤을 때 야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어, 이 세상을 바꾸겠어 이러다가 한 사십 좀 지나니까 아 나라까지는 안 되고 동네를 바꿔보자. 동네까지도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부터 바꿔보자. 아 그게 아니고 더 지나갔을 때는 내 가족부터. 마지막에 거의 생을 마감할 때 돼서야 깨달은게 아 나부터 바꿨었더라면. 그래서 나부터 바뀌면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 최용주가 왜이렇게 기쁘지, 즐거워하지’ (..)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게 이런 거고 그걸 통해서 좀 즐거워.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거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단계처럼 스스로 먼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직접 찾아오게 하는게 마케팅이고. 그런 것들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퍼지고 곳곳에 퍼질 때 정말 척박한 땅에도 퍼지고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거기서도 하게 되고.(C)

(2) 자발적 시민

온전한 자기가 되는 삶에 대한 이상은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시민에 대한 이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물론 어떤 시민들은 이러한 기획이 가지는 보수적 효과를 지적하며 프로그램으로부

터의 이탈을 고민하기도 하지만¹⁰³⁾,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이 되라’는 통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전가하는 듯 보이는 이러한 요구가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들이 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의미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자조(self-help)의 행위는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쟁이자 독점의 질서를 전복하는 민주주의의 기획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행위자들은 때로 스스로의 행위에 통치의 의도보다 더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B(남, 40대 후)와 O(여, 20대 초)의 서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소셜 디자인’ 혹은 ‘사회혁신’의 프로그램은 국민들을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소 돼지”로 보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에 맞서는 일이자, 스스로를 무기력하지 않게 하면서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정치적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B(남, 40대 후)는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권유로 <소셜 디자이너 스쿨>을 수강하였다. 그는 종강 워크숍에서 도시농업으로 기른 채소를 팔아 수익 구조를 만들고 이 수익금을 동네 독거노인이나 어린이집에 기부하는 가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수강 이후에도 그는 이를 직접 실현해 보기 위해 희망제작소에 자리를 얻어 활동하면서 동네에 가게를 내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내 “열정”, “의지”, “즐거움” 등의 언어를 동원해 스스로의 활동을 설명하는 그에게 있어 ‘소셜 디자인’은 국민들을 먹고 사는 일에 바쁜

103) 서울혁신파크 <리빙랩>에서 진행한 공유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한 N(남, 30대 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공유주택이란 하나의 주택을 개조해 여러 명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원자화된 도시 생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이다(서울혁신파크, 2016: 118). 그는 O(여, 20대초)와 함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직접 공유 주택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공유주택이 기실 주거 문제의 원인인 소유 구조의 불평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자조(self-help)적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기획이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적극 동의를 표한다. 공유주택 사업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더 알아보고 공부할수록” 이것이 주거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공유주택은 권력관계의 불평등 즉,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는 해법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그로 하여금 통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이탈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렇듯 “주택을 마구잡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작게 작게” 이루어지는 “공유주택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광장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소 돼지”로 보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에 맞서는 일로 의미화 된다. 소셜 디자이너와 같이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더 낮게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선을 통해 기득권을 타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지만 처음부터 “불만만 이야기하면 저항도 거세고 (...)온갖 불만에 가득찬 사람들 이렇게 치부되어 버리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일반 서민들이 (...)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서 공익을 생각하”도록 하는 ‘소셜 디자인’과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슷한 태도가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실험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유주택 실험에 참여한 O(여, 20대 초)에게서도 발견된다. 청년 주도의 공유주택 설립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던 그녀는 공유주택이 직접적으로 주거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득권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상호부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탈정치적인 기획이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유주택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 역시 효과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녀 역시 B(남, 40대 후)와 마찬가지로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선을 통해 기득권의 특혜를 제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O에게 있어 이것은 제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표상된다. 이들에게만 문제의 해결을 맡기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게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해법들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징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사람들에게 다소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가운데서 공유주택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유주택과 같은 사업들은 주택 시장을 자유롭게 방임해버리려는 ‘뉴스테이법’과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쌓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유주택은 O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발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일, 기동전은 아니지만 진지전의 형

태를 떼 투쟁으로 이해되고 있다.

B(남, 40대 후)와 O(여, 20대 초)에게 있어 공유주택이 그 자체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해법은 아니지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상된다면 어떤 이들에게 자조의 기획은 그 자체로 권력 독점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로 의미화 된다.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리빙랩> 사업의 매니저를 담당하게 된 K(여, 30대 초)에게 있어 공유주택은 그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정치적 해법”이다.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이야기 하는 그녀는 공유주택의 핵심은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산다 ”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 금융 네트워크를 조직해 시민들 스스로 “돈을 모아보는 경험치”를 쌓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치적 저항으로 의미화 된다. 이것은 혁신파크에 게재된 인터뷰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령, 적정기술을 활용해 생태주택을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산업자본주의가 독점해버린 기술을 다시 사람이 갖고” 오는 행위로¹⁰⁴⁾,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를 만들어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기 공급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로 의미화 된다. 시민햇빛발전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입주단체 활동가는 센터와 진행한 인터뷰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생협에 가면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할 수 있듯 전기도 사용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기 공급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야죠.** 적어도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 없는, 그리고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바람은 조합원들이 1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월성 핵발전소에 가서 인간 띠를 두르고 ‘핵발전소 빨리 폐쇄하자’ 외치고 싶어요.** 진부할지 몰라도... 꼭 한 번 해 보고 싶어요.¹⁰⁵⁾

104)문하나, 「혁신가의 자리 01-함승호의 적정기술공방」,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4.20.

<<http://s-innopark.blog.me/220688816513>>

105) 문하나, 「혁신가의 자리 07-박규섭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9.27.

<<http://s-innopark.blog.me/220688816513>>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자조의 기획은 독점적 생산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핵발전소를 봉쇄하는 보다 전통적인 투쟁의 행위와 불가분으로 얽혀 있다. 이들에게 있어 권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행위와 이를 우회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는 배타적이기 보다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조와 협력의 담론이 “국가나 자본의 동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탈 정치화된’ 기획이라는 주장은(김성운, 2013: 23-24) 과도하다. Needham(2016: 103)과 Muehlebach(2012: 193)가 지적하고 있듯, 자조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역사와 계보 그리고 지향을 포함한 다의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열망과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묘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혁신적 시민성’의 생산은 분명 신자유주의적 자기 책임화의 논리와 공명하거나 조우할 위험이 있지만, 이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능동적으로 책임을 떠맡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비판적 공격과 성찰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시민들에게 있어 자조(self-help)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획이자,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의 형태로 계속되는 투쟁이자, 권력 독점에 저항하는 길로 의미화 된다. 이들에게 투쟁은 포기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이 다각화 된 것에 가깝다. 이렇듯 통치 기획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적 가능성은, ‘혁신적 시민’이라는 이상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공동체

온전한 자기이자, 자발적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지향은 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꿈과 연결되어 있다. 본 항에서는 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파크라는 공간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집합적 지향을 살펴본다. ‘협력’은 통치 권력이 단체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적 덕목이자 역량인 동시에, 입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꿈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있어 파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하고 (Q, 남, 50대 초), 건물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R, 여 30

대 후), “변화의 서클을 만들고”,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 될 수 있고,¹⁰⁶⁾” 서로 다른 주체가 만나 융합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¹⁰⁷⁾ “ ‘서로 가진 걸 믹스했더니 재미 있는게 만들어졌어!’ ” 라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¹⁰⁸⁾공간에 대한 기대는 이들이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된 주된 동기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입주단체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체들에게 있어, 혁신파크는 다른 이들과의 협업 속에서 혁신의 꿈을 이뤄나갈 공간이기보다는 그저 저렴한 임대 공간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의 꿈을 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많은 입주단체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절감하고 있다. 이 안에서조차 지향과 신념이 각양각색이라 “소통과 대화가 잘 안 되는” (Q) 상황이 다반사이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 이상의 여력을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크가 개소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이들은 서로를 “한 가족처럼 느끼” 기보다 아직 서로 “눈치” 를 살피는 “대규모 아파트 주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P, 남, 30대 중). 시간이 지나면서 파크 내에서는 파크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파크라는 공동체에 대한 꿈은 입주단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강렬한 지향점이기 보다는, 입주단체에 따라 ‘취사선택’ 이 이루어지고 있는 꿈에 가깝다.

“오히려 모두가 다 각각 내가 서울혁신파크에 있어라는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래청 안에만 해도 아나 혁신파크에 있어 라는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단체가..있는가하면 오히려 굉장히 더 자리 잡았고 경력이 있을수록 굳이 혁신파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대외적으로 어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리에 있는 팀들도 많아요 그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혁신파크의 주체다 아니다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지.. (V,여,30대 중)

106) 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단어 #001 유기체/ 세모돌 하재웅」,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5/12/08/innovator-word-organism/>>

107) 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단어 #004 융합 / 창의공작소 송미숙」,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5/12/08/innovator-word-fusion/>>

108) 서울혁신파크, 「혁신가의 단어 #015 퍼즐 / 가치성장과 치유센터 백윤영미」,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2015/11/24/innovator-word-puzzle/>>

그럼에도 어떤 이들에게 있어, 이 공간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그 자체로 스스로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핵심적 원동력이기도 하다. V(여, 30대 중)와 U(남, 30대 후)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입주단체이다. V에게 혁신파크는 “세상에 고군분투하고 있는게 꼭 나밖에 없는 것 같았”던 세상에서 “고립감”을 없애 준 곳, 같이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으로 표상된다. U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 만연한 “갑을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협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에 사회적 경제를 “기웃”거리다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파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휩쓸려 살아갈 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용어들, 단어들, 관점들이” 존재하는 곳, 비슷한 지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내 소신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는 그것이 비록 “가시적인 성취”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다.

뭐가 즐겁냐 그러면 내 소신을 여기서 펼쳐 보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딱히 당장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건 없지만. 계속 그런 실험들을 하고 대화들을 하고 이상적인 논의들을 하는 동료들이 여기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인 의미가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소소하게 친한 단체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우리는 여기 와서 만난거고 만난 이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잘한 일들은 계속 같이 도움을 주고 서로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들은 성과로서 밖에 내놓지 못하잖아요. 성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거죠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이 안에 되게 많아요. 이 안에. (U)

3) 사회 변화

‘혁신적 시민’들에게 있어 활동을 추동하는 또 다른 강력한 원동력 중 하

나는 곧 사회 변화에 대한 꿈이다. ‘소통’과 ‘협력’ ‘공동체’와 같이 통치 프로그램에 의해 제시된 언어들은 행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이들이 꿈꾸는 사회 변화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지향이 모두에게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통치의 언어는 개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문제의식과 맞물려 다양하게 전유되면서 각기 다른 지향을 만들어낸다. 본 절에서는 ‘혁신적 시민’이 지닌 사회변화에 대한 꿈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념형, ‘온정주의에 입각한 윤리’, ‘수평적 관계에 입각한 연결’, ‘갈등적 연대에 입각한 저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군의 시민들에게 있어 사회변화는 온정주의적 윤리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연대란 ‘약자’에 대한 나눔, 기부, 도움, 자선 등과 등치된다. 이들에게 사회 참여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 주”는 일(E, 남, 50대),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는 행위”, 아이들에게 “경험을 주는” 일(F, 남, 30대 후)과 같이 주로 ‘-해주는’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 이들이 표상하는 연대는 보편적인 권리의 평등보다는 다른 이를 위하는 개인적 배려심에 입각한 감정적 연대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사회 변화의 주된 초점은 윤리적 개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에 맞춰져 있다. 이들에게 사회 문제는 구조적 시스템의 모순보다는 개인적 윤리의 부재로 해석된다. 이들은 사회를 선과 악, 도덕과 탐욕, 협력과 경쟁으로 이분화 하는 통치의 언어를 적극 전유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시민들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다. 이들은 “먹방”, “걸그룹”, “스포츠”, “섹스”와 같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에 탐닉하는 시민, “세금을 냈으니 치워주는 것은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커피잔을 아무데나 버리는 시민(E, 남, 40대 후), 가난한 임대 아파트의 아이들을 차별하는 주민(Q, 남, 50대 초), 크고 안락한 차를 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민, 경쟁을 통해 이기려고만 하는 시민(F, 남, 30대 후)등 부도덕한 시민들에 대한 비난 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 한다. 이들은 도덕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체화한 윤리적 개인들이 형성될 때에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한다. 이 때 형성되는 도덕적 시민이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거나” 크고 안락한 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전기를 절약”하는 등, “서로 같이 존재하는데 누가”(E)되지 않는 법을 학습한 규율된 존재들이다.

가령 F(남, 30대 후)에게 있어 사회 변화는 “슈퍼맨”과 같은 소수가 아닌, “개미처럼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따따” 해내는 평범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진다. 그는 “일분일초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도덕적 개인들이 출현할 때, “변질된 자본주의”를 “공생을 위한 자본주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E(남, 50대 초)역시 비슷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에게 있어 노동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 모순이 아닌, 사회적 의식의 부재로 문제화 된다. 기업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배우지 않고,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에 의해 의식화”되다 보니,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극단까지 몰”아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존”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의식화” 교육이다. 요컨대 그에게 있어 도덕 교육은 그 자체로 계급적 적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표상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는 F(남, 50대 초) 역시 “성숙한 시민사회교육”을 사회 변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난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악마다. 내가 뭔가를 도와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뮤지컬 극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협력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착되었을 때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부조리가 더 큰 문제인 것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F는 그 문제 역시 개인의 의식 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부자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 한 아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다른데 투입될 수만 있어도, 우리 사회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도덕 교육을 강조하는 인터뷰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가적 윤리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서의 자생을 하나의 정언명령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사회 변화에 대한 이들의 상상은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시장에서의 생존이 스스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줄 아는 유능한 개인의 몫이듯, 시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역할 역시,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줄 아는 도덕적 개인의 몫으로 환원된다.

둘째, 일군의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 변화의 상에서는 수평적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중시된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연대란 주로 ‘생산자-소비자’, ‘파트너 쉽’과 같이 대등한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나 교환의 네트워크로 표상된다. 공정 무역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R(여, 30대 후)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담지자라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 제 3세계 생산자들은 협업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 표상된다. 그녀의 꿈은 “왜곡된 시장구조”를 교정해, “생산자 파트너”들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구조의 개선을 겨냥하면서,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온정에 기댄 단순한 자선과는 구분된다. ‘파트너 쉽’은 인터뷰 내내 V(여, 30대 중)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녀는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입주단체들과 혁신센터 그리고 서울시 간에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파트너 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일군의 입주단체들이 주장하듯, 단순히 서울시에 “강하게 어필하”기만 해서는, 시 당국이 우리를 단순한 “민원인” 이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다. 사회문제는 소통의 부재, 혹은 연결의 부재로 문제화 되며, 섹터와 섹터, 수요와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 진보와 보수,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반목하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꿈꾸는 변화의 핵심에 놓인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창업하여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된 J(남, 30대 중)는 이러한 연결의 윤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혁신’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정의를 수용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 ‘사회혁신’이란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협력과 융합을 통해 “사회적인 중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비슷한 사고방식이 J와 함께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G(남, 30대 중)에게서도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안 들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 이러한 극단성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뭘 얘기하는지 토대와 다리가 되어주어야 할 집단”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양극화도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양극화가 되게 크고. 가령 이제 보수와 진보, 정당으로 놓고 보자면 제 3당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정치적인 의견 대립에 있어서 또는 소셜 미디어 안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걸 보면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저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너무 이 중간에서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뭘 얘기하는지를 토대와 다리가 되어주어야 할 집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안 들으려고 하는. 저도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중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줘서 각자 소리를 좀 내고 그걸 서로 들어야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좀 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G)

비슷한 태도가 R(여, 30대 후)에게서 반복된다. 그녀는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와 빈자, 시민운동가와 기업 등 양극화 된 세계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에 있다며, “합리적인 토론 문화”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들의 이상은 때로 행위자들이 놓여 있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지형을 지나치게 평평한 것으로 환원하는 착시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들이 말하는 수평적 연대는 종종 형식적 평등의 원리로 실질적인 불평등을 비 가시화 한다. 제 1세계 국가의 국민과 제 3세계 국가의 국민이 윤리적 연대에 입각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표상될 때, 이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은 괄호에 묶인다. 행정과 시민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 파트너십의 구축으로 이야기 될 때, 소통의 코드와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행정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행정이 제시한 요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만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주변화 된다. 진보와 보수가 연결되어야 할 ‘차이’로 표상될 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관계가 불평등한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주변화 된다. 또한 이들이 꿈꾸는 사회적 상상에서 소통의 윤리로 봉합될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적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 시민과 행정, 운동가와 기업가 사이에 놓인 적대가 ‘보편성’을 담지한 개인들 간의 소통으로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요컨대 ‘수평적 상호작용’과 ‘연결’을 핵심적인 윤리로 하는 이들의 사회 변화에 대한 꿈은 때로 불평등과 적대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일군의 시민과 활동가들에게 있어 사회 변화는 갈등적 연대에 입각한

저항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들 역시 수평적인 관계 맺음을 중시하지만, 이러한 지향은 권력관계와 적대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 구분된다. 사회참여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P(남, 30대 중)의 경우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공론의 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활동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 때의 수평적 공동체는 권력을 가진 시스템에 맞서 ‘우리’를 구축하는 저항적 연대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가 농민들과 연대하는 장소는 윤리적 시장이 아닌 시위 현장이다. 한편으로 시위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끌어내는 만남의 장이어야 한다고 보는 그의 태도는, 집회는 무엇보다 적에게 “대규모의 힘을 보여주는” 장소여야 한다고 믿는 기존의 운동 단체들과 미묘한 의견차를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투쟁의 현장을 지키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운동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사회 혁신의 핵심은 기존의 시스템과 맞부딪히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서울 살면서도 매주 강정에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보다 “감탄사 나오는” ‘혁신’의 사례로 꼽는다.

요컨대, 통치 프로그램이 제공한 협력의 언어는 개인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가치 지향과 맞물리며 다기한 사회 변화의 꿈을 형성해낸다. ‘혁신적 시민’이 담지한 공동체의 상은 개인의 윤리에 호소하는 온정주의적인 것에서부터 시스템 변혁을 꿈꾸는 급진적 저항의 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다. 각기의 상은 때로 공존하고 때론 상충 하면서, 통치의 프로그램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통치의 언어가 개인에 따라 폭넓게 전유될 수 있다는 것, 서로 상충되는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혁신’이 가진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에게 두루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상충하는 가치들을 정리해줄 수 있는 중심이나 일관된 지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이기도 하다. 이 때 이들이 담지한 다양한 지향들은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될 뿐, 접합 되어 하나의 공통된 비판의 기획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구별 짓기

앞서 우리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통치의 의미론을 수용, 전유하면서 개인적인 동시에 공공적인 지향을 구축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들의 지향은 다른 실천과의 차이 속에서 구축된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장 안에서, 기존의 운동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별짓기의 실천을 민주/반민주, 순수/비순수, 강박/재미, 거창함/소박함, 유연성/경직 등의 코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민주 vs 반민주

먼저 ‘사회혁신’을 수용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은 기존의 운동을 집단 중심의 획일적이고 계몽적인 것으로 표상하면서 개인, 다원성, 그리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스스로의 활동과 구별 짓는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의미론은 다원성/획일성, 개인/집단의 이분법이다. 이 때 기존의 운동은 “집단화해서 권력을 형성하는”(K, 여, 30대 초)운동, 개인이 “집단의 행동대원”으로서 “헌신”해야 하는 “강압적”인 운동(M, 남, 40대 초)으로 표상되면서,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혁신’과 대비를 이룬다.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프로젝트 이런 방식으로 집단이 아니라 **소소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개별화된 방식으로 변화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커진게 아닌가하는, 그리고 모두가 예전에는 **민주노총 이런 조직들은 집단화를 해서 권력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원오브템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 든요 (K)

또 하나 두드러진 이분법은 계몽/소통의 이분법이다. 빈번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구별 짓기에는 기존 운동의 소통방식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담겨 있다. 이들의 서사에서 기존의 운동은 “깃발과 플랜카드를 드는데 익숙한”(P, 남, 30대 중)운동,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끌려 가는” 방식(A, 남, 30대 중), “상명하달”(B, 남, 40대 후)식 소통 구조 등과

동일시되며, 이에 비해 사회혁신은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연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활동(A),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활동(B) “한 사람이 열 걸음 먼저 달려가서 ‘여기로 오세요’라고 외치는 운동방식”이 아닌, “열사람이 한걸음씩 같이 나가도록 보조를 맞추”는 운동¹⁰⁹⁾ 등으로 표현 된다.

이렇듯, 기존의 운동은 ‘획일적’이고 ‘집단적’이며 소수의 조직화된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표상되면서, 다원적이고 개인을 존중하며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존중하는 새로운 움직임과 대비를 이룬다. 한편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요구하는 ‘혁신적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그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시대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원성과 개별성의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이들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운동이 담지해온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주변화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때때로 이들이 옹호하는 다양성의 윤리는, 구조적 억압과 적대의 문제를 단순히 존중되어야 할 차이로 치환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E(남, 40대 후)의 다음과 같은 서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만큼은 더더욱 그렇게 되어야 돼요. 노사 분규 있으면 다 빨간색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용노조도 있어야죠.** 저는 타도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다,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다 획일화 되는 것.** 아닌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만 명 중의 최소한 5천명은 아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저건 어용 노조 타도의 대상 다 때려 부수고 말이 안 되죠. 그들은 그 생각이 있는거예요. 물론 사주를 받은 어용노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들의 생각인거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정리 되고 자연스럽게 가뤄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막 공산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닌데 너무 획일화되는 것 그거는 사회가 아니라고 봐요. (E)**

그는 어용노조를 무조건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노동운동이 가지는 ‘획일성’을 “다양성”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윤리를 내세워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를 존중해야 할 동등한 ‘차이’로 치환하는 그의 논리는, 이들 사이에 얽혀 있는 권력관계를

109)문하나, 「혁신가의 자리 02-이박광문의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서울혁신파크블로그』, 2016.05.03.

<http://s_innopark.blog.me/220700501640>

주변화 하는 반민주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어용노조가 세워진 배경에 민주노조에 대한 권력의 가혹한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단순히 존중되어야 할 동등한 차이로 환원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동등한 인정은 그 자체로 권력관계의 지배를 유지하고 승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가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J(남, 30대 중)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2008년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조직의 미션은 거리에서 무브먼트를 만들어 내거나 리드하는 조직이 아니고 애드보커시 단체가 아니에요.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이고 실사구시적인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런 무브먼트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중간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업이 아닌데 업무로서 그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사회구성원이고 시민이니까 동감한다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막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단일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고 일관되게 모든 직원들이 가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거는 전형적인 애드보커시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 중심으로 재야 운동 단체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체성을 계속 확일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봐요. (J)

J는 희망제작소가 촛불집회에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든 사람들이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근대적” 이고 “확일” 적인 사고로 의미화 하고 있다. 그는 다양성의 윤리에 입각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개인과 조직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다원성의 존중이 아닌 억압적 권력에 맞서 단결하는 연대의 행위로 정의 한다면, 다원적 역할분담을 이유로 연대에 동참하지 않은 희망제작소의 행보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인 효과를 낳는다. 적에 맞선 단결된 전선의 형성을 “확일” 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이들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 - 연대의 정치를 주변화 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적 다원주의는 비단 다른 운동과의 연대뿐 아니라 혁신 활동가들 스스로 단결해 민주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다양성이 입주단체를 모집하는 핵심적인 기준이었던 만큼, 혁신 파크 내에는 각양각색의 지향과 색깔을 가진 단체들이 ‘혁신가’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기함은 이들이 한목소리로 규합해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정한 타자에 대한 인정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 이 된다는 점에서, 입주단체가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신념들이 “한 지점으로 타협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U, 남, 30대 후). 다원성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 존중은 때로 스스로의 민주적 권리의 쟁취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이 ‘우리’로 규합되지 못할 때, 행정에 맞서 한 목소리로 평등이나 자율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원주의를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요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원성은 때로 일정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 ‘혁신적 시민’들은 다원성과 개별성을 억압하는 집단화와 조직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지만, 일정 정도의 조직화와 집단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이들의 활동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¹¹⁰⁾¹¹¹⁾

한편, 계몽과 소통의 이분법 역시 마찬가지로의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기존 운동의 수직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그 나름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통한 민주주의는 때로 대중들을 변혁적 전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지성주의적 움직임과 묘하게 공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M(남, 40대 초)은 농촌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 레스토랑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던 자신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대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표상하면서, 기존 시민운동가들의 “계몽”적 태도와 구별 짓는다. ‘요리 솜씨’라는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을 발굴해, 레스토랑을 만들었던 실천은 그 자체로 “우

110) 이것은 혁신파크 내 운영전략과 관련한 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실은 저는 그 현장이라고 얘기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라고 보여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화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더 크게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회 변화시켜 나가는 같은 무리라고 생각 하는게 이 안에 있어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들 안에서 본인이 사회혁신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한국에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작은 소셜 클럽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힘의 부재인 것 같아요(비영리it 지원센터, 2016: 5).

111) 그리고 이렇듯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소통의 윤리’ 속에서 평화롭게 합의로 이행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과정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은 특정한 요소를 ‘우리’의 경계안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다른 ‘정체성’은 배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다원성이 조화롭게 합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태도 역시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리가 안 좋다고 무식하다고 천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과 “삶의 기술”에 주목하고 이에 “인정”을 부여하는 일로 표상된다. 그는 농촌 할머니들이 “먹고 살려고 쌓아온 기술”들을 인정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스스로의 태도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공급하는 시민운동가들의 “계몽”적 태도를 구분 짓는다.

아까 말한 80대 할머니들이 학습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80대 할머니가 그만큼 많이 배운거라는거. 많이 알고 많이 살았구나. (...) 할머니들하고 맨날 얘기하다보면 나보다 많이 알아요. (...)그니까 할머니들이 재능이 하나씩 있어. 몇 십년간 내가 먹고 살려고 쌓아온 기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하죠. 마을 만들기 하니까. 그것부터 정리 하는 게 맞아요.(...) 소셜디자인너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찾아내서 연결 시키는 게 소셜 디자인너예요. 새로운 걸 공급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

우리는 마치 (...)연구자들이 새로운 이슈를 좇아서 공부 하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그러길 바래. 그게 계몽적이고. 그 사람들이 연구자가 될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은]연구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좀 더 안정되게 유지하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은 사회를 혁신시키고 싶지 않아. 당신 아버지 어머니 막 사회 혁신시키고 싶어하세요? 아니죠? 지금보다 좀 덜 걱정하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믿으면서 살길 원하시죠. 왜 근데 시민운동가들도 계속 시민들을 계몽하고 교육 시켜? 그러니까 더 꼬여지는거지. (M, []은 인용자)

M에게 있어 농촌의 할머니들은 더 이상 “계몽”이 필요치 않은 존재들로 표상된다. 그들은 인생 경험 속에서 축적된 삶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인 동시에, 그저 “지금보다 덜 걱정하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믿으면서 살길” 원하는 소박한 꿈의 담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 대중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을 넘어서, 이들이 “사회를 혁신”시키는 새로운 존재가 되길 바라며 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교육 시키는 기존 운동가의 태도는 ‘계몽’적인 것으로 의미화 된다.

그러나 M에게 있어 “사회발전 속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도태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해되는 이러한 태도는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기존 자원배분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종속된 주체로 조형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들의 ‘요리 솜씨’

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삶의 기술’이나 ‘재능’으로 의미화 될 때, 그것이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던 가부장적 질서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주변화 된다. ‘재능’의 분배는 그 자체로 구조적 권력관계의 산물이다. 이러한 실천은 할머니들이 그 ‘재능’ 밖에는 습득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를 비가시화 하면서, 이를 할머니들에게 귀속된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환원 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촌마을의 할머니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재능을 ‘자산’으로 활용해 레스토랑을 경영하도록 만드는 실천은, 고객만족경영, 품질관리, 이윤추구 등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품행을 학습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할머니들에 대한 그의 존중과 배려가 지배적인 권력 배분의 질서와 품행의 코드를 수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할머니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그들이 접할 수 없었던 다른 언어와 삶의 가능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쟁취는 기존에 지배적인 상징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해석들의 습득을 요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과 ‘계몽’의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계몽이 필요치 않은 존재로 표상하는 태도는 이들을 이미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넘어 지금과 다른 존재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 단순히 “지금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현존하는 자원배분의 질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만약 민주주의를 현존하는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서동진, 2008: 335), 그가 말하는 대중에 대한 존중은 현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상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반 민주주의’적 효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2) 소박함, 생활 vs 거창함, 구호

한편 ‘혁신적 시민’이 사용하는 민주적/반민주적 이분법은 거창함/소박함, 구호/생활의 이분법과 맞물려 있다. 통치의 프로그램이 제시한 ‘미시적 실용주의’의 논리는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전유되어 스스로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된다. 이 때 “시민운동꾼”이나 “전문 운동가”(G, 남, 30대 중)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존의 운동은 거창함, 이념, 구호 등의 단어와 등가적으로 나열되면서 생활 속에서 작지만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행위와 대비를 이룬다.

1)거창한 환경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¹¹²⁾

2)희망제작소는 기존 시민단체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사람 즉 일반인의 삶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소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요. (희망제작소, 2013: 13)

3)[소셜 디자이너란] 거창한 의미나 비전은 아니더라도 열정을 갖고 긍정적으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사람들과 같이 바꾸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¹¹³⁾ ([]는 인용자)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M (남, 40대 초)의 서사이다.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생활인으로 의미화 하면서, 그의 활동에 거창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의식적으로 ‘소박함’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사회를 바꾸겠다고 삶을 허비”하면서 정작 “대단한 결과를 내놓은 적은 없는” 윗세대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하고 있다.

저는 절대 먹고 사는걸 부정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 안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절대 선배들처럼 사회를 바꾸겠다고 내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세상을 바꾸겠다고 내 삶을 초개처럼 깨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싶진 않아. (...) 일단 나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싫어해. 이게 내가 월급을 6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일할 때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 그렇나 하면은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

112)윤찬영, 「더 오래가는 세상을 만드는 배터리 - 소셜벤처 인라이튼의 무선가전 배터리 교체 실험」, 『서울혁신파크 블로그』.2016.11.22.
<http://blog.naver.com/s_innopark/220867990931>

113)오호진 외 「회사원 장씨의 희망제작소 입성기」, 『희망제작소』, 2012.01.12.
<<http://www.makehope.org/인물열전4탄sds-9기-희망제작소-뿌리센터-장우연-연구원>>

은 욕망이 별로 없어요. (...)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제가 부담스러워 하는 건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대단한 결과를 내놓은 적은 없잖아. 386이든 486이든..그게 싫은거야. (M)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실천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기존의 시민운동에 맞서 스스로의 시민권을 주장한다. <소셜 디자이너 스쿨> 수강생 E(남, 40대 후)의 서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E는 우연한 강의 프로그램에서 박원순을 알게 되어 <소셜 디자이너 스쿨>과 <행복 설계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희망제작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연 100시간 넘게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라고 생각한다는 그에게 있어, 일상의 소소한 실천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참여의 행위이다. “대단히 뭘” 하지 않더라도, 남의 집이 아닌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 “보도블록 깨졌으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과 같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실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는, “광화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화된 운동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회 참여의 의미를 다양화 하는 일, 그들이 해놓은 성과의 “수혜자”나 “뒤 따라 가는 사람들”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주장하는 일로 표상된다.

필요해요 조직화도 필요하고 집단행동도 필요하고 계몽도 필요하고 싱크탱크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 아니에요? (...)뭘 대단히 뭘 해야 소셜 디자이너인가요? 뭔가 앞장서가지고 개혁해야 하고 집단화 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우리는 수혜자 내지는 우리는 그냥 뒤 따라 가는 사람, 그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누리는 사람 이러면 소셜 디자인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E)

동시에 거창함/소박함의 구분은 진정성/비진정성의 이분법과 맞물려 있다. U(남, 30대 후)와 V(여, 30대 중)의 서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V에게 있어 기존의 시민사회는 거대한 “가치와 이념” 뿐인, “너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들로” 점철된 공간으로 서술된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U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무언가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깃발 주위에 모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파워 게임”이 아닌 “진짜가 누구냐를 가리는 시대”(U)에 대중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혁명” 같은 구호가 아닌 “삶”을 통해 생산되는 “컨텐츠”이다.

네. 그래서 그런 혁명 같은 것도 대중이 과연 이제 그럴 듯한 미사여구를 쓰는 선동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것 같애. 왜냐면 계몽을 하기엔 이미 대중이 다 너무 똑똑해. 그래서 재가 막 똑똑한 척 하고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이런 데 감동이 있죠.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저 사람이 작지만 그런 성공을 했어. 말로만 하는 건 이제 대중들도 감동 받지 않는 거예요. (V)

요컨대 일군의 ‘혁신적 시민’에게 소박함은 자격지심의 대상이기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에게 ‘거창한’ 이념은 비판의 대상이거나 냉소의 대상일 뿐이며,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소박한 실천들이야말로 ‘민주적’인 동시에 ‘진정한’ 사회변화로 표상되는 것이다.

3) 순수 vs 비순수

앞서 언급했듯, 통치의 언어가 제공하는 순수와 비순수, 영리와 비영리, 탐욕과 도덕, 경쟁과 협력의 이분법은 사회변화를 곧 사심 없는 순수함과 동일시하게끔 만든다. 순수하고 선한 의지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 믿는 ‘혁신적 시민’에게 있어 투쟁이나 갈등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지 않은 것, 순수하지 않은 것과 등치된다. 혁신적 시민들은 갈등과 투쟁을 핵심적 원리로 하는 기존의 운동이나 제도 정치를 편파적인 것, 특수한 이해관계의 싸움, 혹은 폭력적인 ‘패권 논리’와 등치시키면서 스스로와 구별 짓는다.

A(남, 30대 중)의 서사는 이러한 구별 짓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연구자에게 ‘운동’은 지나치게 “투쟁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며 ‘운동’이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뭔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자꾸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무브먼트는 맞아요. 근데 그걸 운동이라고 바꾸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인식하고는. [운동에는] 조금 더 약간 투쟁적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움직임은 맞아요 행동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맞는데 운동으로 얘기하려니까는 좀 애매해요.

(...) 뭐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 친구들은 이념적인 성향이 짙잖아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런데 우리는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거든요. 대안적인 삶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지 그걸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이념적인 접근이거든요. 너는 왜 너는 뭐 진보해 나는 보수야 그러면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논쟁밖에 없거든요. 달라요. 되게 결이. (A)

A에게 있어 스스로의 활동은 “이념적이”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는” 기존의 운동과 구별되어 “대안적 삶에 대한 방향”과 “행복”을 고민하는 활동으로 표상된다. 그에게 있어 기존의 운동이 갈등과 논쟁으로 점철된 ‘편파적’인 것이라면, 스스로의 활동은 모두의 행복을 고민하는 ‘보편적’인 움직임으로 표상된다. “행복”을 논하는데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F(남, 30대 후)에게서 역시 기존의 운동은 특수한 이해 관계를 탐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F는 광장에서 투쟁 하는 사람들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면서, “편이 갈라져 있”는 기존의 운동과 “이 안에 녹아들어가서 다양하게 전도”하는 스스로의 활동을 구별 짓는다. 노동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이게 뭐 관점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맞느냐 틀리느냐는 칼로 베듯이 정답이 나오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미팅을 한 어떤 분들은 또 재벌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노동자의 입장과 굉장히 다른데 그분의 입장도 설득력이 또 없는건 또 아니고. 근데 결국 그래서 하나의 정답은 없으나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느냐. (...) 개인 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맞는거지만, 그래서 저는 사회의 편이죠. 모두. 한 사람도 쏠리는 게 아니고 다 더해봤을 때 뭐가 더 큰 가치 인냐가 저의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환경. 제가 급하면 매연이 얼마나 되던 간에 맨날 차 몰고 다니고 아니면 제가 더 크고 안락한 차를 원한다면 (...)탈테죠. 하지

만 전체를 볼 때 (..)이건 사회적으로는 옳지 않은거고. 그래서 저는 대체수단-자전거를 타던 뭘하던 그런게 옳다고 생각하는거예요. **내 이익에 앞서서.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려고 하려고 노력은 하죠. (F)**

F는 노동 운동을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표상하면서, “내 이익에 앞서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스스로의 실천과 구분 짓는다. 그의 서사에서 자본과 노동 같이 불균형한 권력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행위자들은 모두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환원되며, 이들의 대척점에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시민이 위치한다.

J(남, 30대 중)에게 있어 투쟁은 도덕적 미성숙과 등치된다. 그는 한편으로 ‘감시 비판’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내면”을 황폐하게 하는 “폭력적”인 “패권 논리”와 등치시킨다.

예를 들면 개인으로 치환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선생님이 정부고 제가 기업이에요. 근데 눈 부릅뜨고 감시 비판만 해. 힘들잖아.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에너지를 쓰는 게 힘든데. 미워만 해 계속.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노동 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인권 운동가들이 내면이 굉장히 황폐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 폭력적이에요.** 자기 가정이나 자기 일터 내부에서는. 폭력적이고. 시민 사회내부에서는 그 문제의식이 커요. 왜냐면 가장 위에 있는 리더들이 50대 이상이니까. 옛날에는 반독재 운동했던, 노동운동했던 투사들. **대결의 논리와 패권의 논리 힘의 논리가 몸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일상화되어있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려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문제로서 또 나타나기도 하는거죠. (J)

이들은 정치적 투쟁을 편파적인 것, 사익 추구, 폭력적인 ‘패권논리’ 등 순수하지 않은 것 혹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등치시키면서, ‘순수’하고 ‘성숙’한 스스로의 활동과 구분 짓는다. 이들의 활동의 보편성과 정당성은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보다는, 이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획득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그 자체로 삶의 필연적인 차원인 갈등이나 투쟁 자체를 부정적인 것,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만들고, 투쟁하는 시민들을 ‘나쁜 시민’ 혹은 ‘미성숙한 시민’과 등치시킨다는 점에서 고도로 폭력적인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거리두기와 구별 짓기가 ‘혁신적 시민’ 모두에게서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거리를 둔 사회변화는 그 자체로 불가능하거나, 미미한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표상된다. 가령,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S(남, 30대 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 시민주의 역시 노동운동과 같은 투쟁들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가만히나 혼자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 언제든 사회가 좋아지겠지”와 같은 태도로는 사회가 바뀔 수 없다고 비판한다. 비슷한 문제의식이 H(남, 40대 중)에게서도 발견된다. 기존의 시민 운동단체에 있다가 희망제작소에 잠시 합류해 소셜 디자이너 스쿨을 기획하기도 했던 그에게 있어서도 “정치적 색깔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착하고 조용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관심 꺼주세요”라는 태도로 일관했던 희망제작소의 행보는 비판적으로 성찰되고 있다. 그는 “정권이 억압적으로 우리를 몰아 붙이”는 상황에서 “소셜 디자이너”와 같은 “개개인이 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희망제작소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예들려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시민들의 비판적 태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갈등과 구별 지으며 스스로의 보편성과 순수성을 주장하는 태도가 희망제작소나 서울혁신파크가 조직적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혹은 택할 수밖에 없는) 담론적 전략이라는 점에 있다. 섹터 간의 협업을 통해 미시적이지만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회혁신’의 기본적 기조는 계속해서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다. 가령, 희망제작소는 2008년 촛불 집회 때 “촛불의 핵심”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중간지대”를 만들어 내는 일을 목적으로 했던 희망제작소가 정치적 투쟁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H(남, 40대 중)는 “시민운동 사회운동 전체가” “거대한 시민혁명에 뛰어들어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처 외에는 “아무것도 안했던” 당시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성향이 덜 과격하고 어쨌든 조금은 보수적인 그룹들 까지도 컨택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를 진보, 보수 좌,우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라던가 뭐 민주주의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장, 토론의 장 논의의 장을 만들자. 약간 수세적인, 소극적인 수준의 그것들이 있었죠 뭐. 성명 한번 제대로 못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난리 곳판의 상황에서. (H)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해서 획득된 보편성의 기반은 지나치게 취약하다. 이러한 구별짓기의 실천들은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검열은 정치적 탄압에 연대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배 세력의 억압을 더욱 강화 시키는데 공모하는 ‘기계적 중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든다.

4) 생산적, 유연함 vs 비생산적, 경직됨

혁신적 시민들에게 있어 갈등과 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운동은 도덕의 언어 뿐 아니라, 경제의 언어로 비판되기도 하다. 즉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가령 U(남, 30대 후)의 서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때때로 싸움과 투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혁신파크에 입주한 이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힘 싸움”의 경우, “냉정하게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은 그 자체로 “무모”하고 “소모적”이며 “생산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일로 표상된다.

‘사회혁신’이라는 연표는 기존의 운동적 실천들을 ‘혁신’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배치하면서 이러한 구별 짓기를 보다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새로움, ‘기민함, ‘유연함’ 등을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덕목으로 정립하는 ‘혁신’의 윤리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물질적·상징적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과 규칙을 변경한다. 과거 운동의 장 내에서 훌륭한 운동가의 덕목으로 칭송받던 자질이나 품행이, 혁신의 장 속에 기입되었을 때는 지양 되어야 할 덕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민하게 시장에 적응하면서 기업가적 품행을 학습할 수 있는 태도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로 권장되는 반면, 자본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적 품행을 습득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관성”에 사로잡힌 경직되고 생산적이지 못한 태도로 표상된다.

가령, J(남, 30대 중)에게 있어 “간판만 사회혁신조직으로” 바꾼 기존의 운동단체들은 “기업의 합리성이나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 경영 역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 “반독재투쟁 민주화 투쟁 하던 마인드 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경직된 존재들로 의미화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근대적인 개념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많고. 비영리단체도 많고.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지만 예전의 반독재투쟁 민주화 투쟁 하던 마인드 관성 그대로 오면서 간판만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거나 사회 혁신 조직으로 바꾼 데도 많죠. 섹터 간 융합을 했으면 특히 기업에서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이라든지 경영 역량은 수용을 하고 배워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케팅이나 경영 같은 거는. 그런 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많고. 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J)

시장에 적합한 품행을 체화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별 짓기는 R(여, 30대 중)과 같이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혁신’에 발을 들이게 된 이들에게서도 관찰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다 나쁜 놈들” “사회는 다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그 자체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 “대안이 없는” 경직된 사람들로 표상된다. 비슷한 태도가 F(남, 30대 후)에게서도 발견된다. F에게 있어, 유능한 ‘혁신가’는 시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자신의 이상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재벌 앞에서 시위를 했”더라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주장한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연하게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의 서사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기업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을 “이상으로 꼭 차있”는 “유연하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

저도 처음엔 (사회운동 쪽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머리에 이상으로 꽂차있으니까. 그래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고 뛰어들죠. 근데 현실은 이상과 다르거든요. 내 상상과 생각과는. 100% 좋은 길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구현하기 힘든데 여기서 이제 타협을 못하면 힘들어 지는 거고. (...)현실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내 생각도 유연하게 변화를 해야 되요. 아 내가 재벌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더 들여다보고 몰랐던 것을 점점 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주장한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한 게 너무 과할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점점 내가 원하는 거에 70%수준이라도 맞추기 위한 타협과 협상과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죠. (F)

그러나 혁신의 장 내에서 바람직한 ‘혁신’ 이나 ‘혁신가’ 를 두고 벌어지는 인정 투쟁의 규칙은 확고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이나를 두고 벌어지는 인정투쟁은 다양한 기준들이 경합 하고 있는 유동적이고 열린 게임에 가깝다. 가령, 일군의 활동가들은 ‘사회혁신’ 이 지나치게 ‘기업’ 적으로 변모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운동’ 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시도한다. 가령, P(남, 30대 중)에게 있어 “감탄사가 나오는 혁신” 이란 시장과 “타협” 하면서 “상품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살면서도” “매주 강정에 찾아” 가는 것과 같이, “사회 시스템에 맞부딪히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듯 ‘사회혁신’ 내 존재하는 운동 지향적 흐름은 생산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품행이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의 원리로, ‘혁신’ 의 언어는 운동의 원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역시 제약한다. 혁신의 장 내에서 ‘운동성’ 은 없어져서도 안 되지만,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5) 재미 vs 당위

기존 운동에 대한 이들의 구별짓기는 민주성, 진정성, 도덕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미라는 감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적 시민’ 에게서 빈번히 발견되는 또 다른 구별 짓기의 코드는 재미/ 당위의 이분법이다. “외치고 투쟁하는 방식 자체는” “재미 없어서 안 붙는다” 는 (K, 여, 30대 초)의 말처럼 재밌고 즐거운 운동의 ‘스타일’ 은 이들이 기존의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사회혁신’ 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이다. ‘혁신적 시민’ 에게 있어 운동은 도덕적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놀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 때 기존의 운동은 “강박” “당위성” “의미” “엄숙함” 등의 단어와 등가관계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재미를 추구하는 그들의 활동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구별 짓기의 양

상은 혁신파크에서 발간한 인터뷰 곳곳에서 발견된다.

1)이전처럼 의미와 가치, 미래지향성, 당위성만으로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90%의 재미에 10%의 의미로 접근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혁신이라도 우선 전할 수 있어야죠. 114)

2)활동의 주체인 혁신가 또한 너무 사회혁신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히지 말고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115)

3)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 먼저 조합을 찾아 주셨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소위 ‘운동’의 방식으로 소통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2012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재생 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봐요. 즐겁고 유쾌하게.116)

4)시민단체들이 좀 더 유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엄숙함을 내려놓고 즐겁게 손잡고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 2015: 42)

이렇듯 도덕적 당위를 강조하는 기존의 운동과 자연스러운 재미를 추구하는 스스로의 활동을 대조시키는 이러한 의미론은 S(남, 30대 초)에게서도 발견된다. “신청인”들과 농아인들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와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 추구하는 활동의 기조를 “재밌게 하고” “그럴싸하게 하자”라는 말로 정리한다. 그는 자신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사회 활동” 종사자나 “농아 관계자들만 보는” 무엇,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보아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리쉬”한

114) 백난희, 「혁신이 혁신을 만났을 때 [혁신x혁신] 바보야, 문제는 재미야」,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4.20.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88688603>

115)위의 글.

116) 문하나, 「혁신가의 자리 07-박규섭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9.27.

<http://s_innopark.blog.me/220688816513>

것이기를 꿈꾼다. 요컨대 혁신적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된 활동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동시에 보편성을 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죄책감이나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당위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운동을 도덕적 ‘엄숙함’과 등치시키면서 ‘재미’를 운동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보다 신중한 성찰을 요한다. 재미의 추구는 모든 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략이라기보다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만 개방된 선택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재미’로서 운동은 국가나 자본의 물리적인 탄압에서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기에 생사를 다룰 필요가 없고, 사회 공간 내에서 일정정도의 사회적 인정을 획득, 유지해 왔으며, 급박한 생존을 떠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자본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가능하고 매력적인 모델이지만, 생존이 걸려 있는 절박한 전투들에서 각종 억압과 탄압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놀이’를 일종의 정치적 해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전술이다. 87년 이후 지배 세력이 중산층에게는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개방하며 유화 전술을 펼친 반면, 하층 계급에게는 가혹한 탄압으로 응하는 이중적 통치 전략을 구사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윤상우, 2010: 186), ‘재미’라는 전술이 통용될 수 있는 운동의 반경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물론, 일군의 인터뷰이들이 지적하듯,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동에 “올인”할 수는 없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한 일들을”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G, 남, 30대 중). 그러나, 기존의 운동을 도덕적 엄숙함으로 표상하며 ‘재미’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의 전략으로 강조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재미’ 있게 임할 수 없는 운동들을 주변화 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한다.

3. 곤경과 성찰

이처럼 시민들은 통치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지향을 형성해나가며, 기존 운동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정당화 논리를 구축해 나간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찰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대응의 양상들은 공존·경합·대립하면서 통치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화시켜나간다. 본 장에서는 ‘혁신적 시민’이 직면한 곤경들과 이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존의 압박과 자생의 이상

자조의 이상을 수용한 자발적 시민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고 그 리스크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생존의 압박감을 동시에 토로한다. P(남, 30대 중)의 말처럼 이들의 활동은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지난한 작업인데 반해, “삶은 매번 다가온다.”

사실 이런 일은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부딪히면서 균열이 조금 났는지 안 났는지 보면 안나있고. 계속 하면 지치고 둘은 뜨겁고 막 그런데. 이거를 버티다보면 어 금이 가있고 그렇게 되는 일인데. 근데 삶은 매번 다가오잖아요. 애인은 결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에 이기기 힘든거죠. 삶의 일상성에.** (P)

일군의 시민과 활동가들은 참여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참여의 전제가 되는 생존의 조건을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한 권력과 참여에 필요한 모든 리스크를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P(남, 30대 중)에게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그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노동부인증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보다 정체성에 맞다고 생각해 접은 상태이다. “기존 시스템에 충성하는 것들이 돈을 벌어나가는 상황에서 이것에 반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P와 같은 활동가들에게 있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되

어 스스로의 가치관에 걸맞지 않는 일까지 도맡아 하거나, 혹은 비영리민간 단체로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사회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엄청 운이 좋거나 돈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빚내고 할 배짱이 있는” 특수한 사람에 국한된다고 비판한다.

지금 혁신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거 다되는 사람은 금수저 말고 누가 있겠냐구요.

(...)돈 없으면 하지 마라는 식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부조리해요. 엄청 운이 좋거나 아니면 돈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빚내고 할 배짱이 있거나 이정도 특수한 사람들한테 자꾸 몰아가게 돼요. 이런 혁신을 조금만 용기를 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왜 청년이 사회적 기업만 해야 하는거지? 엔지오 단체도 만들 수 있고. 대단한 사람만 엔지오 단체 만들 수 있어야 하나? 아니다. 사실 뜻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일수도 있다 아무리 이게 영리가 안 되고 먹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사회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P)

공유주택 사업에 참여했던 O(여, 20대 초) 역시, 청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도 해주지 않는 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식비 그리고 “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녀는 이러한 비용들을 해결해주는 “공공의 터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정책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한다. M(남, 40대 초)역시 비슷한 입장이 다. 그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모든 입주 단체들의 고민이기도 한 생존에 대한 압박은 이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아 해결책과 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하지만,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선뜻 공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V(여, 30대 중)는 “너네 생존권을 너네가 책임지면서 (..)너네끼리 어떻게 협업 방향도 찾아봐”라는 지금의 정책 기조에서는 혁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단체

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이들 간의 공유 플랫폼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경과 고난을 뚫고 경쟁력을 획득하는 ‘기업가적 자아’의 이상은 이러한 지원에 대한 요구를 의존적인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일군의 활동가들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을 하나의 정언명령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오히려 의존적이고 경쟁력 없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생존의 도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혁신파크 내 입주단체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사전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지원해줘라 지원해주지도 않고 혁신만 하라 그러면 다냐. 근데 그게 첨예해요. 한쪽은 우리를 모아놓았으면 혁신활동 할 수 있게 대폭 지원해줘라. 한쪽은 그런 지원에만 의존하다보면 우리가 자생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거가지고 우리끼리도 첨예한거예요. (V, 여, 30대 중)

많은 시민들은 한편으로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을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생을 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당연한 윤리로 내면화하고 있다. F(남, 30대 후)는 기업가적 자아를 하나의 이상으로 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응답자이다. 그에게 있어 오늘날의 사회는 “내 먹이는 내가 사냥해” 서 생존해야 하는 “수렵사회”로 표상된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업이 야생 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와 경쟁을 하면서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가 U(남, 30대 후)에게서도 반복된다. 그는 사회적 경제 내에 있는 기업의 ‘퀄리티’가 시장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에게 있어, 기본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타가는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거지 근성”,

“NGO 단체 사람들이 우리 후원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의미화 된다. V(여, 30대 중) 역시 마찬가지로의 입장이다.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녀는 “100% 동의”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 “못 먹을 감”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비현실적인데 에너지를 쓰다가 지칠까봐 두렵”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좋은 일 하니까 조금 더 혜택을 줘”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이기주의처럼”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편적 권리의 문제와는 별개로 “상대적 경쟁력”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자생력을 갖추는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시장 권력에 깊이 종속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경쟁력을 함양하는 과정은 곧 품질관리, 고객만족경영 등 지배적인 시장의 품행들을 하나의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에 대한 요구는 자생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으로부터의 자생을 도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 계속 되는 낙인, 계속 되는 부인

정치적 투쟁이나 갈등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립하려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는 낙인은 이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가령 희망제작소는 촛불집회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에 시달리며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 서울혁신파크 역시 강한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진보좌파 단체들” “박원순의 무엇” “빨갱이들”이라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¹¹⁷⁾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탄압과 낙인은 ‘혁신적 시민’들에게

117) 행정 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주영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소위 말해서 진보적 취향, 시장의 취향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에게 예산이나 각종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자기들 이익 대변하게 하는 단체 육성 하는게 혁신기획관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서울시의회, 2013: 33)

어떻게 문제화 되고 있는가?

일군의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혁신의 보편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낙인에 대한 부인을 계속하고 있다.

가령 R(여, 30대 후)은 ‘사회혁신’이 자꾸 “정치”랑 엮이면서 시장의 “노선”을 지지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리더가 들어오건 어떤 정권이 들어오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림이 되”려면, “정치”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에게 있어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위시한 세력관계로 이해되고, ‘사회혁신’은 정파와 상관없이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 ‘사회혁신’이 그 본연의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인과 엮히는 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U(남, 30대 후)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다. 그는 ‘사회혁신’이, ‘사회적’이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진보진영의 무엇”, “빨갱이” 등 “특정한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넘어 범용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R과 U가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혁신’의 보편성을 유지·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J(남, 30대 중)의 경우 “기계적 중립”을 넘어선 적극적 정치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회혁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의미화 하는 방식이다. 그에게 있어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적대는 역사의 상수가 아닌, 협력이라는 “유일하고 당연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그 언급 드린대로 희망제작소가 추구해 왔던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 흐름은 여전히 현존해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죠 그 당시처럼. **게임의 룰을 지키는 상황이었다면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섹터 간 협력의 흐름이 유일하고 당연한 트렌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언급 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게 된 변에서 밝힌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만국 공통으로 **게임의 룰을 안 지키니까 당연히 정치권으로 직접 들어가서 바꾸거나 아니면 제 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나 감시 비판 하는 흐름이 다시 복귀하는 게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 두 흐름이 상존하는 이게 없어져야 한다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 쪽 가고 있었는데 **회귀**해서 감시 비판이 중요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섞여 있는거예요 시민사회에. (J, 남, 30대 중)

그에게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은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나라와 사회에 헌신한” 박원순을 고소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보편적인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변칙적인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퇴행적인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감시 비판하는 흐름”이 “복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싸움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들과 이들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비합리적이고 타락한 수구 세력 사이의 대결로 읽힌다. 그에게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협력은 일군의 퇴행적 세력이 제거되면 도달할 수 있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를 넘어 적극적인 정치화를 긍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순수-비순수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에게 있어 싸움은 순수성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 즉 모든 세력은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은 필연적으로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긍정이 아닌, ‘순수’의 이름으로 ‘비순수’에 맞서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듯, 모든 정체성은 다른 이들과의 구분짓기 속에서만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것의 제거 불가능성을 긍정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편’으로 프레임하면서 반대하는 세력에 ‘정치적’이라는 낙인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성에 대한 부인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세력들을 ‘보편’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협력’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의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성의 토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영구적인 갈등과 투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치성에 대한 적극적 긍정에 기반해 투쟁하는 것이다.

3) 모순되는 통치의 요구와 취약한 공동체

무엇보다 혁신적 시민들의 활동에 있어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통치 권력의 모순된 요구들이다. 서울시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혁신센터에게 파크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에 가깝다. 신뢰와 협력은 혁신파크가 표방하는 중요

한 정책적 기조 중 하나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의 비율을 훨씬 웃도는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는 혁신센터의 직원과 입주단체들 간의 신뢰가 지속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K, 여, 30대 초), 센터에 고용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기란 불가능하다. 직원들이 연 단위로 교체되는 상황은, 입주단체와 센터 간에 지속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정규직의 비율을 늘려달라는 센터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구조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성만 가중된 지금과 같은 ‘협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외주화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관이 주도하는 혁신의 한계도 명백하다. 정해진 기간과 규칙, 절차에 입각해 운용되는 관료제의 합리성은 순간순간의 즉흥성과 자유분방함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의 논리와 충돌한다. 자유롭게 운영하고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하고 입주한 단체들의 바람과 달리, 국·공유재산으로 묶여 있는 혁신파크는 수많은 법령과 조례들이 관통하고 있다. “이미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업은” 도중에 변경이 어려우며, 시 정부의 답변을 듣는데 절차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은 즉흥성과 자유분방함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의 시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투입된 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하는 행정의 매커니즘은, 무목적적인 놀이를 원동력으로 하는 혁신에 정량적, 정성적인 성과를 요구한다.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성과를 목표로 해서 기획을 짜게 되면 이미 혁신은 간히게” (U, 남, 30대 후)되는 애로사항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터뷰이 T(남, 50대 초)는 이를 지적하고 있다. 118)

그 임계점이라는게 있잖아요. 토대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벌어지는.

항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완만한 상승 곡선이 일어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

118)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많은 이들이 통치의 모순된 요구 뿐 아니라 통치의 부채를 주된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U(남, 30대 후)의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지금 혁신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센터에서 입주단체들을 통솔해낼 수 있는 ‘혁신’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예산이 투입되었으니, “각자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축구 경진지 농구경진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야 말로 입주단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는 한순간에 폭동처럼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다 어느 순간 확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잘 기다려지지 않는거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다양한 자극통을 통해서 생각들이 모아지고 방향이 잡혀서 점화, 폭발. 이런 개념들이 잘 안되어 있는거죠. 매년 조금씩 실적들이라던가 뭔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줘서 다음에 결과 나오는 상관없이 쭉 가는 상태. 결국은 다 속이는 상태가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건데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라는 걸 숫자적으로 그리고 사진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T, 50대 후)

활동가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원인이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의 자율성이 부재하는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간지원조직이 “100% 재정을 행정에 의존하는 상황,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동력” (L, 남, 40대 초)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재정적 의존도 뿐 아니라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의 수장이 행정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나마 시민사회에서 ‘사회혁신’을 지탱하던 인력들 역시 모두 관으로 흡수 되었고, 이에 따라 관에 맞서 민의 입장을 대변해줄 “선수”들이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부재는 ‘사회혁신’이라는 움직임이 시민사회에 단단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듯 시민사회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이들이 품고 있는 꿈을 구현해내기 위해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권력구조는 견고하고 이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마을 만들기를 해온 M(남, 40대 초)은 스스로 겪은 경험을 통해 이를 체감하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농촌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 기업을 운영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마을 공동체가 이로 인해 분란을 겪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수익 구조가 생기니,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유지에 의해 또 다른 착취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를 “좀비” 같은 자본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먹어버리는 공간으로 표상한다. 이러한 자본의 위력 앞에서 기존의 시민운동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다.

자본은 거의 좀비 같은 존재가 됐고 끊임없이 먹어대니까. 근데 시민운동과 시민운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좀비 앞에 되게 나약한 존재지. 좀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좀비의 그런 진짜 맹목적인 힘은, 자본의 그 맹목적인 힘은 막아낼 수 없거든요. (M)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에서 공동체 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 T에게서도 발견된다. 그 (남, 50대 후)에 따르면, “철저하게 경제 논리, 자본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 정치에 있어 예술 활동가들은 완전한 “변방”에 위치해 있다. 지역의 “권력 1,2위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만이 지역의 개발에 반영될 뿐, 예술가들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부에게 이들은 지역 홍보를 도와줄 “굴러온 복”, 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간주될 뿐이다. 이들의 활동은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매출이 되게 높아서 상권을 좌지우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의견이 반영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비단 자본의 위력 뿐 아니라 사회 내의 공감대 부재 역시 이들이 느끼는 고립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M(남, 40대 초)은 인터뷰 내내 ‘전문가’에 의해 수입된 공동체 담론과 그가 “숨쉬고 일하고 설득한” ‘현장’의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화려한 외국의 담론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괴리,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 운동은 “생활 밀착형” 운동이고 “공기” 같은 것인데, 한국 사회에는 바로 이 “공기”가 부재한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며 그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식민지까지 거슬러가야 하는, “뻗속깊이” 배어있는 가치관과 습관들이다.

T(남, 50대 초)역시 마찬가지로 막막함을 토로한다. 그는 박원순 시정의 정책으로 인해, “전에 없던 활동가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사회활동을 하나의 진로로서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의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매번 현장의 주민들의 냉담함에 직면해야 한다. 대부분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귀찮아”하며, “내 돈벌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이 뭐 하는 거에 같이 놀아줄 수 없어”, “나를 불편하게 하지마” 등의 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S(남, 30대 초)역시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밖은 아직도 정글”인

상황에서, 당장 체감할 수 없는 활동의 “파급력”은 이들을 지치게 한다.

나는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활동하는 것의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밖은 아직도 정글인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로 나가면 물어뜯고 그런 정글 속에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여기까지 내려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S)

자본의 위력은 드세고, 이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혁신적 시민들은 현 행정의 버팀목마저 없으면 스스로의 활동 기반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서울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되면 [여기]다 망할 거” (P, 남, 20대 후)라는 표현은 이러한 자조적 전망의 반영이다.

4) 저항의 모색

지속적인 생존의 압박과 모순되는 통치의 요구들, 취약한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활동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선불리 미래를 낙관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참을성 있는 긴 호흡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변화는 저는 소수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나중에 보편적인 사회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도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복잡한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얘기하고 담론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확 바뀌고 그런 전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나 담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어떤 때는 좀 더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파편화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고 그러면서 그런 기회들을 좀 더 포착해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몽칠 수도 있는 거고. 더 제압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나 갈망은 대부분 있겠죠. 현실은 인지하지만 현실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엔 너무 썩썩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하는 부분도 비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현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뭐 이런 상태가 공존하면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S, 남, 30대 초)

이것은 비단 개인들의 ‘정신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혁신파크 내에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나름의 저항들이 모색 되고 있다. 입주단체들은 2016년 여름 자치회를 조직했다. 비록 “안에 설왕설래도 많고 지지부진” (P, 남, 30대 중)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단결하여 나름의 움직임을 모색하기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한편, 혁신파크 내 노동자들은 2016년 겨울 혁신파크 유니온을 결성했다. 지속되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이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군의 시민들은 ‘사회혁신’을 보다 급진적으로 전유하면서, 권력의 불평등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혁신파크 내에서 ‘사회혁신’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나온 ‘공유 정치’ 논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레포트는 “사회혁신은 ‘불편한 뭔가’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6)”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혁신’이 소소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농업과 태양광·바이오메스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을 숨 쉬게 할 포괄적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도, 치솟는 부동산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새로 선출된 정권이 사회혁신 정책을 반대하여 관련 예산을 반 토막 내거나, 간신히 공공성을 회복한 사회정책과 자원들이 다시 정권의 의지에 따라 쉽게 매각되거나 포기된다면, 과연 위에 나열한 개별 정책들과 그것들을 시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 단체들, 활동가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¹¹⁹⁾

이 레포트는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이 2014년 지방선거 즈음 해 훗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체되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선거 당선 여부에 ‘사회혁신’의 사활이 걸려 있는 지금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문제화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 원인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놓여 있다. 이 레포트는 ‘사회혁신’의 논의가 “공유경제와 공동체 토지신탁, 기본소득, 지역화폐, 디지털 플랫폼, 협동조합을 고민하

119) 이승원, 「사회혁신포커스 25호 -사회혁신의 목표 : 불평등 해소와 ‘공유정치’」, 『사회혁신리서치랩』, 2016.10.05. 6p. <<http://soinnolab.net/archives/1739>>

는 것 이상으로 ‘공유정치’, ‘권력의 분배’, ‘사회운동과 사회혁신의 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 정치’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사회 혁신’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한 ‘공유’라는 말을 보다 급진적으로 전유하면서 권력을 무한히 상호 증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진 자로부터 탈환해야 하는 것, 즉 분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을 선불리 낙관할 수는 없다. 자치회의 경우, 여전히 출범 초기 단계라 이제 막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서울시에 스스로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요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저항을 모색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형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V. 결론 : ‘혁신적 시민성’ 그 가능성과 한계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시민운동의 변화된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서 ‘사회혁신’이라는 참여모델과 그것이 생산해내는 시민성에 주목해 그 발생과 주체 생산의 매커니즘 그리고 이것이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혁신’은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운동 진영의 고민이 서구에서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적 시민 참여 모델과 맞물리며 형성된 결과물이었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혁신’이 가져온 민주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시민을 형성해내는 통치의 기획이라는 점, 그리고 그 통치가 기존의 사회 운동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상력을 주변화 시키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성찰을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생산된 ‘사회혁신’ 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시민성을 ‘혁신적 시민성’이라 명명하여, 그 발생과 주체 통치 기획,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실천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민운동의 ‘위기’에 관한 담론들, 박원순 · 희망제작소 · 서울혁신파크가 생산해내는 ‘사회혁신’에 대한 담론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서사를 담론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관찰·분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혁신’ 담론은 2000년대 시민사회 진영에서 불거진 ‘90년대식 시민운동’의 ‘위기’론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급진화와 대중화의 노선이 경합하였으며, ‘사회혁신’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에 의해 고안된 대중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박원순을 비롯한 일군의 시민운동 진영은 기존의 운동의 한계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 아닌 시류에 적응하는 기민함의 부족으로 해석하면서, 소외된 민중보다는 변화된 감수성을 지닌 자발적 시민들에 주목하고, 정치적 급진화 보다는 ‘중립성’의 고수를 위기 극복 전략으로 택했다. 이러한 진단으로 인해 이들이 표방한 새로운 시민운동은 민중

운동과의 간극을 좁히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와 구별 짓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6년 설립된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후 영국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혁신’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기 시작한다.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회혁신’의 구심점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옮겨간다. 새로운 시민참여 기획으로서 ‘사회혁신’은 운동의 영역, 방법 그리고 그 주체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재편한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운동이 지나치게 ‘정치 중심적’이었다는 진단 하에 운동의 영역을 광장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난제로 옮긴다. 동시에 운동의 방법에 있어 총체적 변혁이 아닌 점진적 개선, 추상적 이념보다는 미시적인 실용에, 비판보다는 대안 생산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 참여를 공리주의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의 생산으로 의미화한다. ‘사회혁신’이 표방하는 사회 변화란 일상생활의 공익적 욕구충족의 행위와 등치되며, 문제해결의 초점은 구조적 권력관계에 대한 집요한 추궁보다는 불편함의 개선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고안에 맞춰지게 된다. 동시에 사회혁신은 적대가 아닌 협력을 운동의 핵심적 원리로 정립 한다. 이들이 표방하는 미시적 실용주의는 ‘진영’ 간의 대립을 떠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표상되며, ‘사회혁신’의 서사들은 섹터 간 협력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흐름으로 정립하면서 적대를 낳은 것으로 의미화 한다. 애드보커시 형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90년대식 시민운동’이 비록 개량적이고 보수적이라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국가와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 ‘사회혁신’에서는 이러한 적대적 대립구도 자체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동시에 ‘사회혁신’은 그 주체에 있어, 전문 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을 호명한다. 이 때 ‘사회혁신’ 담론은 한편으로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시민사회 거버넌스 서사와 공명하면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문 운동가나·소수엘리트와 평범한 시민들을 구별 지으면서 후자를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체로 호명한다.

둘째, ‘사회혁신’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신체와 정신을 갖춘 시민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구현된 다양한 시민교육/참여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혁신적 시민’을 빚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때 ‘혁신적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크게 자발성, 사회성,

창의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은 자기 삶의 능동적인 주체이자, 사회문제의 해결을 책임지는 자발적 시민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이 때 권력은 내밀한 자아를 겨냥하면서 자기 통치와 시민 통치를 결합한다. 통치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자기’ 테크놀로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되고 배려되고 표현되어야 할 하나의 실체로 정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능동적 개인은 동시에 사회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자조적 (self-help) 시민이기도 하다. ‘사회혁신’에서 정치적 저항은 권력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이 아닌,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행위로 의미화 된다. 이러한 자조적 시민의 형성은 다른 한편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기획과 공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존을 보조하는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의 전문가 권력은 지배적인 시장의 테크놀로지들을 학습시키면서, 이들을 시장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길러낸다. 또한 이러한 역량 강화의 테크닉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종용하는 구조 자체를 문제시하기 보다는 생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권력을 뺏어오지 않아도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혁신적 시민’ 형성의 기획을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와 구별시켜주는 핵심적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통치의 권력은 협력하는 시민들을 길러내는 다양한 행위규범과 테크놀로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협력적 시민은 탐욕적인 경제적 인간과 대비되는 사심 없는 순수함을 지닌 존재이다. 이 때 통치의 언어가 제공하는 도덕과 탐욕, 경제와 윤리, 영리와 비영리 등의 이분법은 정치적 변화를 사심 없는 순수함과 등치시키면서, 사회 변화를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힘의 대결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주변화 한다. 또한 도덕과 권력의 이분법은 도덕적 행위 자체가 지배적인 자본주의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규율적 권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화 한다. 동시에 협력적 시민은 공감과 경청의 능력 속에서 타인과 휴머니즘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존재이다. 통치 권력은 ‘신뢰’, ‘사랑’, ‘진심에 기반한 소통’ 등으로 표상되는 낭만적 연대를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를 윤리적 개인들 간의 감정적 연대로 봉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시민은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추구하면서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지도나 토론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 되는 균형과 합의의 민주주의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주변화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만약 민주주의를 권력관계에 맞서 ‘우리’의 집합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라 본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인 이들을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환원하면서 적대를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통치는 그 자체로 반 민주주의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시민’은 무엇보다 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창의력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 창의성이야 말로 기존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민성의 덕목으로 자리한다. ‘새로움’은 운동의 정언명령이 되며 아이디어는 운동의 핵심적 무기가 된다. 동시에 ‘혁신적 시민’에게는 운동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공모 수주 등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며 컨텐츠의 형태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기획력의 함양은 권력을 타격하기보다는 헤아리는 법, 짧은 시간 내에 가독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글쓰기와 디자인 기법, 제한된 기한 내에서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절하고 자원을 가용하는 능력 등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재미라는 또 다른 창의적 운동의 정언명령은 시위나 데모 등 기존 운동이 담지한 표현 방식을 ‘폭력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배제 시키는 규율적 효과를 낳는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시민통치의 기획이 언제나 매끄럽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을 면담해본 결과 이들은 통치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전유, 성찰, 비판, 숙고하면서 통치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었다. 먼저 이들은 통치의 언어와 개인적 경험·문제의식을 결합하여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지향을 형성해나간다. ‘진정한’ 자기가 되라는 통치의 명령은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수용되어 자아실현이라는 공통된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주체적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자발적 시민이고자 하는 바람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들에게 자조적 시민 되기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권력의 책략이기 보다는 정치적 저항 가능성을 지닌 민주주의의 기획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일군의 시민들은 정치적 투쟁을 위한 진지

전, 권력의 독점으로부터의 해방 등 자조의 실천에 통치 권력보다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에게 있어 권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타격하는 행위와 이를 우회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고안하는 작업은 배타적인 것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적 시민’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논리와 급진적 민주주의에의 열망이 공존하는 다의적 언어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동시에 주체적 시민의 꿈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이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향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군의 시민들에게 파크는 공통의 꿈을 키워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꿈은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변화의 꿈과 맞물려 있다. ‘혁신적 시민’들이 추구하는 사회 변화는 개인적 윤리에 호소하는 온정주의에서부터 시스템 변혁을 위한 연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편으로 ‘사회혁신’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향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될 뿐 하나의 공통된 비판적 기획으로 접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시에 ‘혁신적 시민’들은 민주/반민주, 거창함/소박함, 순수/비순수, 생산성-유연성/비생산성-경직성, 재미-자연/강박-인위 등의 코드를 사용해 기존의 운동과 스스로의 활동을 구별 짓는다. 이러한 구별 짓기의 실천은 스스로의 활동에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운동이 담지하고 있던 정치적 지향을 주변화 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한편 혁신적 시민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생존에의 압박이나 ‘정치적’이라는 낙인, 모순된 통치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기반은 이들의 활동에 주된 장애로 작용한다. 자생성, 순수성과 같이 깊이 내면화된 통치의 윤리는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군의 시민들은 통치의 언어를 보다 급진적으로 전유하면서 나름의 저항을 모색해가고 있다.

2. 한계점 및 함의

본 연구의 한계를 말하자면, 그 한도가 없을 것이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는 모든 질적 연구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나, 희망제작소 활동 회원이나 혁신파크 입주단체 전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면담을 진행한 21명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회혁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집중 되어 ‘혁신적 시민’을 형성해내는 통치 기획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나 수용되고 있는 양상을 복합적으로 고찰해내지 못하였다.

셋째, 위의 문제는 곧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기인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진행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었으나, ‘사회혁신’의 실천이 시민 만들기과 되기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후속 연구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타진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들이 보여준 민주적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비판적으로 문제화 해보는 것에 있었다. 이들이 표방하는 사회변화는 대안생산의 생산성과 협력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실상 기존의 운동이 담지하고 있던 정치적 가능성을 주변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류에 명민하게 적응하면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던 시민운동가들의 전략은 운동의 급진성과 저항성을 탈각시키는 효과를 수반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를 통해서 이들은 한국 사회운동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적 분화 과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본 논문은 이를 단순한 ‘탈정치적인’ 기획으로 환원시키려는 논의들과도 구분된다. 희망제작소나 서울혁신파크에서 만들어내는 통치 프로그램 자체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 이를 전유하는 행위자들은 이러한 통치 전략을 비판적으로 성찰해가면서 이들의 실천에 보다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했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사회혁신’이

그 자체로 열려 있는 게임이라는 것에 있다. ‘사회혁신’에 대한 엄밀한 정의나 방법론을 부재하다는 것은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실천을 조직하는데 있어 많은 혼동을 야기하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담지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열려 있는 게임으로서 ‘사회혁신’은 보다 급진적으로 전유될 수 있는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벡터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의 실천적 관심은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이 나아가고 있는 한 흐름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 운동의 급진성과 저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물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운동을 문제화하는 새로운 운동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원성, 생활 정치, 대안생산, 협력, 재미 등을 중시하는 ‘사회혁신’과 ‘혁신적 시민성’의 대두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혁신’ 프로그램은 생산성의 논리와 협력의 윤리로 적대와 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운동의 정치적 지향을 주변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것이 생산해내는 ‘혁신적 시민성’은 역량의 언어, 협력의 언어, 창의성의 언어를 동원해 기존 운동의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탈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이 기존의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들이 서있을 수 있는 지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운동과 배타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사회혁신’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활동의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주변화 하였던 ‘혁신적이지 않은’ 언어와 접합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면밀한 성찰은 이러한 연대의 정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혁신’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적 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기존의 운동과의 접점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른 운동에 대한 의도적·비의도적인 배제 속에서 구축된 ‘혁신적 시민’의 담론을 보다 급진화 하여 공통된 시민의 언어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신문기사

<<프레스리안>>, <“시민운동은 여전히 블루오션“-[강연]박원순 “대선 거짓말 바로 폭로되는 검증절차 만들자“>, 2006.1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19>

2)박원순 저서

박원순. 2000.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_____. 2004a. 「위기와 기회, 2004년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 시민운동가 대회 발표문.
_____. 2004b.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나남.
_____. 2007. 『프리월』. 중앙북스.
_____. 2008. 「아시아 사회적 기업 활동가 대회 폐막식 기조 연설」.
_____. 2010.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 21세기 북스.
_____. 2011. 『아름다운 가치 사전』. 위즈덤 하우스.
_____. 2013. 『희망을 건다』.하루헌.
박원순 · 지승호. 2009. 『희망을 심다』. 알마.
박원순 외. 2010.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박원순 · 오연호. 2013.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3)희망제작소 발간물 / ‘사회혁신’ 관련 번역서

- 희망제작소. 2007. 『2006 연차 보고서』.
- _____. 2008. 『2007 연차 보고서』.
- _____. 2009. 『2008 연차 보고서』.
- _____. 2010. 『2009 연차 보고서』.
- _____. 2011a. 『2010 연차 보고서』.
- _____. 2011b. 『5주년 컨퍼런스 기념 자료집』.
- _____. 2012. 『2011 연차 보고서』.
- _____. 2013. 『2012 연차 보고서』.
- _____. 2014. 『2013 연차 보고서』.
- _____. 2015. 『2014 연차 보고서』.
- _____. 2016. 『2015 연차 보고서』.
- 멀진, 제프. 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김영수 역. 시대의창.
- 만지니, 에치오. 2016. 『모두가 디자인 하는 시대(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조은지 역. 안그래픽스.

4) 누리집

- 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
-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
-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http://blog.naver.com/s_innopark
-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http://soinnolab.net>

5) 서울시 정책 문건

- 서울연구원. 2013. 「서울혁신파크 기본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서울혁신기획관. 2012. 『2012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 _____. 2013. 『2013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 _____. 2014. 『2014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 _____. 2015. 『2015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_____. 2016. 『2016 주요 업무 보고』.

서울시의회. 2013. 「제8대—2013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13.11.12. 화요일」.

6)서울혁신파크 발간물

서울혁신센터. 2016. 「2016년 서울혁신센터 사업계획」.

서울혁신파크. 2015. 『입주단체 소개 자료집』.

_____. 2016. 『혁신 이노베이션 로드』.

비영리 IT 지원센터, 2016. 『전문가자문회의 1차 회의록』.

7)시민운동 위기 담론

김선미. 2007. 「시민운동 위기 담론과 발전 방안-시민사회 지형변화와 관련
하여」. 『담론 201』 10(3), 143-173.

김정훈. 2007. 「민주화 20년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
인가?」.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운동의 의
미, 평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1-117.

박원순. 2004a. 「위기와 기회, 2004년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 시민운동가
대회 발표문.

배성인. 2007. 「신자유주의 시대, 변화하지 못한 시민운동의 한계와 과제」.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
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9-1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 민주 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

조희연. 2005. 「‘87년체제’의 전환기적 위기와 민주개혁」. 『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참여사회 연구소, 68-113.

지금중. 2006. 「시민사회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 『한국 사회포럼 자료집
2006』. 한국 사회포럼, 52-56.

하승창. 2004. 「‘참여형 시민’들이 90년대식 운동판을 바꾼다」. <<오마이
뉴스>>. 2004. 07.18.

- 하승창. 2006. 『90 년대 중앙집중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변화에 관한 연구-경실련, 참여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포럼. 2006. 『한국 사회포럼 자료집 2006』.
- 허성우. 2006.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을 넘어 : 지역/여성의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위기론」. 『한국 사회포럼 자료집 2006』. 한국사회포럼, 35-51.
- 홍석만. 2006.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위기와 시민운동의 위기」. 『한국 사회포럼 자료집 2006』. 한국사회포럼, 19-26.

2. 국내 저자 문헌

- 강제상 외. 2014. 「사회복지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서울시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153-182.
- 강진숙 외. 2009.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3(4), 7-48.
- 고길섭. 2008. 「공포정치, 촛불항쟁,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는」. 『문화과학』 55, 130-149.
- 곽정래. 2011.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시민성 형성」. 『한국방송학보』 25(3), 92-132.
- 곽중현. 2010. 『청년백수와 자기계발: 통치야익에 대한 청년백수들의 실천적 대응전략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7. 「시민운동 위기 담론과 발전 방안-시민사회 지형변화와 관련하여」. 『담론 201』, 143-173.
- 김성윤. 2013.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 『문화과학』 73, 110-128.
- 김세균. 1995.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시민사회 시민운동 1』. 유팔무·김호기 엮음. 한울.
- 김승환. 2013. 『신자유주의시대의 공공성 위기와 ‘새로운 운동주체’의 도래-홍대 두리반, 명동 마리, 슬릿워크, 잠민총파업을 중심으로』. 성공

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3), 146-191.
- 김원. 2010. 「문화, 젠더 그리고 세대적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조희연 외 엮음. 한울.
-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경제와 사회』 96, 210-251.
- 김정원 외. 2016.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4.
- 김정훈. 2007. 「민주화 20년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1-117.
- 김정훈. 2010.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풀뿌리사회운동과 사이버사회운동을 중심으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
- 김정희. 2015.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135-170.
- 김철규, 이해진, 김선업, & 이철. 2010. 「촛불집회 10 대 참여자의 정체성과 사회의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85, 265-290.
- 김호기. 2008. 「쌍방향 소통 2.0 세대」. <<한겨레>>. 2008. 05. 15
-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 사회』 108, 32-72.
- _____. 2016. 「진정성의 수행과 창조적 자아에의 꿈 : 시문학동인 P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50(2), 199-229.
- 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산책자.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필. 2009. 「한국 시민운동 위기론의 실재와 허구」. 『한국비영리연구』 7, 39-69.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 사회』 43, 5-43.
- 배성인. 2007. 「신자유주의 시대, 변화하지 못한 시민운동의 한계와 과제」.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

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9-130.

- 변미리. 2012.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서울연구원.
- 서동진. 2008.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자음과 모음』 가을호.
- _____.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 송석휘. 2015.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공간과 사회』 25, 153-189.
- 심성보. 2015.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교육비평』 36, 162-181.
- 신진옥 · 이영민. 2009. 「시장포폴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경제와사회』 81, 273-299.
- 신진옥.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 · 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89, 10-45.
- 유팔무. 1995.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유팔무 · 김호기 엮음. 한울.
- 윤상우. 2010. 「민주화 과정에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분석」.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분화하는 사회운동』. 조희연 외 엮음. 한울.
- 윤순진 · 심혜영. 2014. 「전략적 틈새로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 햇빛발전 확대와 경로의존적 장애요인-서울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63-264.
- 윤지현. 2010. 「사회적 혁신의 이해」, 『한국사회혁신학회보』 1, 123-139.
- 은수미. 2001.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해계모니: 이념과 쟁점형성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의 동시성장과 정치세력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강준. 2015.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 정치와 시민 참여 거버넌스」. 『경제와 사회』 107, 140-172.
- 이동연. 2008.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55, 150-167.
- 이영희. 2013.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서울플랜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8, 106-133.
- 이항우. 2011. 「이념의 과잉 - 한국 보수세력의 사회정치 담론 전략

- (2005~2006년, 2008~2009년)」. 『경제와 사회』 89, 217- 268.
- 이해진. 2008. 「촛불집회 10 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사회』 80, 68-108.
- 제정남. 2006. 「붓물 터진 진보개혁진영의 '싱크탱크' 창립바람」. 『월간 말』 . 242, 42-47.
- 조문영. 2013. 「연구논문: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한국 사회」.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 조민서. 2015. 「공공성의 구조변동 : 서울대 총학생회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제8회 관악 사회학 주간 자료집.
- _____. 2016. 「서울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시민에 대한 통치-서울시 시민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학사학위논문.
- 조정환. 2009. 『미네르바의 촛불』. 갈무리.
- 조희연. 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운동 시민사회 1』. 유팔무·김호기 엮음. 한울.
- _____. 2005. 「‘87년체제’의 전환기적 위기와 민주개혁」. 『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참여사회 연구소, 68-113.
- _____. 2010. 「서장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
- _____. 2012. 『민주주의 좌파, 원순과 철수를 논하다(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정치혁신과 희망의 대안』. 한울 아카데미.
- 조희연, & 홍일표. 2004. 「개혁적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운동」. 『창작과비평』 32(1), 108-122.
- 조희연 외. 2010.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조희연 외 엮음. 한울.
- 최원. 2014. 「한국 진보 운동 재구성의 몇몇 쟁점들」. 『진보평론』 59, 186-204.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지영 외. 2015. 「한국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8(4), 113-137.
- 하승창. 2015.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 휴머니스트.
-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

과학연구』 28, 113-129.

홍일표. 2007. 『기रो에 선 시민입법』. 후마니타스.

_____. 2011. 「한국에서 '시민사회 싱크탱크'의 발전과 특성 : 33개 시민사회 싱크탱크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9(1), 93-128.

홍철기. 2010. 「상탈 무폐」. 『현대정치철학의 모험』. 조영일 외. 난장.

3. 국외 저자 문헌

고든 외. 2014. 『푸코효과』. 오토르망 역. 난장.

만지니, 에치오. 2016. 『모두가 디자인 하는 시대(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조은지 역. 안그래픽스.

멀건, 제프. 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김영수 역. 시대의창.

무폐, 상탈.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역. 후마니타스.

베버, 막스. 2007.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역. 나남출판.

브뢰클링, 올리히. 2014.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역. 한울 아카데미.

알린스키. 2008.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역. 아르케.

크룩생크, 바바라. 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심성보 역. 갈무리.

푸코, 미셸.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토르망 외 역. 난장.

하비, 데이비드. 2011. 『맑스 자본 강의』. 강신준 역. 창비.

Bessant, J. 2003. "Youth participation: a new mode of government." Policy studies, 24(2-3), 87-100.

Bevir. 2016. "Governmentality after neoliberalism." in *Governmentality after neoliberalism*. Routledge.

Bröckling, U., Krasmann, S., & Lemke, T. 2011. *Governmentalit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et al.: Routledge.

Brown, W. 2001. *Politics out of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eshire, L., & Lawrence, G. 2005. "Neoliberalism, individualisation and community: Regional restructuring in Australia". Social Identities,

- 11(5), 435-445.
- Drucker, P. F. 1985.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 Harvard business review, 63(3), 67-72.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 Feher, M. 2009. "Self-appreciation; or, the aspirations of human capital" .Public Culture, 21(1), 21-41.
- Gerometta, J., Haussermann, H., & Longo, G. 2005.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Strategies for an inclusive city." Urban Studies, 42(11), 2007-2021.
- Gershuny, J. 1983. *Social innovation and the division of labour*. Oxford University Press.
- Ilcan, S., & Lacey, A. 2006. "Governing through empowerment: Oxfam's global reform and trade campaigns." Globalizations, 3(2), 207-225.
- Lessenich, S. 2011. "Constructing the Socialized Self." Governmentalit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304-319.
- McKee, K. 2009. "Post-Foucauldian governmentality: What does it offer critical social policy analysis?." Critical social policy, 29(3), 465-486.
- Miller & Rose,. 2008. *Governing the present : Administer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Polity Press.
- Muehlebach, A. 2012. *The moral neoliberal: welfare and citizenship in Ital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edham. 2016. "Social Welfare Policy: Fantasy and Assemblage in a Personalised Welfare State" in *Governmentality after Neoliberalism*. Routledge.
- Noya, A. 2011. "The Essential Perspectives Of Innovation : The OECD LEED FORUM On Social Innovation" , in *Foster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workshop proceedings). 18-24.
-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3), 327-356.
- Rose, N. et al., 2006. "Governmentality" Annu. Rev. Law Soc. Sci., 2,

83-104.

Swyngedouw, E. 2009. "Civil society, governmentality and the contradictions of governance-beyond-the-state: The Janus-face of social innovation." in *Social innovatio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Routledge.

Taylor, J. B. 1970. "Introducing social innovation."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6(1), 69-77.

Abstract

The meaning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novative citizenship’

: A study of ‘Hope Makers’ and ‘Seoul
Innovation Park’

Kim, Eun Ji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 new mode of civic movement named ‘Social innovation’ which has emerged since 2000s in South Korea, the citizenship it tries to produce and the political effect of it. ‘Social innovation’ needs close inquiry in that it shows one of the directions that social movement in South Korea has taken since 2000s. Many studies pay attention to the democratic possibility that ‘Social Innovation’ brings. However, this needs to be critically studied in that it is not only a way of governing the citizen to become specific subject, but the way it governs marginalizes the political imagination that existing social movements have. By discursiv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I examined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Social Innovation’ produced by NGO ‘Hope makers’ and ‘Seoul Innovation Park’, named the citizenship that it tries to produce as ‘Innovative Citizenship’ and studied the emergence, the process of producing it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of the agents performing it.

Chapter II discusses the background that ‘Social Innovation’ can appear and the semantics of it. ‘Social Innovation’ appeared in South Korea in 2000s as the activists who tried to find a new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90’ s civic movement’ adopted the neoliberal mode of civic participation which has been widely spreaded in Europe since 1990’ s. The two stances –radicalization and popularization –competed in diagnosing and finding solutions to the ‘crisis of 90’ s civic movement’ in early 2000s, and the ‘Social innovation’ is introduced as an popularization strategy by civic activist, Park Won Soon and his fellows. They ascribed the crisis of the civic movement to the absence of ‘novelty’ rather than the absence of critical mind to the issue of social economical inequality. Also they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by reinforcing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mobilizing voluntary citizens who have started to engage in social movement since 2000s rather than by radicalizing the movement focusing on ‘minjoong’ (oppressed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90’ s civic movement in 1990s. This strategy was materialized by ‘Hope makers’ , the newly founded NGO by Park Won Soon and was named as ‘Social Innovation’ since late 2000s by making partnership with Young Foundation in England.

‘Social Innovation’ which was devised as a new model of civic movement that can overcome the ‘90’ s civic movement’ reconstructs the meaning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y reestablishing the area, subject and the method of the movement. Firstly, it shifts the focus of the issue from ‘the Politics’ to the everyday life. Secondly, it stresses micro pragmatic solution to social problem rather than depending on abstract ideology and slogan. Along with tha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marginalizing the antagonism. Thirdly, it calls ‘lay people’ as subject of the new movement rather than ‘experts’ or ‘professional activists’ who played key role in ‘90s civic movement.’

Chapter III studies the way of governing the people to become

‘innovative citizen’ using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The civic participation and education programs that NGO ‘Hope Makers’ and ‘Seoul innovation Park’ produce function as dispositif governing ‘innovative citizen’ by educating them to have specific virtues and capabilities. The discourses and the practices of governing make citizen as an ‘active’, ‘social’ and ‘creative’ being. And this needs to be critically inquired in that this can marginalize the possibility of the political outlook that existing social movements have.

Chapter IV demonstrates the way that individuals actually perform the citizenship. The interviews with the citizens and activists working in ‘Hope makers’ and ‘Seoul Innovation park’ show that the agents actively adopt, change, appropriate and criticize the governing strategy, changing the vector of the program. The languages and meanings that the discourse of ‘Social innovation’ provide, construct the collective aspiration or dream of the agents, intersecting with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s and values. Also their aspirations become reinforced by making distinction with the existing movement by using the codes of ‘democratic-undemocratic’, ‘grandiose ideology-micro change’, ‘pure-impure’, ‘productive/flexible-unproductive rigid’, ‘fun-serious’. This distinction provides the logic for legitimizing the innovative citizenship while marginalizing the political aspirations that existing social movements have. Also they actively reflect and criticize the governing practices confronting the various problems in reality. They have to bear the unstable economic condition and stigmatization by conservatives while being forced to meet the contradictory demands of the administration. Although the ideals of autonomy and purity hinder them to fight against the situation, some try to find a way to resist against the power, changing the vector of the program.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case study of only 21 citizens and is dealing with ongoing case, I try to make empirical research on the specific citizenship that appear in 2000s in South Korea. Although

its emergence reflects the demands of the times, ‘Social Innovation’ needs to be critically inquired in that it marginalizes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existing social movement. However,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ocial innovation’ is an open game that can be appropriated in various ways. How can it be possible to make a constructive connection between the radical social movement and the ‘social innovation’ while preserving the possibility of it? This study attempted to open space for the discussion about it.

Key words : Social innovation, Governmentality, Citizenship, Political subject, civic movement, Park Won Soon , Seoul innovation Park, Hope makers

Student number : 2014-20222